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2021년 8월
박사학위논문

공공시설물디자인 이용 후 만족도 분석

- 한·중 역사문화거리를 중심으로 -

조선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과 공공디자인전공

강 립 영

공공시설물디자인 이용 후 만족도 분석

- 한·중 역사문화거리를 중심으로 -

Analysis of Satisfaction after Using Design of Public Facilities
- Focused on Historical and Cultural Blocks in Korea and China -

2021년 8월 27일

조선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과 공공디자인전공

강 립 영

공공시설물디자인 이용 후 만족도 분석

- 한·중 역사문화거리를 중심으로 -

지도교수 윤 갑 근

이 논문을 디자인학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21년 4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과 공공디자인전공

강 림 영

강림영의 박사학위논문을 인준함


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李 峯 烈 

위 원 조선대학교 교수

李 陳 旭 


위 원 서경대학교 교수

鄭 熙 勳 

위 원 군산대학교 교수

韓 世 民 

위 원 조선대학교 교수

尹 甲 根 

2021년 6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목 차

ABSTRACT

제1장 서론

1.1 연구 배경 및 목적.....	2
1.1.1 연구의 배경.....	2
1.1.2 연구의 목적.....	3
1.2 연구 범위 및 방법.....	4
1.2.1 연구의 범위.....	4
1.2.2 연구의 방법.....	5
1.3 연구 흐름도.....	7

제2장 이론적 고찰

2.1 공공시설물 디자인 고찰.....	9
2.1.1 공공디자인의 이해.....	9
2.1.2 공공시설물의 이해.....	15
2.2 역사문화거리의 고찰.....	27
2.2.1 역사문화도시.....	27
2.2.2 역사문화거리.....	31
2.3 만족도 평가요소.....	39
2.3.1 개념.....	39
2.3.2 평가요소.....	41
2.4 선행연구.....	44
2.4.1 공공디자인.....	44

2.4.2 공공시설물..... 45

2.4.3 역사문화거리..... 47

2.4.4 소결..... 48

제3장 한·중 역사문화거리의 공공시설물디자인 사례조사

3.1 서울 인사동 역사문화거리..... 52

 3.1.1 개요..... 52

 3.1.2 공공시설물디자인 사례..... 54

3.2 경주 황남동 역사문화거리..... 57

 3.2.1 개요..... 57

 3.2.2 공공시설물디자인 사례..... 59

3.3 전주 한옥마을 역사문화거리..... 63

 3.3.1 개요..... 63

 3.3.2 공공시설물디자인 사례..... 64

3.4 베이징 대책란 역사문화거리..... 68

 3.4.1 개요..... 68

 3.4.2 공공시설물디자인 사례..... 71

3.5 시안 연호 역사문화거리..... 73

 3.5.1 개요..... 73

 3.5.2 공공시설물디자인 사례..... 75

3.6 항저우 청하방 역사문화거리..... 78

 3.6.1 개요..... 78

 3.6.2 공공시설물디자인 사례..... 80

3.7 조사 대상 소결..... 83

제4장 공공시설물 디자인의 이용 후 만족도 분석

4.1 평가 개요.....	86
4.1.1 분석 개요.....	86
4.1.2 자료의 분석 방법.....	87
4.2 표본의 선정 및 특성.....	89
4.2.1 표본의 선정 및 자료수집.....	89
4.2.2 표본의 특성.....	89
4.3 역사문화거리의 공공시설물 디자인 만족도 분석.....	90
4.3.1 정보시설물.....	91
4.3.2 위생시설물.....	97
4.3.3 휴게시설물.....	103
4.3.4 보행시설물.....	106
4.3.5 관리시설물.....	115
4.3.6 조명시설물.....	118
4.4 소결.....	121

제5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표 목 차

[표 2-1] 공공디자인의 범위 및 분류.....	12
[표 2-2] 공공디자인의 범위 및 분류.....	14
[표 2-3] 공공시설물 유형 분류 연구 경향.....	18
[표 2-4] 공공시설물 유형 분류.....	19
[표 2-5] 공공시설물 디자인 구성 특성.....	23
[표 2-6] 역사문화거리의 유형 연구 경향.....	36
[표 2-7] 역사문화거리의 유형.....	37
[표 2-8] 만족도 연구 관련 평가요소.....	42
[표 2-9] 공공디자인 관련 선행연구.....	44
[표 2-10] 공공시설물 관련 선행연구.....	45
[표 2-11] 공공시설물 관련 선행연구.....	47
[표 3-1] 인사동 역사문화거리 현황.....	54
[표 3-2] 정보시설물.....	54
[표 3-3] 위생시설물.....	55
[표 3-4] 휴게시설물.....	55
[표 3-5] 보행시설물.....	56
[표 3-6] 관리시설물.....	56
[표 3-7] 조명시설물.....	57
[표 3-8] 황남동 역사문화거리 현황.....	59
[표 3-9] 정보시설물.....	59
[표 3-10] 위생시설물.....	60
[표 3-11] 휴게시설물.....	60
[표 3-12] 보행시설물.....	61
[표 3-13] 관리시설물.....	62
[표 3-14] 조명시설물.....	62
[표 3-15] 전주 한옥마을 역사문화거리 현황.....	64
[표 3-16] 정보시설물.....	64
[표 3-17] 위생시설물.....	65

[표 3-18] 휴게시설물.....	65
[표 3-19] 보행시설물.....	66
[표 3-20] 관리시설물.....	67
[표 3-21] 조명시설물.....	67
[표 3-22] 대책란 역사문화거리 현황.....	70
[표 3-23] 정보시설물.....	71
[표 3-24] 위생시설물.....	71
[표 3-25] 휴게시설물.....	71
[표 3-26] 보행시설물.....	72
[표 3-27] 관리시설물.....	72
[표 3-28] 조명시설물.....	73
[표 3-29] 연호 역사문화거리 현황.....	74
[표 3-30] 정보시설물.....	75
[표 3-31] 위생시설물.....	75
[표 3-32] 휴게시설물.....	76
[표 3-33] 보행시설물.....	76
[표 3-34] 관리시설물.....	77
[표 3-35] 조명시설물.....	77
[표 3-36] 청하방 역사문화거리 현황.....	79
[표 3-37] 정보시설물.....	80
[표 3-38] 위생시설물.....	80
[표 3-39] 휴게시설물.....	81
[표 3-40] 보행시설물.....	81
[표 3-41] 관리시설물.....	82
[표 3-42] 판매시설물.....	82
[표 3-43] 조명시설물.....	82
[표 3-44] 조사 항목 분석.....	84
[표 4-1] 공공시설물 디자인 평가요소 및 세부내용.....	86
[표 4-2] 신뢰도 검증.....	88

[표 4-3] 인구통계학적 특성.....	90
[표 4-4] 한국과 중국의 공공시설물 디자인 요소 만족도	91
[표 4-5] 관광안내소-안전성 독립표본검정.....	91
[표 4-6] 관광안내소-기능성 독립표본검정.....	92
[표 4-7] 관광안내소-정체성 독립표본검정.....	92
[표 4-8] 관광안내소-통합성 독립표본검정.....	92
[표 4-9] 관광안내소-조화성 독립표본검정.....	93
[표 4-10] 관광안내소-지속가능성 독립표본검정.....	93
[표 4-11] 관광안내소에 대한 만족도.....	94
[표 4-12] 안내사인-안전성 독립표본검정.....	94
[표 4-13] 안내사인-기능성 독립표본검정.....	95
[표 4-14] 안내사인-정체성 독립표본검정.....	95
[표 4-15] 안내사인-통합성 독립표본검정.....	95
[표 4-16] 안내사인-조화성 독립표본검정.....	96
[표 4-17] 안내사인-지속가능성 독립표본검정.....	96
[표 4-18] 안내사인에 대한 만족도.....	97
[표 4-19] 화장실-안전성 독립표본검정.....	97
[표 4-20] 화장실-기능성 독립표본검정.....	98
[표 4-21] 화장실-정체성 독립표본검정.....	98
[표 4-22] 화장실-통합성 독립표본검정.....	98
[표 4-23] 화장실-조화성 독립표본검정.....	99
[표 4-24] 화장실-지속가능성 독립표본검정.....	99
[표 4-25] 화장실에 대한 만족도.....	100
[표 4-26] 휴지통-안전성 독립표본검정.....	100
[표 4-27] 휴지통-기능성 독립표본검정.....	101
[표 4-28] 휴지통-정체성 독립표본검정.....	101
[표 4-29] 휴지통-통합성 독립표본검정.....	101
[표 4-30] 휴지통-조화성 독립표본검정.....	102
[표 4-31] 휴지통-지속가능성 독립표본검정.....	102

[표 4-32] 휴지통에 대한 만족도	103
[표 4-33] 벤치-안전성 독립표본검정	103
[표 4-34] 벤치-기능성 독립표본검정	104
[표 4-35] 벤치-정체성 독립표본검정	104
[표 4-36] 벤치-통합성 독립표본검정	104
[표 4-37] 벤치-조화성 독립표본검정	105
[표 4-38] 벤치-지속가능성 독립표본검정	105
[표 4-39] 벤치에 대한 만족도	106
[표 4-40] 펜스-안전성 독립표본검정	106
[표 4-41] 펜스-기능성 독립표본검정	107
[표 4-42] 펜스-정체성 독립표본검정	107
[표 4-43] 펜스-통합성 독립표본검정	107
[표 4-44] 펜스-조화성 독립표본검정	108
[표 4-45] 펜스-지속가능성 독립표본검정	108
[표 4-46] 펜스에 대한 만족도	109
[표 4-47] 블라드-안전성 독립표본검정	109
[표 4-48] 블라드-기능성 독립표본검정	110
[표 4-49] 블라드-정체성 독립표본검정	110
[표 4-50] 블라드-통합성 독립표본검정	110
[표 4-51] 블라드-조화성 독립표본검정	111
[표 4-52] 블라드-지속가능성 독립표본검정	111
[표 4-53] 블라드에 대한 만족도	112
[표 4-54] 정류장-안전성 독립표본검정	112
[표 4-55] 정류장-기능성 독립표본검정	113
[표 4-56] 정류장-정체성 독립표본검정	113
[표 4-57] 정류장-통합성 독립표본검정	113
[표 4-58] 정류장-조화성 독립표본검정	114
[표 4-59] 정류장-지속가능성 독립표본검정	114
[표 4-60] 정류장에 대한 만족도	115

[표 4-61] 맨홀뚜껑-안전성 독립표본검정	115
[표 4-62] 맨홀뚜껑-기능성 독립표본검정	116
[표 4-63] 맨홀뚜껑-정체성 독립표본검정	116
[표 4-64] 맨홀뚜껑-통합성 독립표본검정	116
[표 4-65] 맨홀뚜껑-조화성 독립표본검정	117
[표 4-66] 맨홀뚜껑-지속가능성 독립표본검정	117
[표 4-67] 맨홀뚜껑에 대한 만족도	118
[표 4-68] 가로등-안전성 독립표본검정	118
[표 4-69] 가로등-기능성 독립표본검정	119
[표 4-70] 가로등-정체성 독립표본검정	119
[표 4-71] 가로등-통합성 독립표본검정	119
[표 4-72] 가로등-조화성 독립표본검정	120
[표 4-73] 가로등-지속가능성 독립표본검정	120
[표 4-74] 가로등에 대한 만족도	121
[표 4-75] 공공 시설물에 대한 만족도	123

그림 목 차

[그림 1-1] 연구흐름도	7
----------------------	---

ABSTRACT

Analysis of Satisfaction after Using Design of Public Facilities - Focused on Historical and Cultural Blocks in Korea and China -

Kang, Linying

Advisor : Prof. Yoon, Gab-geun, Ph.D.

Department of Design,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In recent years, the urban renewal activities in Korea and China have been carried out nationwide. The image of the city has undergone tremendous changes, but it has also shown that it does not match the current development speed of social economy, cultural aesthetics, and urban management. As people have a deeper understanding of the special value of historical and cultural blocks, coupled with the increasing calls for building individual cities and continuing urban context, the regeneration of historical and cultural blocks in urban renewal has gradually become a widespread concern for people all over the world. Focus. As an important part of the field of public design, public facilities are the closest thing to the human body in the process of people's understanding of the history and culture of the block. It is also one of the starting points for people to form an impression of the city. The image of public facilities and the image of historical and cultural blocks are a community.

The current status of the development of public facilities is not satisfactory, and there are mainly the following problems. First, due to people's insufficient awareness and care for the protection of historical and cultural blocks, some public facilities have been neglected. Second, the protection methods of some historical and cultural blocks are the same, focusing only on the building itself, ignoring the coordination between the facilities and the human environment. In particular, the awareness of the protection of the entire historical and cultural environment is insufficient, and public facilities do not have the proper image

and charm. Third, most of the public facilities that have been installed cannot be coordinated with the environment, and there is no uniformity in terms of construction planning, design, and maintenanc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tudy the relationship and influence of the design elements of public facilities on people's satisfaction after use. In order to use practical countermeasures to solve problems, it is necessary to conduct close research on public facilities close to people's lives. Especially in the study of the relationship between historical and cultural blocks and public facilities, it is necessary to start from the aspect of user satisfaction.

Based on the design characteristics of public facilities, this research will evaluate and analyze the post-utilization satisfaction of the public facilities design in Korea and China's historical and cultural blocks, and obtain the satisfaction evaluation elements for the design of public facilities in Korea and China. The improvement direction of the design of public facilities and the future development of the regeneration of historical and cultural blocks and the design of public facilities during construction.

The research method of this study is in line with the research purpose, and consists of a theory establishment stage, an evaluation analysis stage, and an evaluation analysis stage. In the research method, the theoretical content of public facilities design is investigated through literature and related materials, and public facilities are collected, classified and sorted through literature research. After sorting out these data, statistical analysis was implemented to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of specimens and the general status of the design of historical and cultural blocks. In order to obtain the difference in the satisfaction evaluation of public facilities in Korean and Chinese historical and cultural blocks, one-way analysis of variance (One-Way ANOVA) was implemented. The analysis results will be obtained through the satisfaction evaluation of 10 public facilities in 6 historical and cultural blocks. The detailed content of the research is divided into five chapters, and the methods are as follows:

The first chapter is the preface, which involves the background, purpose, scope and methods of the research.

The second chapter theoretical investigation, centered on the literature, understands the classification and characteristics of the public facilities system,

and draws the evaluation elements of the public facilities in historical and cultural blocks on the basis of relevant scholars and design evaluation criteria.

The third chapter is the investigation of public facilities design case. Through the investigation and analysis of the design case of historical and cultural blocks in Korea and China, the detailed items of the questionnaire survey are set up.

The fourth chapter investigates the user satisfaction of each element of the public facilities design in historical and cultural blocks, and based on the satisfaction survey, analyzes the satisfaction of each evaluation item of public facilities in historical and cultural blocks in Korea and China.

The fifth chapter is to draw conclusions by summarizing the results.

This research hopes to seek the development path of historical and cultural blocks so that people can enjoy the use of public facilities in the block more comfortably and satisfactorily. From the perspective of satisfaction after utilization, it proposes practical design trends. This will improve the competitiveness of historical and cultural blocks and promote the harmony between historical and cultural blocks and the people. This will also promote the development of regional economy and provide guidance for the design evaluation or development direction of public facilities in historical and cultural blocks in Korea and China in the future.

제1장

서론

- 1.1 연구 배경 및 목적
- 1.2 연구 범위 및 방법
- 1.3 연구 흐름도

제1장 서론

1.1 연구 배경 및 목적

1.1.1 연구의 배경

최근 몇 년간 역사문화도시 보존은 세계 각국의 도시계획, 관리 분야의 중요한 이슈로 떠올랐다. 일부 선진국에서는 역사문화유산 보존 관련 전문가와 대중의 의식 제고로 인해 도시 이미지 하락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이러한 현상은 세계 각 도시의 발전을 위한 해결 과제가 되었다. 소위 도시 이미지 하락이란 도시의 발전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현상 중 하나로, 사회 경제, 문화 예술, 도시 관리 등 측면의 발전 부조화, 심지어 고유의 역사문화경관이 파괴되어 도시 발전이 후퇴하는 현상을 말한다.

경제가 급속히 발전하고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화가 가속화되면서 한국과 중국 역시 도시화 속도가 점점 더 빨라졌으며 최근 한국과 중국에서는 전국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되어 각 도시의 이미지에 큰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도시재생은 도시 발전에서 필연적으로 거치게 되는 과정 중 하나로, 장단점을 모두 지닌 양날의 검과 같은 존재다. 도시재생은 경제를 되살리고 도시 경관을 미화하며 도시의 인프라시설 수준과 시민들의 삶을 질을 높이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지만, 체계적인 계획 없이 무차별적으로 추진되는 도시재생 사업은 오히려 도시의 고유의 역사문화자원을 훼손하는 부정적인 결과를 낳는다. 마찬가지로, 과거 장기간 대규모의 도시재생 사업이 진행되면서 도시의 역사문화자원에 대한 보호 의식이 약해지고 체계적인 관리 체계가 부재하여 일부 역사문화도시 및 역사문화거리가 훼손되면서 도시 이미지의 특색을 살린 역사문화도시 보호의 필요성이 계속해서 대두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역사문화거리의 특수한 가치에 대한 인식 강화와 개성 있는 도시를 만들고 도시 고유의 명맥을 계승하자는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면서 도시재생사업에 있어 역사문화거리 재생은 전 세계적으로 높은 관심과 주목을 받게 되었다.

공공시설물은 공공디자인의 중요한 부분으로 역사문화거리 구성에 있어 대체 불가능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공공시설물은 사람들이 역사문화거리를 인지하는 과정에서 물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접촉하는 사물로, 사람들이 도시에 대한 이미지를 형성하는 시작점 중 하나이다. 공공시설물은 자체적으로 지닌 표현 언어를 통해 지역문화와 전통문화를

재현 및 재창조하며 나아가 현대와 전통이 결합되고 보편적인 미적 기준과 지역적 특색에 모두 부합하는 담지체다. 다시 말해서 공공시설물의 이미지는 역사문화거리의 이미지와 하나의 공동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물질적 대량생산과 표면적 기능만으로 도시 공간을 차지하고 있어 도시 환경에 통일성과 개방감이 부족하며 이는 이용자에게 시각적, 인지적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다. 일부 도시는 재정과 개발에 따른 이익 문제로 역사문화거리에 대한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역사문화거리 보호와 도시재생 간 갈등이 존재하기도 한다. 이에 따라, 현재 공공시설물 발전 현황은 그다지 만족스러운 상황이 아니며 주로 다음 몇 가지 측면에서 문제점이 존재한다. 첫째, 사람들의 역사문화거리에 대한 보호 의식과 관심이 부족하여 일부 공공시설물이 낙후된 상태로 간과되고 있다. 둘째, 일부 역사문화거리는 보호 방식이 천편일률적이며 건축물 자체만 중시하고 시설물과 인문환경 간의 조화를 간과하고 있다. 특히, 역사문화환경 전체에 대한 보호 의식이 부족하여 공공시설물이 마땅히 지녀야 할 이미지와 매력을 갖추지 못하였다. 셋째, 이미 설치되어 있는 대부분의 공공시설물은 환경과의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조성 계획, 디자인, 유지보수에 있어 통일성이 없다.

1.1.2 연구의 목적

대규모 도시 건설은 경제성장의 일환으로, 효과적인 도시 관리와 공공시설물 디자인은 한 국가의 문화 수준과 경제성장을 상징한다. 특히 한국과 중국의 역사문화거리는 거리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공공시설물을 효율적으로 디자인 및 관리하고 있어 이에 대해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우수한 공공시설물 디자인은 역사문화거리 환경의 질을 제고하고 나아가 도시 생활 수준 및 도시 발전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가 될 수 있다.

오늘날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문화와 예술을 발전시키고 독특한 지역 문화를 구축하기 위해 애쓰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공공시설물은 가로환경 이미지를 결정짓는 중요한 척도가 된다. 공공시설물 디자인은 기능성 구현과 심미적 표현 외에도 지역문화의 특성을 반영해야 하며 각 지역의 문화적 차이를 공공시설물 디자인에 충분히 구현해야 한다.

사람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미에 대한 기준이 높아지면서 디자인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도 크게 높아졌으며 공공공간 환경 및 공공시설물 디자인 등에 더 높은 수준을 요구하고 있다. 공공시설물 디자인은 사람들의 공공생활에 많은 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사람들의 삶의 패턴과 사고방식을 개선한다. 공공시설물 디자인의 공공이라는 특징은 디자인 방향 설정에 있어 공중의 보편적 특징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그래서 이용 후 만족도는 사람

들이 역사문화거리 공공시설물을 어떻게 바라보고 수용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공공시설물 디자인 요소가 이용자의 이용 후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어있는 공공시설물에 대한 연구, 특히 역사문화거리와 공공시설물 간 상호관계에 관한 연구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이용자의 만족도 측면을 연구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

공공시설물 디자인에 관한 기존의 이론적 연구는 대부분 공공시설물 디자인의 외형, 기능 등 외재적 요소에 관한 연구에 집중되어 있으며 주관적 요소가 상대적으로 강하고 실증연구 측면에서 효과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연구는 거의 없다. 따라서, 적절하고 사람들이 만족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 디자인 개발은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으며 이에 본 연구는 이용 후 만족도를 출발점으로 하여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디자인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역사문화거리 공공시설물 디자인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공공시설물 디자인 특성을 토대로 한국과 중국 역사문화거리의 공공시설물 디자인에 대한 이용 후 만족도 평가 및 분석을 통해 한국과 중국의 공공시설물 디자인에 대한 만족도 평가 요소를 도출함으로써 공공시설물 디자인의 개선 방향과 향후 역사문화거리 재생 및 조성 시 공공시설물 디자인을 위한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1.2 연구 범위 및 방법

1.2.1 연구의 범위

조사 대상 지역은 한국과 중국의 대표적인 역사문화도시로 선정하였으며 한국은 서울, 경주, 전주, 중국은 베이징, 서안, 항저우를 선택하여 현지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상기 6개 도시를 조사 대상으로 채택한 이유는 아래와 같다.

서울은 한국의 수도이자 문화 및 예술의 중심지로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도시다. 또한, 역사문화유산이 풍부하며 세계적으로도 도시 발달 수준이 높고 도시 설계가 훌륭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경주는 ‘천년의 고도’로 문화유산과 관광자원이 매우 풍부하고 지방행정의 중심지다. 전주는 후삼국시대 백제의 수도였으며 천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

고 많은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다. 베이징(北京)은 중국의 수도로 중국의 정치적 중심지이자 문화적 중심지다. 또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고도이자 현대화된 국제도시이다. 시안(西安)은 중국 서부지역의 중심도시로, 중국 역사에서 무려 13개 왕조가 도읍으로 삼았던 만큼 세계문화유산이 매우 풍부한 도시다. 항저우(杭州)는 중국 저장성(浙江省)의 정치, 경제, 과학 및 교육, 문화의 중심지로, 중국 동부의 대표 도시, 천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으며 역사문화자원이 다양하고 풍부하다.

사전 조사를 통해 역사문화거리의 선정 조건(전체적인 거리 환경, 거리 보행률, 공공생활 활성화, 인지도 등)과 역사문화거리의 유형(문화형, 상업형, 주거형)을 충분히 고려하였다. 본 연구의 지역 범위는 역사문화도시 내 특정 역사적 시기의 전통적인 모습 또는 지역적 특색을 지닌 거리로 최종 선정된 역사문화거리는 서울 인사동 역사문화거리, 경주 황남동 역사문화거리, 전주 한옥마을 역사문화거리, 베이징 대책란 역사문화거리, 시안 연호 역사문화거리, 항저우 청하방 역사문화거리로, 총 6개의 상업형 역사문화거리 공공시설물 디자인을 대상으로 사례 현지 조사를 실시하였다.

선정된 역사문화거리의 현지 조사를 통해 본 연구에 필요한 공공시설물 디자인을 조사하였으며 역사문화거리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공공시설물의 디자인 특징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각도에서 촬영하여 사진자료를 확보하였다.

1.2.2 연구의 방법

본 연구의 연구 방법은 연구 목적에 맞게 크게 이론 수립 단계, 평가 분석 단계, 평가 해석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연구 과정은 먼저 현황 분석 및 관련 사례에 대한 연구를 실시한 다음, 정량적 분석을 위주로 한국과 중국에 대한 비교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공공시설물과 전체 만족도를 전반적으로 비교하여 이용 후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을 도출한다. 이를 통해 양국의 차이를 살펴보고 향후 디자인을 위한 참고 자료를 제공한다.

첫째, 문헌 고찰 및 분석이다. 문헌 고찰을 통해 먼저 본 연구의 주요 개념인 공공시설물과 역사문화거리, 만족도에 관한 정의를 확립하고 선행연구 내용을 분석한다. 공공시설물과 역사문화거리의 유형을 확정하고 역사문화거리의 공공시설물 디자인 평가 요소를 도출한다.

둘째, 현지 조사 및 분석이다. 현지 조사는 문헌을 통해 살펴본 내용을 토대로 현지의 실제 상황에 따라 세부 평가 항목을 설정한다.

셋째, 설문조사 및 통계분석이다. 설문조사와 측정 문항의 신뢰도 분석을 기초로 하여

분산분석을 실시하고 공공시설물 디자인 평가 요소별 각 공공시설물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하고 T검정을 실시한다.

본 연구의 연구 방법 중 공공시설물 디자인 관련 이론 내용은 문헌과 관련 자료를 수집·분류·정리하였으며 정리한 자료는 통계분석을 실시하여 표본의 특성과 역사문화거리 공공시설물 디자인의 기본 현황을 파악하였다. 한국과 중국의 역사문화거리 공공시설물에 대한 만족도 평가 차이를 연구하기 위하여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여 연구 사례로 선정한 한국과 중국의 6개 역사문화거리의 공공시설물 10개 항목에 대한 만족도 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총 5개 장(章)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장은 서론 부분으로, 연구의 배경과 목적, 연구의 범위와 방법을 서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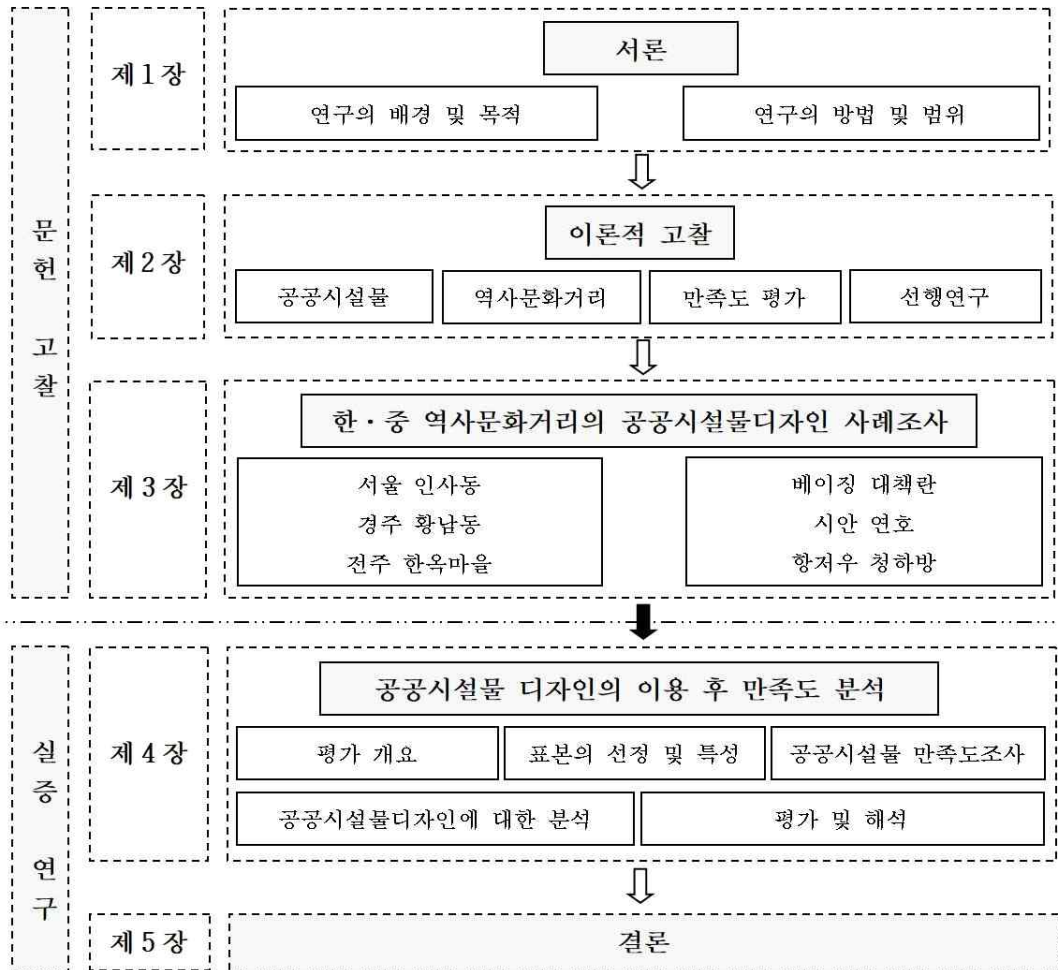
2장은 이론적 고찰로, 문헌을 중심으로 공공시설물의 분류 및 특성을 파악하고 관련 학자 및 평가 기준을 토대로 역사문화거리 공공시설물 평가 요소를 도출한다.

3장은 공공시설물 디자인 사례 분석으로, 한국과 중국의 역사문화거리 디자인 사례를 조사 및 분석하고 설문조사의 구체적인 문항을 설정한다.

4장에서는 역사문화거리 공공시설물 디자인의 각 요소에 대한 이용자의 만족도를 조사하고, 이 만족도 조사를 토대로 한국과 중국의 역사문화거리 공공시설물의 평가 항목별 만족도를 분석한다.

5장은 결론 부분으로 앞에서 다룬 연구 내용을 토대로 역사문화거리 공공시설물 디자인의 개선 방향 및 향후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1.3 연구 흐름도



[그림1-1] 연구흐름도

제2장

이론적 고찰

- 2.1 공공시설물 디자인 고찰
- 2.2 역사문화거리 고찰
- 2.3 만족도 평가요소
- 2.4 선행연구

제2장 이론적 고찰

2.1 공공시설물 디자인 고찰

2.1.1 공공디자인의 이해

1) 공공디자인의 개념

경제가 빠르게 발전하면서 삶의 질, 특히 우리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어있는 공공디자인에 대한 대중의 관심도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이는 도시화 과정에서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공공디자인 운영이 필요함을 의미하며 공공디자인은 단순히 도시를 구성하는 하나의 요소를 넘어 디자인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수요 대상이자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도시공동체를 형성한다.

공공디자인은 그 자체로도 목적 실현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공공디자인에 대한 태도와 입장이다. 즉, 공공디자인을 바라보는 태도와 입장은 마땅히 ‘사회 구성원 전체를 위해 살 만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어야 한다.¹⁾

공공디자인은 공공장소의 각종 시설, 장치 등을 적절하고 합리적으로 배치하는 것으로, 제품이나 산업디자인과 같은 사적 영역이 아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등이 설치하고 관리하는 기반시설, 가로시설물 등 공적 영역의 디자인이다.²⁾ 넓은 의미에서 공공디자인은 공공성을 확보해야 하는 모든 영역의 디자인을 아우른다. 공공디자인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성, 제작, 설치, 운영 또는 관리하는 각종 관련된 디자인을 가리키며 공공장소의 각종 시설물을 더욱 합리적으로 변화시키고 꾸미는 것이다.³⁾

공공디자인의 어원으로부터 그 의미를 살펴보면, ‘공공디자인’은 ‘공공’과 ‘디자인’의 합성어임을 알 수 있다. ‘공공’이라는 개념은 사람들의 관점, 즉 공공성은 공익의 개념을 수반하며 사회 구성원에게 공개되고 평가를 받을 때만이 비로소 공공성이 확보된다.⁴⁾

공공디자인은 디자인의 공공성을 강조한 개념으로 볼 수 있으며, 공공분야를 위해

1) 조정형. 공공디자인의 효율적 적용을 위한 공공시설물 평가 TOOL 개발에 관한 연구. 2010.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p.9.

2) 경희정. 공공디자인의 평가척도어 추출에 관한 연구. 2009. 조선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p.14.

3) 공공디자인법. 문화체육관광부, 2019, p.1.

4) 김형석 외. “서울시 공공디자인 정책분석으로 본 공공디자인연구”. 디자인학 연구, vol.25, no.3, 2012, p.30.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공의 공간, 시설, 정보 등 여러 분야를 포함한다. 공공디자인의 공공성은 비단 디자인의 기능에서뿐만 아니라 문화적 표현을 취지로 하는 전달성으로도 구현되어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이 속한 도시나 지역에 대한 귀속감을 느끼게 한다. 공공디자인의 상업적 가치 추구가 아닌 공공공간에 속한 사람들의 삶의 질 제고와 행복 실현을 목적으로 일반 공중을 위해 설계된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다.

도시 발전 과정에서 공공디자인은 21세기의 다양한 시대 정신을 현대사회문화 속에 체현하고 도시 주민의 다원화된 수요를 충족시키며 복잡한 도시 환경 및 시설을 통합하고 조율하는 기능을 한다.⁵⁾

윤종용(2005)은 공공디자인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이 조성·제작·설치·운영하는 공공 공간, 시설, 용품, 정보 등의 심미적·상징적·기능적 가치와 거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이를 통해 선진화된 문화 창조에 이바지한다고 하였다.

최현정(2007)은 관련 연구에서 공공도시와 공공공간에 대한 디자인은 도시 고유의 이미지를 창조하고 도시 경관의 심미화를 실현한다고 하였다.

송진희(2007)에 따르면, 공공디자인은 도시이미지 형성의 전제조건이 된다. 간단히 말해, 공공디자인이란 공공장소의 각종 시설과 장비를 더 합리적으로 꾸미는 것을 말한다. 과거 원시공동체사회에서는 단순히 자연에 순응하여 생활습관이 형성되고 그에 따라 생활하기만 하면 일상에 큰 변화나 영향이 없었지만, 오늘날에는 문명과 도시의 발전, 사회의 발전이 개인의 삶의 질 제고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공공장소의 각종 시설 및 장치에 대한 보다 합리적인 설계 및 운영이 필요해졌으며 이에 따라 공공디자인의 개념의 등장하게 되었다.

권영걸(2011)에 따르면, 공공디자인이 추구하는 가치는 경제적 이익이 아닌 국민들의 안녕과 행복 등 사회문화적 가치이며 특정 개인이 아닌 사회 전체의 입장에서 모든 구성원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공공디자인에서 이러한 조율 기능이 중요한 이유는 사회가 각기 다른 수요를 지닌 개인에 의해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공공 영역의 문화적 가치와 공공성 회복은 문화를 주축으로 하는 디자인의 가능성을 탐색하는 것이며 개인의 가치와 사회의 가치 등 다양한 가치의 조화를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한다.⁶⁾ 단순한 기능적 편리함을 넘어 문화와 환경 및 인류의 삶에 초점을 둔 공공디자인은 도시를 보다 더 살고 싶은 공간으로 만들 것이다.⁷⁾

5) 신흥경. Story of Design City. 광문각, 2008, p.23.

6) 권영걸 외.공공디자인 행정론. 도서출판 날마다, 2011, p.92.

7) 박완수. 공공디자인기능의 제도화 방안에 대한 연구:대전광역시 도시디자인 정책을 중심으로. 2013.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pp.8-13.

독일의 보익커(Beucker, N)는 공공디자인을 도시의 품격을 높이기 위한 수단 중 하나로 보았으며 도시 전체의 통합성이 그 핵심이라고 하였다.⁸⁾

공공디자인의 정의는 학자,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마다 각기 다르지만, 큰 틀에서 봤을 때 공공디자인은 하나의 입장이자 사회 구성원 전체가 공유할 수 있는 공간 환경 조성을 위한 일종의 노력으로 볼 수 있다. 공공디자인은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 사회문화적 가치와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으로, 사회의 각 구성원의 행복한 삶을 위해 존재한다. 따라서, 공공디자인은 개인의 가치와 사회의 가치가 적절히 조화된 디자인이자 지역의 이미지와 가치를 전파하는 매개체라고도 할 수 있으며 사람들의 생활 공간을 변화시키고 공중의 사회문화의식을 제고하는 기능을 한다.

디자인산업이 발달한 국가의 경우, 현재 공공디자인과 관련된 국가 정책 및 조례 등 법규를 강화하고 있으며 가로시설물에 대한 수요가 나날이 증가함에 따라 디자인 및 그 운영에 관한 연구도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관련 심층연구가 증가함과 동시에 공공디자인 관련 제도 수립도 가속화되고 있다. 한국은 이미 「경관법」을 제정 및 실시하고 있으며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약칭 '공공디자인법')을 통해 역사문화거리 경관을 관리 및 조성하고 공공디자인 발전을 촉진하고 있다(국토교통부, 2019; 문화체육관광부, 2019). 중국은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국가로서 마찬가지로 「중화인민공화국 도시농촌계획법」, 「도시계획관리방법」 등 공공디자인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하여 국가 전체적으로 도시 건설을 위한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주택도시농촌건설부, 2019; 전국인민대표대회상임위원회, 2019).

2) 공공디자인의 분류

오늘날 세계화의 영향으로 각국 도시 간 차이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각 도시는 세계화와 지방화를 결합하여 도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공공디자인은 특정 도시 또는 지역의 매력을 나타내는 기능을 하며 지역 또는 도시의 이미지와 품격을 높임으로써 단순한 환경적 가치가 아닌 경제적 가치로서도 중요한 요소가 된다(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8). 공공디자인은 사회의 다양한 가치와 수요를 조율하고 사회문화적 공공가치를 증대시키기 때문에 문화적 의미와 가치를 내포하는 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매우 중요하다.

8) Beucker,N,Public Design-dieSprache des ;ffentlichen Raunmes, IDE.www.uni-essen.de/ide.

우리는 도시 속 삶을 통해 도시가 발전하는 모습을 직접 보고 경험한다. 도시는 정치, 경제, 문화가 한데 합쳐진 일종의 종합체로, 도시의 발전과 변천 과정에서 공공디자인의 문화적 가치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바뀌기보다 지속적으로 발전한다고 말할 수 있다. 프랑스 파리의 개선문, 미국 뉴욕의 자유의 여신상 등 대표적인 랜드마크뿐만 아니라 평범한 도로 위 표지판이나 가로등 역시 도시의 환경과 어우러져 한 도시, 나아가 한 국가의 이미지를 반영하고 있다. 공공디자인의 의미와 목적은 바로 이렇듯 도시의 품격과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 즉 문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라고 할 수 있다.

위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공공디자인은 한 도시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의 이미지를 결정하는 데에도 상당히 큰 역할을 하는 요소로서, 한 국가의 선진화 수준을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기도 하다(안진근, 2010; 안전행정부, 2007). 공공디자인 영역의 주체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로, 공공디자인은 한 국가의 문화 및 디자인의 정체성을 상징적으로 드러내기 때문에 일종의 문화적 인프라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공공디자인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공공디자인의 공공성이 더욱 중시되고 있다. 따라서, 공공디자인은 공공의 수요에 부합해야 하며 이를 통해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디자인이어야 한다. 즉, 공공디자인을 통해 쾌적한 도시 이미지를 수립하고 문화적 가치 창조 및 도시경쟁력 제고를 실현함으로써 경제 발전을 촉진함과 동시에 도시를 활성화하고 나아가 삶의 가치를 창조하는 문화도시를 만들어야 한다.

공공디자인은 한 사회의 문화인프라로, 도시 환경 및 공공정보체계 등 공동생활 영역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공중생활과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기능을 한다. 이러한 공공디자인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중요성이 점점 더 부각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공공디자인의 적용 대상 역시 아래 [표2-1]와 같이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표2-1] 공공디자인의 범위 및 분류(재정리) 9)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부내용
공공디자인	도시환경	야외 공공공간계	공원, 운동장, 묘지, 공공기관 부속용지, 광장놀이터, 집회시설, 보도, 쌈지공원(pocketpark) 혹은 기타 유사기능의 공간 디자인
		기반 시설공간계	도로, 주차장 터널, 철로 고가도로, 교량, 관개/ 배수시설, 상하수도 시설, 하수처리장, 발전소 혹은 기타 유사기능의 공간 디자인

(계속)

9) 권영걸. 권영걸 교수의 공공디자인 산책. 가인, 2008, p.56.

[표2-1] (계속)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부내용
공공디자인	공공건축 및 실내환경	행정 공간계	공공안내소, 마을회관, 파출소 소방서, 우체국, 전화국, 동사무소, 군사공간, 교도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청사, 정부 행정부처 건물, 외국공간 건축물 혹은 기타 유사기능의 공간 디자인
		문화복지 공간계	시민회관, 문화재, 체육관, 경기장, 공연장, 국공립 복지시설, 국공립 의료시설, 보육원, 기념관, 박물관, 휴게소 혹은 기타 유사기능의 공간 디자인
		역사 시설공간계	여객 자동차터미널, 화물터미널, 철도역사, 지하철역, 공항, 항만, 고속도로 휴게실 혹은 기타 유사기능의 공간 디자인
		교육·연구공간계	국공립 초, 중, 고등학교, 대학교, 유아원, 교육원, 훈련원, 연구소, 도서관, 연수원 혹은 기타 유사기능의 공간 디자인
공공매체디자인	정보매체	지시·유도 기능매체계	이정표, 교통표지판, 지역/관광 안내도, 버스노선도, 지하철 노선도, 방향유도사인, 규제사인, 자동차 번호판, 각종 픽토그램 등과 같은 시각매체의 디자인
		광고기능매체계	광고판, 현수막, 포스터, 게시판, 간판, 배너, 기(flag), 홍보영상 등과 같은 시각매체의 디자인
	상징매체	행정기능매체계	국가상징 사인, 행정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상징 사인, 국가기관 상징 사인, 각종 증명서, 공문서 서식, 각종 출판물 표지, 각 기관 웹페이지 등과 같은 시각매체의 디자인
		유통기능매체계	화폐, 여권, 교통카드, 채권, 기념주화, 우표 등과 같은 시각 매체의 디자인
		환경연출매체계	백화, 슈퍼그래픽, 미디어아트, 오감연출매체등과 같은 시각 매체의 디자인
	공공시설물디자인	교통시설	보행 시설물계
운송 시설물계			신호등, 교통차단물, 속도 억제물, 주차시설, 주차요금 징수기, 공공기관 소유 차량 등과 같은 시설물의 디자인

(계속)

[표2-1] (계속)

공공시설물디자인	공급시설	휴게 시설물계	벤치, 의자, 쉼터, 옥외용 테이블 등과 같은 시설물의 디자인
		위생 시설물계	휴지통, 음수대, 재떨이, 화장실, 세면장 등과 같은 시설물의 디자인
		판매 시설물계	매점, 무인 키오스크, 자동판매기, 신문가판대와 같은 시설물의 디자인
	행정 및 정칙계	관리 시설물계	맨홀, 전신주, 보행등, 신호개폐기, 전력구, 분전반, 환기구, 우체통, 소화전, 방재시설, 범죄예방장치, 신원확인장치 등과 같은 시설물의 디자인
		정보 시설물계	공중전화, 풍향계, 시계, 온습도계, 인포부스 (infobooth), 관광안내시설, 지역안내 도, 교통정보판 등과 같은 시설물의 디자인
		행정 시설물계	각종 집기와 도구, 제복, 가구, 문구, 표찰, 무인민원처리기 등과 같은 시설물의 디자인
공공디자인정책	관련 법규계	행정 및 정책계	문화진흥정책, 산업정책, 보건복지정책, 환경/자원정책, 기술정책, 문화행정, 지역 개발, 관광자원개발, 이벤트 산업, 국민건강진흥, 스포츠복지, 예술정책 등 공공 디자인을 진흥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
		관련 법규계	공공디자인법, 경관법, 도로교통법, 건축법, 의장법, 산업디자인관련법, 산업재산권법, 보건복지법, 문화재보호법, 교통안전법, 행정법 등과 같은 공공디자인을 진흥할 수 있는 법의 연구

하기[표2-2]로 알 수 있듯이, 공공디자인 영역은 매우 광범위하며 크게 공공공간 디자인, 공공매체 디자인, 공공시설물 디자인, 공공디자인 정책 4가지 분야로 나눌 수 있다.

[표2-2] 공공디자인의 범위 및 분류¹⁰⁾

연구자	분류
문화관광부(2005)	공공공간, 공공시설물, 공공정보·사인, 공공용품
서울시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2008)	공공공간, 공공건축물, 공공시각매체, 공공시설물, 공공옥외광고물
조정형(2010)	공공공간, 공공시설물, 공공매체
공공디자인학회(2010)	공공공간, 공공시설물, 공공매체, 공공디자인 정책
권영결(2008)	공공공간, 공공매체, 공공시설물, 공공디자인 정책

10) 정예빈. 대전시 가로시설물 이미지 특성분석에 관한 연구. 2020.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p.20.

공공공간 디자인: 도시를 구성하는 가장 근본적인 영역 공간으로, 도시 환경, 공공 건축, 실내 환경 등을 포함한다. 개방 공간, 인프라시설 공간, 문화복지 공간, 역사문화시설 공간, 교육연구 공간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역사문화거리, 운동장, 시민회관, 공연장, 박물관 등이 그 예다.

공공매체 디자인: 공공의 소통을 목적으로 정보를 홍보하는 것으로, 정보 매체, 상징 매체를 포함하며 지시·유도 매체, 광고 기능 매체, 행정 기능 매체, 유통 기능 매체, 환경 퍼포먼스 매체 등으로 나뉘며 대표적인 예로는 교통표지판, 지하철노선도, 광고판 등이 있다.

공공시설물 디자인: 공공의 편의 또는 복지를 위해 만들어진 시설로, 교통시설, 편의 시설, 공급시설을 포함한다. 보행시설물, 운송시설물, 휴게시설물, 위생시설물, 판매시설물, 관리시설물, 정보시설물, 행정시설물 등이 있으며 벤치, 휴지통, 난간, 버스정류장 등이 그 예다.

공공디자인 정책: 공공디자인 활성화를 위한 각종 정책 방안 및 법률을 말하며 행정 정책 및 관련 법규를 포함한다. 예를 들어, 문화진흥정책, 산업정책, 「경관법」, 「도로교통법」 등이 있다.

2.1.2 공공시설물의 이해

1) 공공시설물의 개념

사회가 발전하면서 도시가 발달하고, 그에 따라 공공시설물도 발전 기회를 맞이하게 되었으며 공공시설물의 종류도 더 풍부해지고 사용 범위도 점점 더 확대되고 있다.

공공시설물이 최초로 등장한 것은 고대 로마 폼페이 유적에서 발견된 폼페이 유적 내 방어시설인 벽, 휴게시설인 정자 및 벤치, 경관 조형물 및 화단 등이다. 이 외에도, 고대 로마 도시의 배수시설, 고대 올림픽경기장, 고대 극장 등이 모두 당시의 공공시설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이후 17세기 프랑스 미라보 거리(Le cours Mirabeau)의 경관 조경에서 공공시설물의 형태를 중시한 디자인이 등장하기 시작했으며 18세기부터는 세계 각국의 공공시설물이 점차 체계화되었는데, 특히 외관상 아름다움과 표준화 방식을 강조한 도로시설이 사용되기 시작했다. 특히 1853년 파리 개조 사업은 현대화된 도시 공공시설물에 대한 최초의 체계화 사업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일본은 에도 시

기에 처음으로 정보를 표시하는 ‘도로 표시판’이 등장했으며 이 도표 표시판은 주로 도로의 명칭을 표기하였다. 이후 공공시설물 구성에 있어 실제 사람의 신체 크기와 약자에 대한 배려, 사람의 심리 및 행위 수요를 고려하고 지역의 문화적 특색 반영 등 다양한 수요가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이와 관련 영국은 세계에서 가장 먼저 선진화 및 체계화된 공공시설물 디자인을 실천하였으며 심플하고 세련된 디자인을 추구함과 동시에 공공시설물의 지역성을 강조하였다.

‘공공시설물’이라는 말은 영국에서 시작되었으며 영어의 ‘street furniture’이 그 어원이다. ‘street furniture’를 직역하면 ‘가로 장비’, ‘환경 시설’ 등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사회, 역사, 문화적 배경 차이로 인해 ‘공공시설물’이란 말에 대한 정의는 지역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다.¹¹⁾ 비슷한 개념으로는 유럽의 ‘도시 요소’, 일본의 ‘가로 장비’, 중국의 ‘공공환경 시설’ 또는 ‘공공시설물’ 등이 있다.

‘공공(public)’이란 지역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방문 또는 참여할 수 있는 공유 상태를 말하며 개방되고 모두가 다 알고 있는 대상을 뜻하기도 한다. 이와 동시에, 개인, 단체 또는 지역사회의 이익에 상응하여 국가의 복지와 지역사회 공동체를 위해 서비스하는 것을 의미한다.¹²⁾

공공시설물의 ‘공공’이란 말은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국민, 대중에서부터 정부, 국가, 국가가 국민을 위해 만든 시설 등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며 ‘공공성’이란 개인 또는 특정 단체가 아닌 공공영역 전체를 아우르는 성질을 일컫는다.¹³⁾

한편, 한국의 「지방자치법」에서 말하는 공공시설물의 개념은 주민의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주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시설을 가리키며, 공공시설물 디자인이란 ‘공공시설물’과 ‘디자인’의 합성어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생활 복지를 위해 설치한 공공시설물의 디자인, 편의와 복지를 위한 설치한 구조물의 디자인을 뜻한다.¹⁴⁾

또한, 도심지 공간 속 사람들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설치되거나 정보를 전달하고 행위를 유도하기 위해 설치된 시설을 공공시설물이라고 한다.¹⁵⁾

공공시설물은 도시 환경을 구성하는 요소로, 사람들의 생활 수요를 충족시키고 도시 환경을 미화함과 동시에 각기 다른 시기의 사회적, 문화적 가치를 상징하고 한 도시의

11) 张凌浩, 陈旻瑾. 环境中的设施设计. 中国建筑工业出版社, 2011, pp.3-25.

12) 윤종영, 안혜신. 공공디자인 행정론, 2009, p.9.

13) 박지현. 도심지 통합 지주형 가로시설물 디자인 연구. 2008.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p.6.

14) 이양병, 공공시설물디자인 평가 방법론에 관한 연구. 2011. 조선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p.21.

15) 김근아. 도시 환경의 퍼블릭 인터미시를 위한 공공시설물 연구:한강 여의도 시민공원을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p17.

물질 및 정신적 문화 특징을 반영한다. 공공시설물 디자인은 바로 이러한 지역 정체성이 구현되는 매개체이며 도시의 차별화를 실현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공공시설물은 도심 거리 어디에서나 볼 수 있고 자주 사용되는 시설물로, 매우 다양한 기능과 용도를 지니고 있으며 그 목적은 시민들에게 정보제공, 휴식 등 각종 기능과 사용성을 제공하는 것이다.¹⁶⁾ 도심 내 가로공간에 설치되는 공공시설물은 사용자 중심의 일관되고 통합적인 디자인을 구현해야 하며, 계획 및 설치된 공간에 활력과 편안함을 부여함으로써 도시 생활을 더욱 풍요롭게 한다.¹⁷⁾

유명 도시설계자인 글레어 쿠퍼 마커스(Glare Cooper Marcus)는 도시 공공시설물 ‘야외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개방된, 사람들이 인지할 수 있는 공간으로, 기하학적 특징과 미학적 품격이 있는 공공의, 또는 반(半) 공공의, 또는 내부용 시설’이라고 하였다.¹⁸⁾

도널드 애플야드(Donald Appleyard)와 로렌스 할프린(Lawrence Halpin)에 따르면, 공간 자체는 단지 어떠한 사건이 발생하는 표면적인 것에 불과하지만, 공공시설물을 마치 하나의 무대 공간과 같아서 도시라는 무대 위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을 위해 존재하며 모두가 공동으로 사용하고 쾌적함과 효용을 느끼며 예술적인 느낌을 주고 어떠한 활동을 유도하는 부대시설이다.¹⁹⁾

간단히 말해, 도시 공공공간 내 공중을 위해 만들어진 시설인 공공시설물은 역사문화거리, 광장 등을 비롯한 거리에 설치되어 사람들에게 편의와 안전을 제공하고 정보를 전달하며 사람들의 행위를 유도한다. 다시 말하면, 공공시설물은 사람과, 사회, 환경과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환경과의 조화라는 관점에서 공공시설물이 환경에 작용하는 기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²⁰⁾

사람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공공시설물을 이용하고, 이 과정에서 공공시설물은 도시 공간에서 사람들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킨다. 따라서, 공공시설물은 도시 전체의 이미지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한 도시의 정신적 가치와 의미를 내포하고 사람들에게 미적 경험을 체험하게 한다. 따라서, 공공시설물의 시각적 편안함과 아름다움은 도시의 이미지를 구축하고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

16) 정예빈. op.cit., p.20.

17) 한은희. 국내 공공시설물 소재 및 색체에 관한 연구: 국내 주요도시 편의시설물을 중심으로. 2015.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p.11.

18) 郑艳, 岑沫石. “地域文化在地铁公共设施设计中的应用研究”. 西部皮革, vol.42, no.22, 2020, p.139.

19) 윤승로. 도시환경색채분석을 이용한 가로시설물 색채배색에 관한 연구:서울시 강남구를 중심으로. 2003.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p.18.

20) 이상락. 공공시설물 설계를 위한 지역정체성 인자에 관한 연구. 2010. 전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pp.8-9.

2) 공공시설물의 유형 및 기능

공공시설물은 설치 장소, 사용 대상, 관리 방법, 목적, 기능 등에 따라 각기 다른 특성을 지니며 목적과 용도에 맞게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되어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토대로 공공시설물의 유형을 살펴보았으며, 연구자에 따라 유형 분류가 각기 다름을 알 수 있었다. 선행연구를 토대로 정리한 공공시설물 각 연구의 유형 분류는 아래 [표2-3]과 같다.

[표2-3] 공공시설물 유형 분류 연구 경향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문화체육관광부		●	●	●	●		●	●								●					
서울특별시				●	●	●	●			●	●					●		●	●		●
한국공공디자인학회	●	●	●	●	●	●	●	●	●												
권영걸 (2008)		●	●	●	●		●	●	●							●					
정예빈 (2020)				●	●		●	●				●	●	●	●	●	●	●	●	●	●
채다은 (2015)		●		●	●		●	●			●					●		●	●		
장갑록 (2015)				●	●		●	●						●		●	●		●		
윤종영,안혜신 (2009)		●	●	●	●		●	●	●							●					
박재호,이용신 (2011)		●	●	●	●		●	●	●							●					
노지현 (2012)				●	●	●	●			●	●					●		●	●		●

A.공공시설물, B.보행시설물, C.운송시설물, D.휴게시설물, E.위생시설물, F.서비스시설물, G.판매시설물, H.정보시설물, I.행정시설물, J.통행시설물, K.녹지시설물, L.경관시설물, M.장애인시설물, N.교통시설물, O.안내사인시설, P.관리시설물, Q.놀이시설물, R.보호시설물, S.조명시설물, T.조경시설물, U.기타시설물

상기 분석을 통해, 공공시설물 유형 분류 연구는 주로 휴게시설물, 위생시설물 판매시설물, 관리시설물, 정보시설물, 보행시설물, 운송시설물, 조명시설물이 주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공공시설물의 기능 측면에 있어서는 주로 다음과 같은 관점이 있다.

이나영(2002)은 공공시설물의 기능을 전달성, 안전성, 편의성, 쾌적성과 같이 4가지로 분류하였다.

이양병(2011), 김용성(2014), 장갑록(2015)은 공공시설물에 관리성, 전달성, 안전성, 편의성, 놀이성, 쾌적성 6가지 기능이 있다고 보았다.

채다은(2015)은 공공시설물의 기능으로 관리성, 전달성, 안전성, 편의성, 쾌적성, 기

능성, 경제성 7가지를 제시하였다.

선행연구를 토대로 [표2-1]의 권영걸 교수의 공공디자인 범위 및 분류, [표2-3]의 공공시설물 유형 분류 연구 경향을 종합하여 공공시설물의 체계 및 유형 분류 내용을 정리한 결과, 휴게시설물, 위생시설물, 판매시설물, 관리시설물, 정보시설물, 보행시설물, 운송시설물, 조명시설물, 행정시설물, 녹지시설물 총 10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2-4]와 같다.

[표2-4] 공공시설물 유형 분류

대분류	소분류	기능
휴게 시설물	벤치, 쉼터, 파고라	쾌적성 측면에서, 휴식, 놀이, 대화 등을 통해 이용자의 교류와 소통을 증진시킨다.
위생 시설물	휴지통, 화장실, 음수대	편의성 측면에서, 이용자의 사용을 편리하게 하고 건강을 증진시킨다.
판매 시설물	자동판매기, 매점, 키오스크	편의성 측면에서, 이용자에게 구매 및 편의성을 제공한다.
관리 시설물	맨홀, 교통신호 제어기, 소화전, 지상기기, 지하철 환기구	관리성 측면에서, 관리를 통해 각종 기능을 유지 및 개선한다.
정보 시설물	관광안내소, 안내사인, 안내표지, 공중전화부스, 우체통	전달성 측면에서, 기능과 목적에 따라 이용자에게 정보를 전달한다.
보행 시설물	펜스, 블라드, 가드레일, 경류장, 자전거보관대	안전성 측면에서, 이용자를 위험으로부터 보호한다.
운송 시설물	신호등, 교통차단물, 주차시설, 주차요금 징수기, 공공기관 소유 차량	안전성 측면에서, 보행자 및 운전자를 위험으로부터 보호한다.
조명 시설물	가로등	기능성 측면에서, 이용자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야간에 시야를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다.

3) 공공시설물디자인의 구성요소

(1) 물리적 요소

사회 발전이 가속화되고 사람들의 삶의 질과 정신적 측면의 수요가 계속 높아짐에 따라 역사문화경관지역의 공공시설물 기능에 대한 요구 조건(문화적 공감, 지역정체성 등)도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역사문화거리 공공시설물 디자인의 가장 기본이 되는 물리적 특성 요소는 여전히 형태, 색채, 재질 등으로 변함이 없다.

이양병(2011)은 공공시설물의 형태, 색채, 재질을 공공시설물의 물리적 특성으로 제시

하였으며 서울시디자인총괄본부(2008)의 『디자인서울 공공시설물 가이드라인』에서 색채, 형태, 설치, 조화 4가지 측면에서 공공시설물 디자인의 개선사항을 제안하였다. 이재우(2012)는 전라남도의 가로시설물 심의 기준으로 형태, 재료, 색채, 규격, 기능, 설치 5가지 측면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형태, 재질, 색채는 공공시설물의 물질적 매개체로서 공공시설물의 특성을 구현한다.

역사문화거리의 공공시설물 디자인은 사회적 수요, 공공의 수요에 부합하며 공공시설물의 기능, 수량, 접근성, 내구성, 쾌적성을 토대로 역사문화거리의 지역적 특색을 추구하는 공공시설물이다. 각 도시 및 지역의 역사문화거리의 특징이 서로 다른 만큼, 공공시설물의 특색을 살린 디자인에 대한 요구도 각기 상이하며 이는 주로 공공시설물의 형태, 색채, 재료를 통해 구현된다.

형태: 형태는 각종 조형 요소의 표현으로, 시각을 통해 사람에게 심리적 연상작용을 일으킴으로써 대상의 의미와 정보를 전달한다. 예를 들어, 버스정류장의 디자인은 안전함, 튼튼함, 편리함 등의 정보를 전달하고자 하는 디자이너의 의도가 담겨 있다. 형태는 크기, 모양, 비율, 이러한 요소 간의 관계 등을 통해 특정 분위기를 형성한다. 다시 말해, 물체에 어떠한 형태를 부여함으로써 그 기능, 가치, 의미 등을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다. 또한, 서로 다른 형태는 즐거움, 편안함, 신비로움, 과장 등 각기 다른 심리 및 정서 변화를 일으킨다. 예를 들어, 원형은 원만함과 포용, 대칭적인 도형은 엄숙함과 경건함, 직사각형은 반듯함과 질서정연함, 곡선은 부드러움과 단아함, 편안함 등의 느낌을 준다.

역사문화거리의 공공시설물은 대표성과 상징성을 지닌 일종의 기호 요소로서 거리 공간에 존재하며 풍부한 문화적 의미와 가치를 담고 있다. 공공시설물은 역사문화거리 환경 속 사람들이 인지하고 느낄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체로서, 역사문화거리 공공시설물의 조형은 역사문화거리의 개성과 차별성, 품격이 실현되는 매개체다.

색채: 색채는 사람이 물체를 식별하고 판별하는 과정에서 일종의 기억을 형성하게 하고, 이미 적응하거나 경험한 것을 떠올리게 한다. 색채에 의한 연상작용은 보통 잠재의식을 통해 색채와 기존 경험을 서로 결합함으로써 색채가 주는 자극을 토대로 관련된 사물을 떠올리는 것으로, 경험, 기억, 지식 등은 이러한 연상작용에 영향을 준다. 한편, 색에 담긴 의미 또는 상징성은 각 문화에 따라 다른데, 예를 들어 동양문화에서는 빨간색이 경사(慶事)나 고귀함을 상징하고, 서양문화에서는 하얀색이 고귀함과 순결함을 나타낸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에서 우리는 색을 통해 표현되는 다양한 정보에 노출되어 있으며 이렇듯 색은 거의 모든 곳에서 매 순간 사람들의 감정과 정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도심 속 가로시설물에 쓰인 색채 역시 마찬가지로 사람들의 감성과 정서에 영향을

준다. 색채의 기능은 객관성을 지니고 있으며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작용하고, 그에 따른 인간의 심리적 반응은 본능적인 것이다.

역사문화거리 공공시설물의 색채는 사람의 감각기관이 정보를 받아들이는 경로 중 환경의 속성을 가장 잘 반영하며 사람의 감정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소로, 가장 강력한 디자인 언어라고 할 수 있다. 색채는 조형의 개성을 뚜렷하게 표현함으로써 활력과 즐거움, 조용함과 휴식, 평온함과 안녕 등 그 조형이 속하는 공간 환경에 대한 객관적 수요를 해석하는 근거가 된다.

재료: 재료의 감각적 특성은 일종의 심리적 느낌으로, 사람의 감각기관이 재료에 대해 느끼는 전반적이고 종합적인 인상이다. 재료의 질감에 대한 인식은 물리적 속성 외에도 심리적으로 느끼는 따뜻함, 차가움, 부드러움 등의 지각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 나무, 섬유, 대리석 등은 각 재료의 특성을 토대로 보는 이에게 소박함, 부드러움, 무거움 등의 다양한 느낌을 줄 수 있다.

한편, 동일한 재료라도 쓰임과 텍스처의 차이에 따라 시각적으로 각기 다양한 질감을 지닐 수 있는데, 거침과 매끄러움, 무늬의 유무 등은 보는 이의 심리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이 된다. 재료의 표면이 거칠고 반사광이 약하면 시각적으로 부드러운 느낌을 주는 반면, 재료의 표면이 매끄럽고 빛이 많이 나면 시각적으로 눈부신 느낌을 준다. 또한, 무늬가 뚜렷한 재료는 종종 풍부한 시각적 효과를 주며 보는 이의 시선을 사로잡고 흥미를 유발한다. 이러한 재료의 종류는 무궁무진하며 공공시설물에 주로 쓰이는 재료로는 목재, 석재, 금속, 유리, 각종 복합재 등이 있다.

역사문화거리 공공시설물에 쓰이는 재료 역시 그 질감이 점점 더 중시되고 있으며 그 기능의 단순함과 복잡함에 관계없이 모두 외관 조형을 통해 구현된다. 재료의 선정은 시각 및 촉각의 질감을 결정하고, 보는 이에게 그를 토대로 한 시각적 및 촉각적 느낌과 체험을 제공하기 때문에 재료는 공공시설물이 하나의 물리적 실체로서 존재하는 중요한 경로가 된다.

(2) 구성특성

공공시설물은 사람, 사회, 환경 간 중요한 매개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공공시설물의 구성요소는 매우 중요하다. 만약 공공시설물이 본래의 기능을 하지 못한다면, 사람과 공간 간 간극이 발생하고 도시는 본래의 역할을 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공공시설물은 필요한 요소를 반드시 갖추고 있어야 한다. 공공시설물을 이용하는 주체는 불특정 다

수이기 때문에 모든 이용자의 수요를 동시에 만족시키기는 어렵다. 그러나 안전, 미관, 편의 등에 대한 사람의 기본적인 수요는 크게 다르지 않다.²¹⁾

공공가로시설물은 도심 속 공공공간에 설치되어 공공의 편의와 복지, 안전, 정보 전달, 행위 유도 등의 목적을 달성한다. 즉, 다수가 공유하고 사용하는 시설로, 이러한 공공가로 시설물은 공간에 생명력을 불어넣고 도심 속 삶을 풍부하게 함으로써 사람과 사람, 사람과 공간 사이에서 소통을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²²⁾

공공가로시설물에 대한 요구 조건은 도시의 이미지에 따라 다르며 가로시설물은 획일적이고 단조로운 디자인이 아닌 각종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형식으로 설계되어 가로시설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사용상의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설치 이후의 관리도 매우 중요하다. 주민들이 참여와 이용은 좋은 가로시설물을 전제조건이며 주민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시설물의 유지와 관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 비로소 가로시설물은 진정한 가치와 효용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²³⁾

역사문화거리 공공시설물은 정보 전달 기능, 안전 보호 기능 등 이용자에게 각종 기능을 제공한다. 역사문화거리는 사람과 공간, 도시 환경 간 중요한 매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해당 기능에 상응하는 구성요소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공공시설물의 사용 주체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으로, 안전, 미관, 편의 등 기본적인 수요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볼 수 있다.

공공시설물은 도시재생 및 가로환경의 전체적인 이미지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역사문화거리는 곳곳에서 가로등, 벤치, 공중전화부스, 휴지통 등 각종 공공시설물을 접할 수 있으며 주민과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사람들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현재 대부분의 공공시설물은 쾌적하고 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고 있으며 환경의 전체적인 미관은 상대적으로 간과되고 있다. 역사문화거리의 이미지는 그 영향력이 비교적 크기 때문에 역사문화거리에 적합한 공공시설물 디자인 구성요소의 중요성도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공공시설물 디자인 특성 평가에 관한 연구를 토대로, 공공시설물 디자인을 중심으로 역사문화거리 공공시설물의 디자인 특성 요소를 다음 [표2-5]와 같이 정리하였다.

21) 김근아. op.cit., pp.42-45.

22) 윤종영, 안혜신. op.cit., p.81.

23) 한무엘. 지역문화의 고유성 창출을 위한 가로경관에 관한 연구:서울 복촌 가회동을 중심으로.2009.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p.14.

[표2-5] 공공시설물 디자인 구성 특성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김영남 (2011)					●	●								●														●
김용성 (2014)		●	●				●			●						●	●	●	●	●								
이나영 (2002)	●	●									●	●	●															
정희정 (2009)							●							●	●	●					●							
조철희 (2009)	●	●	●						●	●						●		●					●	●	●			
홍상희 (2006)			●							●			●			●		●			●					●		
후카이 (胡凱) (2009)									●												●		●					
천신 (陳欣) (2015)	●		●			●			●												●		●					
등경 (董菁) (2017)	●		●	●		●	●	●	●																			
왕리밍 (王黎明) (2017)	●		●	●		●			●												●							
빈도수	5	3	6	2	1	4	3	1	5	3	1	1	2	2	1	4	1	3	1	4	2	2	1	1	1	1	1	1

A.가능성, B.조형성, C.안전성, D.보편성, E.매체성, F.통합성, G.친환경성, H.심미성, I.정체성, J.쾌적성, K.실용성, L.심리성, M.경제성, N.장소성, O.소통성, P.조화성, Q.색채성, R.사용성, S.인지성, T.지속가능성, U.관리성, V.문화성, W.접근성, X.인간공학성, Y.가독성, Z.내구성, AA.재생성

상기 연구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빈도수가 4회 이상인 특성 요소를 본 연구의 역사문화거리 공공시설물 디자인 구성 특성 요소로 선정하였다. 구체적으로 보면, 빈도수가 높은 순서대로 안전성, 기능성, 정체성, 통합성, 조화성, 지속가능성 6가지 특성 요소를 본 연구의 기초로 삼았으며 그 개념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다.

가. 안전성

안전성은 위험 또는 무의식적 행위의 결과가 초래하는 위험을 최소화하는 원칙으로, 위험이나 오류를 최대한 줄이고 주의가 필요한 행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을 경고 또는 예방하는 것이다. 공공시설물의 구조는 안전성 외에도 이동 동선, 시설물이 설

치되는 위치의 안전성, 사용 및 조작상의 안전성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대부분의 시설물은 외부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적 요인에 의한 부식, 침범, 고장, 훼손 등을 예방할 수 있어야 한다.²⁴⁾

공공시설물은 공공성을 지닌 시설물로, 매일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대상이다. 안전성은 이용자에게 위험이 되는 요소의 유무, 공공시설물 사용 시 위험 또는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한 구조 또는 재료 사용 여부, 물리적 및 심리적 안정성 유무를 토대로 평가한다. 공공시설물의 특성과 사람의 행위는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사람, 즉 이용자의 안전은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요인이다. 특히, 형태상의 안전성뿐만 아니라 구조, 사용 시 안전성 등 다양한 측면의 안전성을 고려해야 한다. 이 외에도, 공공시설물 대부분은 역사문화거리라는 물리적 외부 환경에 놓여 있기 때문에 자연적 요인에 의해 초래될 수 있는 각종 불리한 상황을 고려하여 디자인해야 한다.

나. 기능성

공공시설물은 공공공간 내 위치하여 공중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그 목적은 공중의 각종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있다. 오늘날의 공공시설물은 단순히 하나의 실용적 기능만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공간 내 사람들의 행위 및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는 기능을 한다.²⁵⁾

기능적 측면에서 있어 공공시설물은 인간공학적 디자인을 통해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안전성 및 범죄 예방이 고려되어야 한다.²⁶⁾

공공시설물 디자인은 이용자의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어야 하며 시설물 자체의 특성 외에도 공공적 기능을 갖추고 사용 및 관리가 용이해야 한다. 역사문화거리의 공공시설물은 모두가 사용하는 시설로, 거리 내 사람들의 활동 수요를 충족시키고 장애인, 노인, 아동 등 모든 사람에게 불편함이 없어야 한다. 공공시설물의 사용성을 고려할 때는 불필요한 장식보다는 본래 기능을 중시하여 공공시설물 이용을 최적화와 효율을 최대화해야 한다.

24) 김용성. 고도 도시의 공공가로시설물 디자인 연구:고도 백제 수도 '부여'를 중심으로. 2014.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p.36.

25) 董菁. 基于地域文化认同上海历史文化街区的公共设施物设计研究. 2017. 东华大学研究生院, 硕士学位, p.46.

26) 이나영. 도심지 가로환경시설물 디자인의 개선방향 연구:국내-외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2002.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p.26.

다. 정체성

역사문화거리는 지역 문화와 전통 역사를 특정하고 부각시킨다. 공공시설물은 문화를 전파하는 하나의 담지체로, 그 형식, 색채, 재료, 공예 등 측면을 통해 문화성과 지역성을 구현한다. 또한, 공공시설물의 특정 요소 간 조합 또는 요소 자체로 그에 상응하는 문화를 대표하는 상징적 특징이 될 수도 있다.²⁷⁾

정체성은 역사문화거리의 공공시설물 디자인이 전달하는 지역성에 대한 연역적 도출이며 문화정체성과 자긍심을 형성함으로써 공중의 의식을 유도하는 작용을 한다. 공공시설물은 역사문화거리 속 사람들에게 귀속감과 정체성을 느끼게 해주는 매개로, 역사문화거리의 공공시설물 디자인은 도시 고유의 이미지와 도시경쟁력 강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만큼, 효율적으로 디자인되어야 한다. 따라서, 역사문화거리의 정체성을 고려하고 개성 있는 역사문화거리 이미지를 구축함에 있어 공공시설물을 정체성 특징을 표현하는 대상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라. 통합성

공공시설물은 기타 시설물과 함께 형태, 색채, 물성에 있어서 하나 이상의 전체적인 특성을 형성한다. 물성과 형태는 창조적 표현 활동을 통해 구현되고 공간 내 공공시설물의 기능을 높인다. 공공시설물은 역사적 공간 내에서 건축물 또는 기타 시설물의 채도, 색상, 명도 등과 통일성을 이룬다.²⁸⁾

역사문화거리의 공공시설물 체계는 지역 환경 전체와 관련이 있으며 역사문화거리의 전체적인 환경의 일부이자 동시에 하나의 체계적인 독립체이기도 하다. 도심 속 역사문화거리에서 공공시설물의 통합성 디자인은 첫째 각기 다른 기능적 속성을 지닌 공공시설물들이 공동으로 하나의 시설물 체계를 이루고 각각의 공공시설물은 모두 그 체계 속 중요한 구성요소로서 각자의 특징과 개성을 지닌다. 둘째, 전체 체계 안에서 각 공공시설물의 디자인은 자체적으로 지닌 독특한 특징과 개성을 따르며 각기 다른 기법의 표현을 활용하여 서로 다른 주의사항을 따르는 만큼, 부분과 전체 간 조화 관계는 매우 중요하다.²⁹⁾

통합성은 공공시설물 간 연결 및 통합을 통해 부분과 전체를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27) 胡凯. 城市历史文化街区中的公共设施设计研究. 2009. 江南大学研究生院, 硕士学位, p.45.

28) 김영남. 서울 근대 역사공간의 공공 디자인 연구. 2011. 국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p.31.

29) 陈欣. 城市历史文化街区公共设施的设计研究. 2015. 华东理工大学研究生院, 硕士学位, p.48.

디자인으로, 공공공간과 그 속의 각 공공시설물을 하나로 보고 공공시설물 간 상호관계를 고려해야 한다.

마. 조화성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공간은 자연적으로 형성된 공간과 달리, 자연이라는 토대 위에 인류의 사고방식에 따라 계획적으로 만들어진 공간이며 시간의 지남에 따라 자연과 조화를 이룬다. 이 과정에서 부분과 전체가 서로 조화를 이루고, 동시에 인간이 지닌 역량이 확대되어 각 세분화된 공간에서 상호작용을 통해 조화를 이룬다. 공공가로시설물 역시 이러한 부분과 전체의 조화를 고려하는 것으로 각각의 시설이 단독으로 존재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³⁰⁾ 조화성은 역사문화거리에 설치된 공공시설물이 역사문화거리의 전체적인 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있는가와 시각적으로 통일성을 이루는가에 대한 평가로, 주변환경과 서로 조화를 이루는 형태와 색채를 활용한 디자인은 각 시설물의 아름다운 외관을 구성한다. 반면,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디자인은 경관의 아름다움과 품격을 떨어뜨린다. 공공시설물 디자인은 조화로운 형태와 색상을 통해 경관의 조화를 이루는 것이지 각 시설물을 경쟁적으로 부각시키는 것이 아니다. 역사문화거리의 공공시설물은 거리의 전체적인 이미지의 일부이자 거리 공간 환경의 중요한 구성요소가 된다. 공공시설물 자체의 조화 및 주변환경과 역사문화적 분위기와 통일성을 위해서는 조화성을 반드시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바. 지속가능성

공공시설물은 도시의 공공환경과 사회복지를 구성하는 중요한 내용으로, 환경과 동떨어져 존재할 수 없다. 역사문화거리의 공공시설물 디자인은 지역 문화와 서로 조화를 이루고 화합과 통일의 공중환경을 조성하며 지역문화의 특색을 확장하고 발전시킨다.

지속가능성은 역사문화거리 환경 디자인의 미래, 즉 공공시설물 디자인의 특성이 지속되는 것을 말하며 유지 및 관리, 내구성, 경제적 효용 등을 포함함과 동시에 친환경적이고 내구성이 강한 재료를 사용하여 지속가능한 디자인을 실현하는 것이다.³¹⁾ 다시 말해, 공공시설물의 원활한 유지 및 관리를 위해서는 친환경적인 재료와 구조, 관리의 용이성, 지속

30) 김용성. op.cit., p.35.

31) 디자인서울 총괄본부. 디자인 서울 공공시설물 가이드라인, 2008, p.152.

가능성 측면을 고려해야 하며 공공시설물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형식상 서로 호응하게 함으로써 공공시설물을 도심 속 역사문화거리 경관 및 역사문화를 유지하고 확장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삼아야 한다. 또한, 공공시설물의 관리 또는 이용 과정에서 친환경적인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공공시설물은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설치하는 것으로, 도시의 전체적인 이미지와 가로 환경 전체적인 구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공공시설물은 시민들에게 편리하고 쾌적하면서도 안전하고 개성 있는 일상공간을 제공하며 도시 공간 환경을 구성하는 최소 단위가 되는 사람과 가장 가까운 환경 장치다. 따라서, 역사문화거리의 공공시설물은 디자인 측면에서 재해석하고 시각적 이미지와 디자인 수단을 통해 차별화된 공간 구성과 독창적인 공간 해석을 실현함으로써 역사문화거리 환경의 기능과 가치를 높이고 나아가 도시 전체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2.2 역사문화거리의 고찰

2.2.1 역사문화도시

21세기에 들어선 이후, 도시이미지는 하나의 브랜드가 되었으며 도시이미지 제고를 위한 도시공간 재생 및 관리, 친환경도시 건설, 매력적인 도시 경관 조성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어 역사문화는 하나의 중요한 전략으로 채택되고 있다. 이에 따라 ‘문화도시’, ‘고도(古都)’, ‘역사문화도시’ 등 용어가 생겨났으며 역사도시와 고도의 개념이 확장되고 역사성과 문화 정체성을 지닌 문화도시의 개념과 역사문화도시, 즉 역사도시와 문화도시가 융합된 도시 개념이 등장했다.³²⁾

쑤전샹(孫振祥)(2011)은 역사문화도시를 넓은 의미의 역사적 가치를 지닌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있는 고성(古城, 옛 도시)의 총칭으로 보았다.

김효정(2004)은 역사문화도시를 역사도시와 문화도시가 서로 융합되어 형성된 도시로 보았으며 도시 정책 및 계획 측면에서 봤을 때 역사문화도시는 도시가 지닌 역사적

32) 최정문. 경주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의 관광효과에 관한 동태적 연구:시스템 다이내믹스를 중심으로. 2016.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p.10.

가치와 문화적 자산을 적극적이고 창의적으로 활용하여 삶에 더 적합한 도시, 살기 좋은 도시라고 하였다.

박철희, 이정수(2010)에 따르면, 역사문화도시란 도시계획 측면을 강조한 개념으로 도시의 역사적 가치와 자산에 대한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활용을 통한 문화도시 실현에 그 목적이 있다.

이주영(2018)은 역사문화도시를 역사문화자원 활용을 토대로 한 문화도시이자 지역 활성화 및 내재적 발전 등을 추구하는 경제·사회·문화형 재생도시로 정의하고 있다.

왕징후이(王景慧)(2011)는 역사문화도시의 개념을 토대로 역사문화도시 보호 정책, 규정, 이력, 내용 등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역사문화도시 보호 관련 내용으로 문화재 및 유적, 역사문화거리, 옛 도시의 전체적인 배치와 면모, 무형문화유산 등을 언급했다.

소위 역사문화도시란 역사문화적 환경을 지닌 상태로 존속 및 발전하는 도시를 말한다.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지 『국토계획』 제36권 2호(오세경 외 저) 논문의 관련 내용에 따르면, 역사문화도시는 지정문화재와 비지정문화재를 지니고 있으며 이는 지역의 이미지 특성과 관련이 있고, 유형자원과 무형자원으로 나뉜다. 유형자원에는 장소, 건축물, 전통건축, 근대건축 등이 있으며 무형자원에는 지명, 고사(故事), 풍물 등이 있다.³³⁾

역사문화도시는 오랫동안의 역사적 축적을 통해 각기 다른 시대의 역사와 문화가 응집된 결과물이며 역사 속 사람들의 지혜와 창의력이 반영되어 있다. 역사와 문화는 한 도시를 구성하는 기본적 요소이면서도 지역 풍습과 문화적 환경의 차이에 따라 그 도시만의 특징적 요소가 되기도 하며 이는 곧 역사문화도시와 다른 도시를 구분하는 차이점이 된다.³⁴⁾ 또한 도시가 지닌 역사 가치와 문화 자원을 창조적으로 활용하여 그 도시만의 특색을 형성한다. 특히 전통풍습과 민속문화 등은 역사문화도시 특유의 문화적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이는 지역 주민들에게 의식과 삶에 서서히 스며들어 영향을 줌으로써 지역에 대한 강한 정체성과 귀속감을 느끼게 한다. 이러한 전통풍습과 민속문화는 앞서 언급한 무형자원에 속하며 장소, 건축물, 전통건축, 근대건축 등은 유형자원에 속한다.

이 외에 역사문화도시의 문화유산은 매력적인 관광자원이 될 수 있는데, 실제로 유명한 관광지의 대다수가 역사문화도시에 속한다.³⁵⁾

역사문화도시란 ‘도시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역사와 전통문화를 배경으로 창조적, 내생적 발전을 이루는 도시’라고 정의할 수 있다.

33) 김정규, 역사문화거리의 계획방법 및 조성방안에 관한 연구:扶餘郡 扶餘邑 구드래가로를 中心으로. 2001. 목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p.38.

34) 张银玲. 中国历史文化名城入境旅游发展现状研究:以15座历史文化名城为例. 2010. 新疆师范大学研究生院, 硕士学位, p.16.

35) 黄晓春. 荆州历史文化名城的保护与旅游开发研究. 2019. 华中师范大学研究生院, 硕士学位, p.12.

1) 한중 역사문화도시에 관한 정책 배경

(1) 한국 역사문화도시 조성 관련 정책 배경

한국은 1980년대 이후부터 역사문화환경 보전 문제에 관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다. 기존의 많은 연구들이 역사, 문화재, 도시, 건축, 경관, 지역발전 등 측면에서 논의를 시도했으며 국가의 주도 하에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의 통합성, 유구한 역사문화환경 발굴 및 보전을 위하여 도시재생 차원에서 역사문화자원을 보호하고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을 추구하기 시작했다. 역사문화자원을 맹목적으로 보전하고자 했던 과거 전통적인 보호 방식과 달리, 역사문화환경 보전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 움직임이 생겨났고, 이러한 움직임은 지역사회 주민들이 참여와 도시 주민들의 일상환경을 전제로 역사문화환경의 연속성을 추구한다.³⁶⁾

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하는 ‘지역거점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일부로, 「문화기본법」에 의거하여 문화 성격에 따라 지역의 특성화 발전과 국가 전체의 균형 발전을 모색하는 사업이다.

문화자원이 이렇듯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은 포스트산업사회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경제구조의 전환은 사회, 문화, 공간 등 간의 상호 연쇄작용을 일으켰고, 문화의 산업화와 서비스화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문화는 포스트산업사회 각 분야의 중요한 이슈로 부상했다.³⁷⁾

1950년대의 도시재건축, 1960년대의 도시재활성화, 도시전면재개발, 1980년대의 도시재개발 등을 거쳐 도시재생 단계에 진입하였다.³⁸⁾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물리적 환경 시설에 대한 개선 및 새로운 지역 개발에 국한된 한계성을 드러냈고, 그에 대안으로 ‘도시재생’이 제기되었다. 이때 문화는 여러 도시 문제를 해결하고 도시를 발전시키기 위한 중요한 자원으로 대두되었으며 사람들의 문화에 대한 관심도 점점 더 높아져 문화는 도시 문제 해결 및 발전 전략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다.³⁹⁾

한국에서 문화도시 정책 개념이 처음 등장한 것은 2000년 개정된 「도시계획법」 제5조

36) 윤서연. ‘서촌’ 역사문화환경 보전 계획과정 연구. 2016.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p.7.

37) 문화체육관광부. 문화를 통한 지역재생 정책추진 방안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2012, p.6.

38) 김인선 외. “도시재생을 위한 컬러노믹스적 접근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vol.26, no.5, 2010, p.286.

39) 이순자, 장은교. 지역거점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추진실태 및 향후 과제. 국토연구원, 2012, p.25.

제1항에 따라 문화도시가 시범도시 유형 중 하나로 규정되면서부터다.⁴⁰⁾ 특히 1990년대 중반 이후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되면서 각 지역 간 경쟁이 심화되었고, 이 과정에서 문화는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이 되었다. 이와 동시에, 사회 트렌드의 영향으로 문화는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함께 관련 정책이 끊임없이 개선되었다.

(2) 중국 역사문화도시 조성 관련 정책 배경

1970년대 말에서 1980년 초, 중국은 세계문화와의 소통과 교류가 확대되면서 역사환경 보전을 중시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당시 각 지역의 대규모 지역발전 사업 추진으로 인해 많은 문화재 유적과 구시가지가 심각하게 훼손되었고, 사회적 인식이 부족하여 일부 대규모 또는 고속성장을 추진했던 도시의 경우 역사적 유적 및 도시의 옛 면모를 보전하지 못하여 도시 공간의 특색과 문화환경이 심각하게 파괴되었다. 이에 따라, 일부 전문가들은 개별적인 문화재 유적이나 옛 건축물 보호가 아닌 도시 전체적인 측면에서 보호 조치를 시행하고 거점도시를 지정하여 보호정책을 실시해야 한다고 호소했다.⁴¹⁾

이에 중국 정부는 1979년 「환경보호법」 시행을 발표하였지만, 해당 법은 환경보호가 주요 골자였다. 이후 1980년 「옛 건축물 및 문화재 유적 보호 및 관리에 관한 통지」가 발표되고 1982년 「문화재보호법」이 실시되면서 문화재 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법이 마련되고 역사문화도시 관련 제도가 개선되면서 문화재 보호사업이 강화되고 민족 문화재 보호 의식도 더 높아졌다. 한편, 1982년 역사문화도시에 대한 기준이 처음으로 제기된 이후, 역사문화도시 보호 제도가 본격적으로 제정되었다. 2007년 중국 정부는 「문화재보호법」의 일부 내용을 개정하였으며 중국 국무원 또한 일련의 관련 행정규정을 발표하였으며 지방정부도 중앙정부의 정책적 지도 하에 각 지역 실정에 맞는 지방법규와 규정을 잇달아 발표하였다.⁴²⁾ 중국은 민족의 역사문화전통을 보존하고 우수한 역사문화를 널리 알리기 위하여 다년간의 노력하고 세계 각국의 경험을 참고한 결과, 1982년 전국적으로 24개의 중요한 역사적 가치와 혁명적 의의를 지닌 도시를 1기 국가급 역사문화도시로 선정하였으며 이후 2020년 12월 7일 기준 중국 국무원이 역사문화도시로 지정한 도시는 총 135개다.⁴³⁾

40) 김인서. 전개논문, 2018, p.31.

41) 张银玲. op.cit., p.11.

42) 陈彤. 扬州与奈良:中日历史文化名城保护比较研究. 2020. 河北大学研究生院, 硕士学位, p.11.

43) 国家历史文化名城. 2020.12. 百度百科:<http://baike.baidu.com/view/353383.html>

위의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알 수 있듯이, 중국의 역사문화도시는 문화재 보호를 토대로 제기 및 발전하였으며 처음에는 개별 문화재에 대한 보호였으나 이후 도시 전체의 환경보호로 발전하였다.

이러한 법률과 법규의 규정 및 관련 개념의 확립은 중국 역사문화거리가 역사문화도시의 필요 구성요소가 됨을 보여주며 역사문화도시라고 해서 반드시 고대 유산의 본래 모습을 완전히 그대로 보존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본래의 역사건축이나 전통적 배치, 옛 모습과 풍부한 문화재 건축물 또는 시설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2.2.2 역사문화거리

역사문화거리는 도시에서 가장 대표적인 거리 중 하나다. 역사문화거리는 사람들의 보행 공간이자 물자가 유통되는 공간이다.⁴⁴⁾ 소위 ‘역사문화거리’란 역사적으로 전해져 내려온 사회적 요소와 문화적 요소가 응집되고 일정한 공간 경계를 지닌 도시구역이다. 역사문화거리는 하나의 공공공간으로서 전체적으로 역사 속 문화 가치를 반영하고 있으며 각 시대의 전형(典型)과 발전 역사를 보여준다.⁴⁵⁾

역사문화거리는 역사문화도시가 역사적 자원을 되살리는 경로 중 하나로, 사람들이 만나고, 휴식을 취하고, 역사를 접할 수 있는 보행로이자 독립적인 사회 형태 또는 테마, 이미지, 역사적 소재를 가지고 역사문화활동을 자유롭게 전개하는 거리다.⁴⁶⁾ 또한 사람들의 집단기억을 불러일으키고 도시의 역사 및 문화적 특징을 지속적으로 기록하는 직접적인 장소다. 역사문화거리의 공공시설 설계는 문화 기억이 전송되는 공간인 만큼, 도시의 공공공간에 활력을 불어넣고 문화를 유지할 측면에 있어서 절대 빠질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이다.⁴⁷⁾ 역사거리의 개념이 처음 등장한 것은 1933년 8월 아테네에서 열린 국제현대건축학회에서였다. 당시 회의에서 통과된 「아테네헌장」에서 역사거리에 대한 개념이 처음 제기되었으며 “역사적 가치를 지닌 건축과 거리를 올바르게 보존해야 하며 훼손해서는 안 된다”라고 언급되었다.⁴⁸⁾ 이는 국제적으로는 처음으로 보호 차원에서 역사거리라는 개념이 제시된 사례다. 이후 1962년 「나이로비 이니셔티브」에서는 역사지역이 유명한 건축지구

44) 김하나. 부산시 문화거리 조성을 위한디자인 전략 연구:피프(PIFF)거리를 중심으로. 2010.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p.15.

45) 朱文龙. 西安老城历史街区保护与更新研究. 2006. 西安建筑科技大学研究生院, 硕士学位, p.6.

46) 김정규. op.cit., p.7.

47) 郑定. 论城市形象战略中的公共设施设计. 2007. 苏州大学研究生院, 硕士学位, p.4.

48) Barry Goodchild, Housing and urban environment: a guide to housing design. Renewal and urban planning, Black well Science Ltd, 1997, pp.35-37.

뿐만 아니라 역사거리, 역사고장, 역사마을 등을 포함한다고 언급하였으며 1964년 「베니스헌장」은 최초로 역사지구에 대한 개념을 확립하고 역사지구에 대한 보존을 제창하였다. 1967년 영국의 「도시문명법」은 특수한 예술적 가치와 역사적 특징을 지닌 지역을 ‘역사보호구’로 지정하였고, 1075년 일본에서 개정된 「문화재보호법」은 전통건축 밀집구역과 주위 환경과 하나가 되어 형성된 역사경관지역을 ‘보호구’로 지정하였다. 1987년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에서 통과된 「워싱턴헌장」은 역사거리를 ‘도시와 역사적 도심부 또는 기타 역사적 경관을 보존하고 있는 지역’을 가리킨다고 하였다.

위로 미루어 보아, 도시 역사문화의 중요한 담지체로서 역사문화거리 보호에 대한 각국 정부의 관심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으며 문화유산 보호 및 재개발, 도시의 부흥과 발전에 있어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제적으로 공인된 역사문화거리에 대한 의미는 ‘도시 역사문화를 보존하는 물질적 담지체’로, 역사적 의의가 있는 사물 전체를 모두 그대로 보존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여러 국제 학술연구 결과 도시의 역사와 문화를 보존하는 구역에 대한 정의가 제기되었다.⁴⁹⁾

역사문화거리는 고적(古跡), 역사적 건축 및 역사문화를 지닌 도시구역의 거리라고도 할 수 있다.⁵⁰⁾ 역사문화거리는 도시의 이미지를 제고시키고 물리적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 뿐만 아니라, 도시 주민들에게 교류와 소통을 할 수 있는 활동 공간을 제공하고 이를 매개로 하여 개인과 사회가 융합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역사문화거리는 도시 역사의 축소판이자 역사문화적 가치가 비교적 높은 지방문화재의 일부라고 할 수 있다.⁵¹⁾

1) 한중 역사문화거리에 관한 정책 배경

(1) 한국 역사문화거리 관련 정책 배경

한국에서 역사문화거리란, 보호 및 후대 전승 가치를 지닌 역사문화구역을 말하며 이러한 구역의 역사문화유산을 현재의 도시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도시 미래 발전의 지표가 된다. 또한, 도시의 성장 과정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지역의 특징

49) 朱文龍, op.cit., p.6.

50) 김명. 도시재생을 통한 가로계획 특성에 관한 연구:중국 역사문화거리 중심으로 . 2021.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p.10.

51) 이종수. “부산 골목문화자산 스토리텔링 마케팅”. 한국정책학회 학술회, vol.2011, no.-, 2011, pp.58-59.

과 융합된다.⁵²⁾ 1990년대 지방자치제도 시행에 따라 지방정책사업이 추진되었고, 그중 중요한 사업 중 하나가 바로 역사문화거리 복원사업이었다. 이 사업은 이후 점차 국가와 지방정책을 중심으로, 사회와 개인의 역사문화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수요에 힘입어 국가 전체 관광산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문화계에서도 이러한 역사문화적 개념이 반영되고 역사, 경제, 미술 측면에서 모두 중요한 의의를 지니는 거리구역을 ‘역사문화거리’로 불렀다.⁵³⁾ 이후 추가적으로 ‘문화지구’, ‘예술지구’ 등의 개념이 등장하였는데, 소위 문화지구란 도시에서 문화인프라가 집중되어 있고 문화활동 및 문화경관 등 요소를 지닌 특정지역을 말한다. 다시 말해, 도시에서 문화행사, 예술감상 등이 이루어지는 문화생활공간으로, 이러한 공간은 거리환경, 건축물, 조경물 등이 아름답고 예술적 감상 가치가 높아 해당 지역 전체를 ‘문화지구’로 지정하였다.⁵⁴⁾

한국의 문화지구 관련 법률 및 법규는 지방자치제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역 전략적 성격을 지닌 보호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도시마다 보유하고 있는 문화 예술자원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제정된 제도 및 정책 역시 도시별로 상이하다. 1999년 인사동을 문화지구로 지정하기 위하여 한국문화정책연구개발원은 인사동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실시하였고, 조사보고서를 통해 인사동의 문화지구 지정 필요성과 기존 「도시계획법」이 인사동의 전통문화 특징인 전통수공업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한다는 한계점을 지적하면서 문화지구 지정을 이한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2000년에는 「문화예술진흥법」 제10조 제2항에 ‘문화지구 지정 및 관리’ 조항을 추가되어 문화지구 지정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이를 토대로 각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지구의 지역적 특성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문화지구 제도의 시행은 지역문화사업을 발전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지역문화의 특성이 보호 및 활용될 수 있다.

문화지구 지정 후의 후속 법규 및 방안 또한 지속적으로 추진되었는데, 「문화진흥법」에 근거하여 문화지구 지정 후 1년 이내 반드시 해당 지구에 대한 관리계획을 제정하고 매년 관리계획을 평가 및 심사해야 한다. 또한, 3년마다 문화지구에 대한 자격 재심사를 실시함으로써 해당 지구가 관리 및 운영 측면에서 문화지구의 특성을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하여 자격 유지 여부를 결정한다.

52) 안인향. 서울시 역사적 도심부의 보전적 재생을 위한 연구. 2009.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p.33.

53) 좌몽적. 역사문화거리 활성화를 위한 통합 디자인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연구. 2015.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p.28.

54) 한국문화정책개발원. 문화지구 조성모델 개발 및 정책방향에 관한 연구, 1999, p.5.

(2) 중국 역사문화거리 관련 정책 배경

중국의 관련 정부문건이나 학술연구보고서에서도 역사문화보호구, 역사거리, 역사문화거리 등 다양한 표현이 등장하고 있으며 그 의미는 기본적으로 같다.

1986년 중국 국무원은 2기 국가급역사문화도시를 발표하면서 “일부 문화재 및 유적이 밀집되어 있거나 역사적 모습을 비교적 완전한 형태로 유지하고 민족적 특색이 반영되어 있는 거리구역, 건축구역, 마을, 산채 등을 보호해야 한다.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또는 시, 현급 지방정부는 각 지역의 역사, 과학, 예술적 가치 등에 근거하여 각 등급에 해당하는 역사문화보호구를 지정한다. 역사문화보호구에 대한 보호 조치는 문화재 보호 단위의 실시 방법을 참고하여 전체적인 모습과 특색을 중점적으로 보호한다”라고 지시했다.⁵⁵⁾

이로부터 알 수 있듯이, 역사문화거리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으며 전통 풍경을 대표할 수 있는 거리를 역사문화도시의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고대 문화재 및 유적, 전통 거리를 핵심적인 보호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다.⁵⁶⁾

1994년에는 「역사문화도시 보호 계획 제정 기준」을 통해 ‘역사거리’라는 용어를 정식으로 사용하기 시작하였으며 이후 이 용어는 학술계에서도 보편적으로 쓰이면서 1990년 후반에는 ‘역사문화거리’라는 용어가 등장하게 되었다. 2002년 10월 개정된 「중화인민공화국문화재보호법」 제14조에서는 구체적으로 “풍부한 문화재를 보존하고 있고 중요한 역사적 가치 또는 혁명적 의의를 지니는 마을, 거리, 촌락은 성, 자치구, 직할시 정부가 역사문화거리 또는 마을로 지정하여 국무원에 등록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⁵⁷⁾ 2005년에 발표된 「역사문화도시 보호 계획 규범」 역시 역사문화거리 개념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 해당 규범에 따르면, 역사적 유산이 풍부하고 비교적 완전한 형태로 유지되어 있으며 역사 속 한 시대의 전통적 모습 또는 민족이나 지방의 특색을 반영하는 문화재 및 유적, 근현대 사적(事跡), 역사적 건축이 일정 규모로 존재하는 지역을 ‘역사지구’라고 하며 이후 성, 자치구, 직할시 정부가 이러한 역사지구를 중점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역사문화거리’를 지정하였다.⁵⁸⁾

위의 내용을 토대로 했을 때, ‘역사문화거리’라는 용어는 중국 역사문화유산 보호 체계에서 법적 효력을 지닌 매우 중요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55) 中国国务院.批转建设部, 文化部. 关于请公布第二批国家历史文化名城名单报告的通知.1986. 报告书号: 104号, p.5.

56) 中国国务院.批转建设部, 文化部. *ibid.*, p.7.

57) 中国法制出版社. 中华人民共和国文物保护法. 中国法制出版社, 2002, p.10.

58) 中华人民共和国建设部. 历史文化名城保护规划规范. 中国建筑工业出版社, 2005, p.7.

한국과 중국은 아시아의 중요한 두 국가로서, 한중 양국은 많은 유사점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특히 국가의 역사와 문화를 매우 중시한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으며 이에 따라 양국 모두 역사문화 환경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⁵⁹⁾ 앞서 살펴본 한중 양국의 선행연구 내용을 정리하면, 양국의 역사문화거리에 대한 이해는 다음과 같은 공통점이 있다.

1. 한중 양국 모두 특정 구역 내 풍부한 역사문화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다시 말해, 양국 모두 역사문화지역의 공간성 및 장소로서의 성격을 강조한다.

2. 한중 양국 모두 역사문화거리가 단순히 유형적 개념이 아닌 역사환경요소, 인문학적 요소, 사회적 요소, 문화적 요소 등 무형적 개념이기도 함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실증연구를 위한 ‘역사문화거리’ 용어의 개념을 ‘일정 규모의 밀집된 구역을 형성하는 역사적 유물을 보존하고 한 시대의 역사적 특징을 구현하며 문화의 미래 가치를 지니면서도 오늘날에도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역사문화적 거리 및 구역’으로 확정하고, 한국의 문화지구, 중국의 역사문화거리 등을 본 논문에서는 모두 ‘역사문화거리’ 하나의 용어로 통일하여 사용한다.

2) 역사문화거리의 종류

도심 속 역사문화거리 유형은 공공시설물 디자인을 어느 정도 규범화하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일반적으로 역사문화거리의 공공시설물을 시설물 자체의 서비스적 성격 외에도 그 외관적 특징을 통해 해당 거리의 전체적인 이미지 또는 지역의 이미지와 조화를 이룬다. 즉, 역사문화거리의 유형은 해당 거리 공공시설물의 지역적 특색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왕이팡(2020)은 역사문화거리의 3가지 유형을 제시하였다. 첫 번째 유형은 문화형 역사문화거리로, 문화적 가치를 지닌 역사 유적이 대량 보존되어 있거나 중요한 역사적 사건을 기록하고 공간, 또는 과거의 어떠한 특정 문화의 발원지로 해당 장소 내 유형 및 무형 요소를 갖추고 있는 거리를 말한다. 두 번째 유형인 상업형 역사문화거리는 전통적인 상업의 중심지로, 상업적 기능 위주로 형성된 역사적 거리를 뜻한다. 세 번째 유형은 거주형 역사문화거리로, 주로 역사적으로 형성된 거주 기능이 주체가 되어 거리 내 거주지가 대량 분포되어 있는 역사문화거리를 일컫는다.

59) 조예선. 중국 역사문화거리재생을 위한 공간 스토리텔링 활용 방안 연구:첸먼따스란 거리를 중심으로. 2018.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p.8.

후카이(胡凱)(2009)는 역사문화거리를 실물 유형에 따라 구시가지형 역사지구(현재까지 도시의 중심축 및 구조와 틀에 영향을 주는 옛 도시의 중심지), 문화재형 역사지구(문화재 건축 위주의 역사지구), 산업형 역사지구(산업, 교통, 물류 등 생산활동이 이루어지는 지역)로 나누었다.

류리쥘(劉立鈞), 왕옌저우(汪延洲)(2016)은 역사문화거리를 용지의 성격에 따라 3가지 유형으로 나누었다. 첫째는 문화성 역사문화거리로, 문화 전파 및 교육을 주요 기능으로 하며 비교적 완전한 형태를 보존하고 역사적으로 가치를 지니는 중요한 유적으로, 주변 경관이 역사 속 원래 모습을 상대적으로 잘 갖추고 있는 지역이다. 두 번째는 상업성 역사문화거리로, 상업 기능이 추가되며 역사 유적의 원래 모습이 일정 수준이 재건 또는 복원이 필요한 지역이다. 세 번째 유형은 거주성 역사문화거리로, 거주 기능이 추가되며 역사문화 유적이 보존되어 있지만, 수리와 복원을 통해서만 원래의 경관을 갖출 수 있는 지역이다.

왕멍야오(王夢瑤), 허샤오잉(何韶穎)외(2015)는 역사문화거리를 전통주택형(특색 있는 전통건축, 고대 및 근현대건축), 전통상업형(전통산업의 유형 및 방식 유지), 특수상업형(사당 등 주변의 특수상권), 문화여가형(특색 있는 경관 및 거리 문화), 역사경관형(역사적 특징을 지닌 건축이 밀집된 지역)으로 분류하였다.

린상(林翔)(2003)는 역사문화거리를 그 기능에 따라 거주형 역사거리, 상업형 역사거리, 문화형 역사거리,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으며 왕리(王麗)(2019)는 강 양쪽 연안의 역사문화거리 분포 현황 및 기능에 근거하여 역사문화거리를 거주형, 상업형, 혼합형으로 나누었다.

상기 선행연구의 내용을 토대로 본 연구 저자는 역사문화거리의 유형을 아래 [표2-6]과 같이 정리하였다.

[표2-6] 역사문화거리의 유형 연구 경향

분류	연구자	린상(林翔) (2003)	후카이(胡凱) (2009)	왕멍야오(王夢瑤), 허샤오잉(何韶穎)외 (2015)	류리쥘(劉立鈞), 왕옌저우(汪延洲) (2016)	왕리(王麗) (2019)	왕이팡 (2020)
문화형		●		●	●		●
상업형		●		●	●	●	●
거주형		●		●	●	●	●
구시가지형			●				
역사형				●			
혼합형						●	
문화재형			●				
산업형			●				

상기 내용을 종합하면, 상업형과 산업형 역사문화거리는 하나의 유형으로 통합할 수 있으며 문화재형과 문화성 역사문화거리 역시 한 가지 유형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전통상업형과 특색상업형 역시 상업형 역사문화거리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다양한 유형을 재정리한 결과, 역사문화거리 유형은 크게 문화형, 상업형, 거주형 3가지로 아래 [표 2-7]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표2-7] 역사문화거리의 유형

분류	내용
문화형	중요한 역사적 가치 또는 문화적 가치를 지닌 유적지로, 문화재 건축 위주의 역사지구
상업형	상업 기능이 추가 되는 역사문화거리로, 전체적인 역사적 환경 보존이 잘 이루어진 구역
거주형	주로 거주 기능을 하며 전통건축의 형태가 남아 있으며 역사문화 유적이 보존되어 있는 구역

위의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각 연구의 역사문화거리에 대한 유형 분류가 상이하며 도시마다 발전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역사문화거리가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일부 역사문화거리는 두 가지 이상 유형의 속성을 모두 지니기도 한다.

3) 역사문화거리의 가치

역사문화거리는 도시이미지의 일부로,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유형뿐만 아니라 하나의 무형의 것으로서 정신적 가치를 지니고 도시의 지속적인 차별화를 실현하는 문화적 자산이다.⁶⁰⁾ 역사문화거리의 가치와 중요성 측면에서 역사적 건축물과 문화재는 대대로 전해져 내려오는 정보를 계승하고 역사를 기록하는 담지체이며 중대한 역사적 및 고고학적 가치를 지닌다.⁶¹⁾ 또한, 역사문화거리는 중요한 문화적 가치를 지냄으로써 사람들의 사고를 풍부하게 한다.⁶²⁾ 역사문화거리는 국가 정체성이자 민족의 상징으로, 중요한 정신적 기능과 영구적 기념의 의의를 지니며 이를 통해 사람들의 사고와 심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서적 가치도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리리(李黎)(2019)는 역사문화거리의 가치를 정서적 가치(신분, 연속성, 정신 및 상징적

60) 连玉明. 街道蓝皮书北京街道发展报告:大栅栏篇. 社会科学文献出版社, 2016, pp.105-106.

61) 刘培培, 高德宏, 赵明哲. “例析历史建筑保护与再利用的真实性原则”. 建筑与文化, vol.2017, no.11, 2017, pp.69-70.

62) 牛颂. “重视宗教建筑遗产在城市历史风貌中的价值”. 中国宗教, vol.2007, no.02, 2007, pp.66-67.

작용), 문화적 가치(문헌 가치, 역사적 가치, 고고학적 가치, 미학 및 지표성 가치, 건축학적 가치, 도시 경관 및 생태학적 가치, 과학적 가치), 사용 가치(기능적 가치, 경제적 가치, 사회적 가치, 정치적 가치)로 분류하였다.

장다위(張大玉), 왕묘오(王苗)(2013)은 역사문화거리의 가치가 주로 역사적 가치, 문화적 가치, 사회적 가치, 예술적 가치의 형태로 구현된다고 보았다. 역사적 가치란 역사문화거리가 대부분 한 도시의 발원지이거나 역사적 도시의 중심지인 경우에 해당하며 동시에 각 시대에 거주했던 사람들의 생산활동, 생활방식, 사회제도의 변천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문화적 가치는 역사문화거리가 도시의 전통문화가 집중된 곳으로 고대 건축물, 역사문화 유산 등, 인문학 정신이 한데 모여 있는 것을 뜻한다. 사회적 가치는 역사문화거리가 도시 생활의 기본 구성단위로서 사람이 주체가 되어 직접적인 사회적 관계를 맺고 환경과 문화 공유하는 것을 말한다. 예술적 가치는 역사문화거리의 전통건축과 공간 환경 자체가 지닌 예술성을 가리킨다.

위홍샤(於紅霞)(2014)는 역사문화거리의 가치를 7가지 측면에서 제시하였으며 구체적으로는 역사적 가치, 예술적 가치, 문화적 가치, 사회적 가치, 환경적 가치, 건축학적 가치, 경제적 가치다. 먼저, 역사적 가치는 역사적 중요성, 거리와 역사적 사건 또는 인물 간의 관련성, 역사적 영향력 크기에 따라 결정된다. 예술적 가치는 역사문화거리의 예술적 속성을 말하며 역사문화거리의 전체적인 배치 구도, 형태, 예술적 품격, 건축물 및 환경, 전체적인 색채 등이 모두 예술적 가치 범주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문화적 가치는 역사적 문화재나 건축물 등 유형문화유산과 종교, 사회 관습, 예술 표현, 전문 공예 등 무형문화유산을 통해 드러나는 문화적 가치를 일컫는다. 사회적 가치는 사람들의 물질적 및 정신적 수요에 대한 충족을 토대로 형성된다. 환경적 가치는 역사문화거리 특유의 자연환경과 인적환경을 말하며 건축학적 가치는 역사문화거리 전체의 모습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로, 보통 해당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다. 마지막으로, 경제적 가치는 주로 상업활동과 관광산업을 통해 구현된다.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역사문화거리의 가치는 크게 역사적 가치, 문화적 가치, 사회적 가치, 예술적 가치 4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역사적 가치: 역사문화거리는 대부분 한 도시의 발원지 또는 역사적 도시의 중심부로서의 각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생산활동, 생활방식 및 사회제도의 변천 과정을 기록한다.

둘째, 문화적 가치: 역사문화거리는 도시 전통문화가 밀집된 구역으로, 그만큼 문화적 가치가 풍부하다. 고대 건축물, 역사문화 유산, 민속문화, 역사적 사건 및 인물 등

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사회적 가치: 역사문화거리를 통해 주민이나 관광객이 귀속감이나 정체성을 형성함으로써 사회적 가치가 실현된다.

넷째, 예술적 가치: 역사문화거리의 예술적 가치는 거리에 활력을 불어넣고 거리의 건물, 공공시설물 등을 통해 미적 가치를 전달함으로써 거리환경을 더욱 아름답게 만든다.

역사문화거리는 사람들이 휴식을 취하고 활력을 얻을 수 있는 공간이자 하나의 상징적 의미를 지니는 장소로서 소통과 교류의 장이 되기도 한다. 역사문화거리는 각 지역의 역사적 요소를 발굴하여 특색 있는 거리를 조성함으로써 관련 산업의 역사문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거리환경에 대한 지속적인 유지 및 관리를 촉진하고 환경 개선 효과를 달성한다.

2.3 만족도 평가요소

2.3.1 개념

이용후평가(POE: post-occupancy evaluation)은 1960년대부터 등장하였으며 이용자의 각도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환경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를 진행하는 연구로, 도시, 경관, 건축 등 다양한 범위에 응용되고 있다. 이용후평가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나뉜다. 하나는 물질적 환경에 대한 객관적 평가로, 소리, 빛, 물, 토지 등 요소를 포함하며 다른 하나는 주관적 평가에 해당하는 사회행위평가로 주로 환경심리학, 건축심리학의 관점에서 집단행위와 조성된 환경 간 상호관계를 연구하며 구체적으로 만족도, 쾌적도, 환경 선호도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 실시하는 만족도 연구는 이용후평가의 일종으로 만족도의 높고 낮음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신은진(2012)은 만족도 조사를 거주후평가(POE)를 위한 하나의 도구로 보고 거주민의 수요를 환경 조성 계획에 반영하고자 하였으며 거주민의 주거환경에 대한 주관적인 판단 결과를 만족도의 근거로 삼았다. 또한, 환경에 대한 반응 조사에 있어서 주거만족도 외에도 주택선호도 조사 등도 포함하였다.⁶³⁾

63) 신은진, 서울시 아파트단지의 주거환경 유형별 주거만족도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2012,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p.7.

한경원(2005)은 만족도가 거주자의 주관적 판단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주택 관련 물리적, 공간적, 심리적 활동의 지각과 인지를 토대로 도출된 결과라고 보았다.⁶⁴⁾

최옥규(2013)에 따르면, 만족도는 현재 상황에 대한 감각기관의 인지 능력에 따른 만족 정도이며 이는 곧 어떠한 대상에 대한 경험과 비교로 이어진다. 이는 과거에 경험했던 인지 수준과 현재 상황의 상호관계에 대한 인지 차이 정도이자 경험에 따른 인지를 토대로 만족의 정도를 판단함으로써 실현하고자 하는 수요에 대한 충족 정도가 인지된 수요 충족으로 표현되는 것이다.⁶⁵⁾

최용부(2005)는 만족을 대상의 부족함에 대한 보완 정도를 인지하는 수준 또는 충족되지 못한 수요에 대한 만족 정도, 선호 수요가 충족된 정도로 보았으며 물리적 환경과 심리적 측면의 선호 또는 가치의 반영 정도로 드러난다고 하였다.⁶⁶⁾

Cambell은 만족감을 갈망과 성취 간의 관계, 즉 기대하는 것과 개인이 실제로 누리는 성과 간의 차이로 보았다. 만족은 어떠한 기준을 토대로 측정하는 생활 경험이며 갈망은 만족감을 측정하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 한편, 이러한 갈망은 고정불변의 것이 아닌 객관적 상황과 조건에 따라 변화한다.⁶⁷⁾

상기 내용으로부터 알 수 있듯이, 만족도 관련 연구는 주로 이용자의 지각 체험 관점에서 출발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공공디자인으로서의 공공시설물 디자인에 대한 평가 역시 이러한 이용자의 각도에서 연구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다루는 만족도 개념 또한 공공디자인의 각 평가요소에 대한 이용자의 기대 수준과 실제 이용 간의 차이를 토대로 평가를 실시하였다. 역사문화거리는 단순한 집합체가 아닌 내부적으로 사회생활, 문화공간을 형성하는 유기적인 집합체로, 역사문화거리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활동 및 교류는 공공시설물을 토대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이용자의 이용 후 만족도 측면에서 공공시설물 디자인 품질의 좋고 나쁨을 평가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64) 한경원. 공공임대주택 입주민의 주거만족도 영향요인 연구. 2005.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p.24.

65) 최옥규. 리모델링 아파트 거주자 거주만족도에 관한 연구. 2013. 서울벤처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p.38.

66) 최용부. 아파트 주거만족도의 구성요소와 관련요인 분석분석:가중치 부여방법을 이용한 진주시 사례를 중심으로. 2005.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p.9.

67) Campbell,A,Converse,P.E,& Rodgers,W.L,TheQuality ofAmerican Life,New York:RusselSagr Foundation,1976. 최용부, 2005, p.8. 재인용.

2.3.2 평가요소

이용자 만족도 관련 문헌자료를 살펴본 결과, 기존 선행연구는 이용후평가에 있어 다양한 평가요소를 활용하여 연구를 실시했음을 알 수 있었다.

송미나(2006)는 지역문화시설에 대한 총 11개의 이용자 만족도 평가요소를 설정하였다. 해당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이용자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11개 요소 중 공공성의 영향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은 입지 및 접근성이었다. 진정한 의미의 거주민 문화시설 개선을 위해서는 반드시 차별화된 방안이 필요하며 이용자의 선호를 토대로 차별성 있는 시설을 조성해야 하고 계획 단계에서 해당 프로젝트 시설 외에도 관련 편의시설 역시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김준형, 박경진(2007)에 따르면, 공공시설물 이미지는 디자인의 심미적 요소가 이용자의 만족도에 비교적 큰 영향을 미친다. 해당 연구 조사에 의하면, 공공시설물 디자인이 지속성을 지니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계획 및 설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연구는 공공시설물 디자인의 심미적 요소가 공공시설물에 대한 개선 수요, 주로 시설물 디자인의 정교함과 세련미, 매력적인 이미지에 대한 수요를 발생시킨다고 보았다.

이양병(2010)은 광양시 공공가로시설물 디자인에 대한 거주후평가를 실시하고 광양시 시민의 공공시설물 디자인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하였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부분 응답자는 공공시설물의 디자인이 매우 중요하다고 대답했으며 광양시 공공가로시설물에 대한 만족도는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 평가항목에 대한 평가점수 모두 평균 이하였으며 특히 심미성, 지속가능성, 조화성에 대한 만족도가 낮고, 휴지통, 볼라드, 가로수보호대, 공중전화부스, 버스정류장 등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연구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광양시 공공가로시설물 디자인에 대한 심미성, 조화성 등 미적 측면의 디자인 요소 개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박재호(2011)는 각기 다른 집단의 인지와 선호를 고찰함으로써 공공시설물을 위한 올바른 디자인 방향을 제시하고 행정영역의 디자인 설계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전문가, 공무원, 관련 전공 대학생은 조화성과 심미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반인의 경우에는 조화성, 환경성, 실용성, 안전성을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 연구 결과에 따르면, 부산시 공공시설물 중 편의시설물에 대한 개선이 가장 시급했다.

허진하(2012)는 이용자의 직관적 감성을 토대로 한 공공영역 이용자의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디자인 개발 및 정책에 적용하였다. 디자인 개발에 있어 이용자를 중심으로 한 디자인

인 전환을 시도하고 이용자의 만족도를 파악함으로써 개선 방안을 도출하였다.

연구 내용을 통해 도출한 평가항목은 접근성, 사용성 및 활동성, 유지관리 및 지속가능성이다. 전체적인 평가 결과 내용을 봤을 때, 동일하 평가항목에 대한 서로 다른 평가자의 평가는 큰 차이가 없었지만, 서로 다른 평가항목에 대한 관점 또는 주관적 판단은 평가자 간 크고 작은 차이가 존재했다.

평가 결과를 관찰한 결과, 주로 접근성, 유지관리 및 지속가능성 항목에서 평가자 간 관점의 차이가 있었다.

피아우제, 서주환(2014)은 한국인과 외국인 이용자 만족도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공공시설물에 대한 한국인의 이용도 만족도 관련 20개 평가항목 중 안내 시설 및 기타시설(버스쉘터 및 가로등)에 대한 만족도가 비교적 낮았으며 외국인의 경우, 휴게시설, 기타시설(버스쉘터 및 가로등) 순으로 만족도가 낮았다. 버스쉘터 및 가로등 항목의 경우, 한국인과 외국인 모두 만족도가 매우 낮았으며 이에 따라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연구는 휴게시설, 정보시설, 기타시설 및 관리와 안전 측면에 대한 만족도 분석을 통해 N서울타워 주변의 공공시설 개발 및 활성화를 위한 기초 데이터를 제공하였다.

[표2-8] 만족도 연구 관련 평가요소

연구자	논문제목	평가요소
송미나 (2006)	이용자 만족도 분석을 통한 지역문화시설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편의성, 실내 환경, 관리 및 운영, 입지 및 접근, 공공성, 학습 영역, 활동 영역, 내·외부 환경, 공간 활용, 가변성, 쾌적성
김준형, 박경진 (2007)	도시 환경 시설물 디자인 만족도의 지속성을 위한 방안 연구	심미적 : 고급스러운, 세련된, 예쁜, 매력있는, 맛있는, 튀는, 최고인 기능적 : 효율적인, 유용한, 쓸만한, 적합한, 편리한, 신선한, 흡족한
이양병 (2010)	공공시설물 디자인의 거주후평가 (POE) 에 관한 연구	조화성, 심미성, 안전성, 기능성, 친환경성, 지속가능성
박재호 (2011)	공공시설물 디자인 평가를 위한 기초항목 연구	심미성, 심리성, 환경성, 쾌적성, 지속가능성, 실용성, 접근성, 안전성, 인지성, 편리성, 경제성, 관리성, 일관성, 내구성, 적합성, 기능성 친화성, 상징성, 조형성, 조화성
허진하 (2012)	이용자 만족도를 위한 공공영역의 디자인 평가 방법에 관한 연구	접근성, 사용성 & 활동성, 유지관리 & 지속가능성, 경관성, 편안함 & 안전성, 지역경제성 & 사회적 교류, 통합성, 보편성
피아우제, 서주환 (2014)	N서울타워 주변의 공공시설에 대한 이용자 만족도 분석	녹지 공간, 휴게 시설, 편의 시설, 안내 시설, 기타 시설, 관리 및 안전

상기 연구를 통해 알 수 있듯이, 평가요소와 연구 목적은 서로 부합하여 이용자 만족도 평가를 위해 직관적 감성 요소, 공간 요소, 시설물 유형 요소, 디자인 요소를 평가항목으로 설정하고 전문가, 공무원, 학생, 일반인, 내국인, 외국인으로 나누어 평가자 간 관점의 차이와 만족도를 도출함으로써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공공시설물 디자인은 공공성을 구현할 수 있어야 하며 이용자 만족도를 공공시설물 디자인을 평가하는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역사문화거리 공공시설물 디자인에 대한 평가로서 이용자 만족도는 개인의 기대 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즉, 역사문화거리 공공시설물 디자인에 대한 만족도는 역사문화거리 내 공공시설물 디자인에 대한 이용자의 기대 수준 및 실제 이용 경험 간 차이를 토대로 한 심리적 평가라고 할 수 있다. 전반적인 만족도 수준은 각 공공시설물 디자인에 대한 만족도의 총합으로 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하나의 공공시설물 디자인에 대한 만족도 증가는 곧 전반적인 만족도를 증가시킨다.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만족도 파악을 통해 역사문화거리 내 공공시설물 디자인의 개선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이용자 만족도를 높이는 데 있다.

만족도 평가는 시대와 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거주후평가(POE)의 세부 주제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다루는 만족도 평가는 역사문화거리 공공시설물 디자인 계획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이 될 수 있으며 향후 역사문화거리 공공시설물 디자인 계획 및 조성, 평가를 위해 필요한 부분으로, 역사문화거리 공공시설물에 대한 만족도 평가를 통해 향후 역사문화거리 공공시설물 설치 및 조성을 위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역사문화거리 공공시설물 디자인에 대한 이용후평가를 실시하고 이용자의 만족도를 분석하여 향후 역사문화거리 공공시설물 디자인 설계를 위한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2.4 선행연구

본 절에서는 문헌연구법을 통해 선행연구의 의의와 기능을 고찰함으로써 본 연구를 위한 기초를 다진다.

2.4.1 공공디자인

[표2-9] 공공디자인 관련 선행연구

제목	발표 시기	연구자	연구 내용
21세기 문화산업을 위한 공공디자인 정책 연구:국가 디자인 진흥전략과 지원 시스템에 관하여	2006	정봉금	국가 차원의 전략적으로 공공디자인 분야 활성화, 유용하고 효율적인 공공디자인 정책을 수립, 문화산업과 특성화지역 간 적극적인 협력을 제시한다.
공공디자인의 색채 활용에 관한 연구:서울시 편의시설물을 대상으로	2010	박순옥	서울시를 중심으로 한 도시 생활 속 공공디자인 색채 사용에 관한 사례 분석을 통해 편리하고 쾌적한 지역 커뮤니티 분위기 조성하고 이를 토대로 한 공공디자인의 색채 활용 장려 필요성을 제시한다.
공공디자인 행정개선(PDAI) 모델 연구:공공디자인에 대한 의식분석을 중심으로	2010	차동익	PDAI모델을 활용하여 현지 방문을 통해 공공디자인 사업을 계획, 관리, 모니터링하는 행정책임자, 프로젝트 실행 디자이너, 공공디자인 사용자에 대한 공공디자인 의식을 비교·분석함으로써 공공디자인 행정개선모델을 모색한다.
공공디자인에 관한 연구:나주시를 중심으로	2011	류종관	기준에 무분별하게 설치된 시설물과 장식품은 시민에게 시각적 공해를 유발, 나주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및 사례 분석을 통해 공공디자인의 지역 통합성 및 공공성을 강조한다.
서울 근대 역사공간의 공공디자인 연구	2011	김영남	서울 근대 역사공간의 공공시설물 디자인 속성을 측정 및 평가함으로써 향후 역사공간 공공디자인 설계를 위한 토대를 마련한다.
공공디자인 표준 프로세스의 필요성에 관한 연구	2012	권수현	공공디자인 정책의 현황을 계획, 운영, 사후관리 3가지 측면에서 나누어 살펴보고, 해외사례 분석을 통해 현행 공공디자인 절차상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공공디자인 기능의 제도화 방안에 대한 연구:대전광역시 도시디자인 정책을 중심으로	2013	박완수	도시 전체 퀄리티를 제고하기 위한 디자인으로서 공공디자인의 새로운 요소와의 결합 필요성 제시 업계와 유통 문제를 접목하여 정책상의 발전을 제안한다.
지역 경관 특성을 반영한 공공디자인에 관한 연구:강원도 고성군을 사례로	2013	오상철	顾城郡의 지역 경관 특성에 관한 연구를 기초로 하여 자연경관 및 지역 고유의 경관에 대한 이해와 활용을 통해 지역 경관 특성을 반영한 지역통합적이고 차별화된 공공디자인 계획의 지속적인 운영 방안을 연구한다.

(계속)

[표2-9] (계속)

제목	발표 시기	연구자	연구 내용
시민 참여 기반의 공공디자인 정책 평가체계 개발 연구:디자인 역량 측정을 중심으로	2014	이양숙	공공디자인 정책의 지속가능한 디자인의 체계적인 평가 및 피드백 필요성을 제시하고 전문연구가의 토론을 통해 MECE 방법을 이용하여 평가 항목을 도출하고 평가 항목 간의 상관관계와 중요도를 분석함으로써 정책 평가체계 개선을 제안한다.
도시재생과 공공디자인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공공시설물 중심으로	2015	장갑록	도시재생과 공공디자인의 관련성을 분석하고 디자인으로부터 파생된 공공 요소를 도출하였으며, 공중과 환경을 토대로 한 디자인 개선이 도시재생을 한층 더 활성화하는 효과적인 수단임을 제시한다.
원도심 상권 활성화를 위한 공공디자인에 관한 연구:천안시 명동거리 일원을 중심으로	2016	최지훈	역사와 전통을 지닌 원도심의 문화자원을 유기적으로 결합함으로써 지역의 창의성을 활성화함과 동시에 종합적이고 통합적인 지역사업 추진과 공공디자인을 통한 원도심 상권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을 제시한다.

위 [표2-9]는 본 논문에서 살펴본 공공디자인 관련 선행연구 사례로, 상기 연구는 주로 공공디자인 정책과 공공디자인 방안 두 가지 측면에서 연구를 실시함으로써 공공디자인 정책의 지속가능성과 지역성을 제시하고, 현재 공공디자인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즉, 무분별한 공공디자인은 시민에게 시각적 공해를 유발하고 이는 본 논문의 연구 설계 방향에 참고 역할을 하였다.

2.4.2 공공시설물

[표2-10] 공공시설물 관련 선행연구

제목	발표 시기	연구자	연구 내용
가로시설물에 대한 공공물로서의 개념 정립과 디자인 요소의 추출	2006	홍상희	가로시설물을 도시가로 경관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보고 공공시설물의 시각에서 재해석하였다. 공공물품의 기본 특성 및 디자인 요소를 추출하여 향후 가로시설물 디자인 설계를 위한 기준을 확립한다.
도시 환경의 퍼블릭 인터머시를 위한 공공시설물 연구:한강 여의도 시민공원을 중심으로	2007	김근아	공공시설물의 기능은 편의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정성, 상호소통성, 복합성을 갖추어야 한다. 연구 내용에 따르면, 시설물의 디자인은 기능과 외관의 개선부터 시스템과 커뮤니티까지 통합적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도시가로환경 조성을 위한 가로시설물 디자인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디자인서울거리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2008	정여란	가로시설물이 지역 특색을 반영하고 있으며 지속가능성과 ‘디자인서울거리’의 기본요소를 결합하여 도시의 고유한 매력과 독특성이 문화적 지표와 경쟁력 제고의 중요한 요소가 됨을 제시한다.

(계속)

[표2-10] (계속)

제목	발표 시기	연구자	연구 내용
세계유산으로 등록된 한국의 문화유산내 공공시설물 가이드라인에 관한 연구	2010	조철희	문화유산을 토대로 공공시설물을 재분류하고, 평가 항목의 중요성, 만족도, 불만 요소에 대한 조사 및 분석을 통해 문화유산 내 공공시설물 재디자인 및 설치 원칙을 제시한다.
대도시 중심의 공공시설물 CMF(Color,Material,Finishing)적용 경향에 관한 연구	2011	박수진	공공시설물의 CMF 경향을 도출하여 공공시설물의 이용률을 높이고 공공시설물 디자인의 품질 문제를 해결하여 공공시설물의 최대 가치를 실현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가이드라인 제정에 이바지한다.
도시 테마문화 위주의 공공시설물 디자인 연구	2012	천자오귀 (陳照國)	현재 도시 공공시설물 조성 관련 문화성 부족 및 디자인 방향 등 문제를 대상으로 도시 테마문화를 중심으로 한 공공시설물 디자인 방안을 제시한다.
항만 친수공간의 공공시설물 디자인 지속가능방안 구축에 관한 연구	2014	류 림	지속가능한 발전의 원리, 항만 친수공간의 개념 및 공공시설물 조성 관련 내용을 종합하고, 지속가능방안 구축을 통해 항만 부근 주민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특히 젊은층이 느끼는 불편함을 최대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한다.
도시가로 재생을 위한 공공디자인 연구	2014	배장은	수원시 구시가지 상권 거리를 연구 대상으로 하여 공공디자인 사업을 분석하고 공공디자인의 기능성, 심미성, 창조성을 평가하고 이에 대한 주민의 만족도를 조사함으로써 새롭고 효과적인 공공디자인 방안을 제시한다.
고도 도시의 공공가로시설물 디자인 연구:고도 백제수도 '부여'를 중심으로	2014	김용성	부여시 고유의 독특한 특징을 토대로 도시 주민과 관광객에게 '역사문화도시'라는 인식을 전달하고 역사적 가치를 지닌 도시를 위한 가로 경관 개선 방향, 가로시설물을 위한 실제 디자인 계획방안, 차별화된 표현 활용 요소를 수립한다.
도시디자인을 고려한 공공시설물 개발에 관한 연구	2016	윤종영, 안혜신	하동 지역이 역사와 문화, 공공시설물 현황에 대한 조사와 분석을 토대로 문제점을 도출하고 지역의 문화적 가치를 반영한 체계적인 공공시설물 디자인방안을 개발함과 동시에 지속적이고 일관된 관리를 위한 디자인 개발 체계 및 관리 지침을 제안한다.
대전시 가로시설물 이미지 특성 분석에 관한 연구	2020	정예빈	각 도시가로에 맞는 적절한 이미지를 설정하여 도시이미지를 개선과 도시가로 계획을 위한 기본적인 데이터를 확보하여 구체적인 계획 및 양적 연구를 위한 데이터 토대를 마련한다.

[표2-10]은 본 논문의 공공시설물 관련 선행연구 사례다. 상기 연구는 주로 공공시설물 디자인 방법에 관한 논의를 실시하고 기능과 문화 측면의 중요성과 공공시설물의 효율적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위의 선행연구는 디자인 자체보다는 공공시설물의 문화적 가치에 중점을 두고 연구를 실시하였으며 이는 본 논문 연구의 주안점이기도 하다.

2.4.3 역사문화거리

[표2-11] 공공시설물 관련 선행연구

제목	발표 시기	연구자	연구 내용
역사문화거리의 계획방법 및 조성방안에 관한 연구:扶餘郡 扶餘邑 구드레 가로를 中心으로	2001	김경규	역사문화거리 조성에 관한 기존 이론 및 사례를 분석·종합하여 선정된 도시 및 거리에 디자인에 응용할 수 있는 체계성과 일반성을 지닌 이론 및 거리 조성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다.
도시 역사문화거리 공공시설물 디자인 연구	2009	후카이 (胡凱)	도시 역사문화거리 보호 및 재생 과정에서의 문제점에 대하여 지역성, 문화성, 지속성, 통합성 등 측면의 종합적인 논의를 실시하고 도시 역사문화거리 공공시설물 디자인 원칙 및 방법을 정리하였다.
역사문화미관지구 가로경관의 색채분석:수원 역사문화미관지구 행궁로를 중심으로	2013	서주환, 이옥근	수원 역사문화미관지구 행궁로에 관한 조사와 색채 데이터를 통해 가로경관의 색채 현황 및 관련 문제를 분석하고, 현대 역사문화거리의 가치 창조를 재인식하고 역사문화거리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고도 도시의 공공가로시설물 디자인 연구:고도 백제수도 '부여'를 중심으로	2014	김용성	고도 도시의 공공가로시설물에 관한 연구를 통해 부여시이 이미지와 도시공간 품격을 제고함으로써 도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공공가로시설물 디자인 방향을 제시하였다.
도시 역사문화거리 역사경관구역 공공시설물 디자인 연구	2015	천신 (陳欣)	역사문화거리 경관구역과 공공시설물 관련 연구 이론을 연구 토대로 하고, 현지조사를 통해 경관구역의 공공시설물 디자인 요소와 디자인 원칙, 방법 및 절차를 정리하였다.
전주 한옥마을 공공시설물 유형 디자인:전통적인 디자인 재해석을 중심으로	2015	채다운	전주 한옥마을 공공시설물의 유형과 현황을 토대로 형성가능성, 재료, 색상, 디자인개발 4가지 측면에서 전주 한옥마을 공공시설물 디자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지방도시 역사문화거리조성사업의 전국적 특성과 성공요인에 관한 연구	2015	유혜림	역사 및 문화 자원을 이용하여 국내 지방도시의 역사문화거리 조성 사업을 위한 전국적 재생 전략 특징 및 성공요인을 도출하고, 국내 도시부흥의 가능성을 검증 및 확인하는 데 연구 목적이 있다.
역사문화거리 활성화를 위한 통합 디자인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연구:난루오구상(南锣鼓巷)중심으로	2015	좌몽적	역사문화거리 브랜드 활성화를 위한 통합 디자인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제시하기 위하여 한국과 중국의 역사문화거리 3곳의 통합 디자인 정보시스템을 분석 및 연구하고, 베이징 난루오구상(南锣鼓巷) 거리의 디자인 방향을 제안하였다.
지역문화 정체성에 기초한 상하이 역사문화거리 공공시설물 디자인 연구	2017	등징 (董菁)	공공시설물의 기능과 효용을 종합하고 관련 디자인 분야의 지역문화 정체성에 대한 이해와 주요 활용방식을 파악함으로써 지역문화, 공공시설물, 역사문화거리 경관 3자 간 관계를 분석하였다.
고진(古鎭) 공공시설물 디자인 연구	2017	왕리밍 (王黎明)	고진(古鎭, 옛 마을) 문화 및 공공시설물 간의 상호관계와 요소 결합을 연구하고 설문조사를 통해 대표성을 지닌 문화요소를 선별한 다음, 인간공학 등 관련 이론을 활용하여 고진 공공시설물 디자인 프로세스 방법 및 원칙을 제시하였다.

(계속)

[표2-11] (계속)

제목	발표 시기	연구자	연구 내용
충청 역사문화거리 활력 요소로서 공공디자인에 관한 연구	2020	리리 (李黎)	역사문화를 중심으로 한 공공공간 보호 계획을 제시하고 역사와 문화를 활력 요소로 하여 공공디자인 시범거리 계획과 역사문화를 중심으로 한 관리·조직·촉진시스템을 제안하였다.
도시재생을 통한 가로계획 특성에 관한 연구:중국 역사문화거리 중심으로	2021	김명	상하이 '텐즈팡(타이강루 예술인단지)', 청두 '관자이샹즈(寬窄巷子, 서울 인사동거리와 유사)', 쑤저우 전통거리 '핑장루'를 대상으로 사례 분석을 실시하고 현대 도시재생 방법을 수립함으로써 역사문화거리의 재생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과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였다.

[표2-11]은 본 연구에서 살펴본 역사문화거리 관련 선행연구로, 공공시설물의 관점에서 거리의 활력을 높이고 역사문화거리 지역 브랜드 구축이 중점적으로 연구되었으며 도시재생과 역사문화거리 조성 모두 공공시설물 디자인이 필수적인 요소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공공시설물을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하고 디자인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일정 연구 의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위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공공시설물에 관한 연구는 주로 공공디자인 정책과 디자인 개선 방향 2가지 측면에서 진행되었다. 공공정책의 관점을 지닌 연구는 공공디자인 분야를 활성화하고 지방자치단체에 공공디자인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며 디자인의 관점을 토대로 한 연구는 다양한 디자인 요소 및 디자인 원칙에 입각하여 공공디자인의 수준과 도시의 문화경쟁력 제고를 위한 논의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채택한 만족도 평가 방법은 역사문화거리의 공공시설물에 대한 이용 후 평가(POE)에 대한 논의이며 디자인 특성 요소 측면에서 이용자의 선호도, 태도 등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하고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디자인학 관점에서의 만족도 조사를 연구의 기초로 삼고 있으며 이는 선행연구와 일치한다. 그러나 본 연구는 공공시설물이 속한 공간영역을 역사문화거리로 설정하여 한국과 중국의 사례를 비교연구함으로써 기존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및 학술적 의의를 확보하였다.

2.4.4 소결

공공디자인, 공공시설물, 역사문화거리, 평가방법 4가지 측면의 선행연구 토대로 본 연구는 역사문화거리 공공시설물 디자인 도입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공공디자인 도입 과정에 있어 역사문화거리와 공공디자인 간에는 상호의존, 상호침투,

상호영향의 변증관계가 성립된다. 공공디자인은 역사문화거리 발전과 전통문화 특색을 전승하는 하나의 담지체이며 역사문화거리는 공공디자인의 중요한 무대이자 원천이다.⁶⁸⁾ 공공디자인 역사문화거리 발전과 이미지 구축에 결정적 역할을 한다. 역사문화거리는 공공공간 조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며 공간 조성에 중요한 부분이 바로 공공디자인이다.⁶⁹⁾ 도시의 전체적인 이미지 측면에서 봤을 때, 개성 있는 공공디자인은 도시 발전의 중요한 상징으로, 도시의 특징과 이미지 발전에 큰 원동력이 된다.

공공시설물은 공공디자인 분야의 중요한 부분으로, 역사문화거리 조성에서 대체불가한 존재라고 할 수 있다. 역사문화거리는 도시에서 역사문화적 맥락을 가장 잘 전달할 수 있는 외부 공공장소로, 각기 다른 시기의 거리 특색을 사람들에게 선사하고 오늘날 사람들의 공동생활 장소다. 역사문화거리와 공공디자인은 통일과 대립, 서로 영향을 주는 변증관계를 이루는 만큼, 역사문화거리의 공공시설물 디자인 도입은 매우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첫째, 경제가 발전하면서 각 도시의 규모가 확대되고 있고, 세계적으로 표준화가 대두되면서 수많은 역사문화거리가 복원되거나, 개선되거나, 혹은 사라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단지 경제적 이윤의 최대화라는 목적으로 전통적인 역사문화거리를 역사문화 경관을 지닌 ‘상업거리’로 전략시킨다면 역사문화거리가 본래 지녀야 할 의미와 문화성의 발전을 저해하고 겉으로만 화려한 경관을 지닌 거리가 될 것이다. 또한, 일부 지역에서는 오로지 시선을 끌기 위한 목적만의 공공디자인도 많이 등장하고 있으며 사람들의 눈길을 끄는 데만 급급한 디자인은 역사문화거리의 원래 의미를 퇴색시킨다.⁷⁰⁾

둘째, 일부 역사문화거리는 해외 성공사례를 참고하면서 차별성이 없이 지역 특색을 잃어버리거나, 관련 정책 및 관리 제도의 부족한 점을 보이기도 한다. 역사문화거리를 단순한 물리적 공간으로 보거나 이용자 수요에 맞춘 수동적 태도는 역사문화거리에 마땅히 있어야 할 문화와 정신, 미적 가치를 구현하지 못한다. 따라서, 역사문화거리의 본래 의미와 가치에 부합하는 공공시설물 디자인의 기획 및 운영이 필요하다.

셋째, 공공시설물 디자인은 사람들의 공공장소에서의 행위에 영향을 준다. 도심 속 역사문화거리에서 사람들의 각종 활동은 공공시설물과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으며 이러한 활동은 사람들의 서로 다른 공공시설물에 대한 각기 다른 이용 수요를 발생시킨다. 출퇴근, 쇼핑 등 삶에 필수적인 활동이나, 산책, 관람 등 여가활동이나, 만남, 대

68) 诸海峰, “地域文化在城市公共环境设施设计中的应用:以桂林城市公共环境设施设计为例”. 艺术百家, vol.7, no.s1, 2010, pp.85-88.

69) 李腾腾, “中国城市公共空间的科学发展探讨”. 应用科技, vol.37, no.8, 2010, pp.65-67.

70) 彭红, 刘志强. “探析标新立异产品设计的创意”. 包装工程, vol.33, no.8, 2012, pp.108-111.

화 등 사회적 교류활동에 관계없이 모두 그에 상응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시설물을 통해 해당 활동이 원활하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따라서, 공공시설물은 역사문화거리에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요소이며 사람들의 각종 행위와 활동을 뒷받침하고 충족시킴으로써 역사문화거리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넷째, 공공시설물의 이미지는 역사문화거리의 이미지와 하나다. 제인 제이콥스(Jane Jacobs)의 『미국 대도시의 죽음과 삶』에서 “한 도시를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거리(street)다. 활력 있는 거리는 활력 있는 도시를 만들고, 답답한 거리는 곧 답답한 도시를 만든다”라고 언급했다.⁷¹⁾ 이는 공공시설물이 하나의 필수 요소로서 공공시설물 이미지의 좋고 나쁨은 이용자의 시각 및 인지에 결정적인 작용을 한다. 역사문화거리에서 외부환경으로부터 정보를 수용할 때 80%는 시각을 통해 인지된다. 공공시설물은 일정한 형태, 색채, 크기, 재질, 사람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통해 사람들에게 시각적 정보를 제공하는 가장 익숙한 수단이 되었다.⁷²⁾

역사문화거리는 사람들에게 한 도시의 경관을 가장 직관적으로 전달하는 경로이며 그 도시의 문화적 특징을 구현하고 사람들의 체험에 영향을 준다. 각 역사문화거리는 서로 다른 양식의 공공시설물 디자인을 통해 각기 다른 시대 및 환경에서의 문화 현상을 체현하기 때문에 세상 어디에도 똑같은 역사문화거리가 없기 때문에 공공시설물 시각 이미지 디자인이 중요하고, 이는 사람들의 아름다움에 대한 추구라고 할 수 있다.

역사문화거리의 위생시설, 휴게시설, 교통시설, 조명시설 등 공공시설물의 디자인, 수경시설 도입, 환경 조형물 등은 시민의 자긍심을 고양시키고 나아가 역사문화거리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불러일으킴으로써 자신이 속한 지역에 대한 자랑스러움 마음을 갖게 한다. 또한, 사람들에게 공공생활의 기회와 장소를 제공하며 도시 공동체 형성에 촉진제 역할을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역사문화거리는 시민에게 사회에 대한 공동의 관심과 배려를 갖게 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연결해 주는 중요한 매개체이자 외부와의 소통을 가능케 하는 공간이다. 무엇보다, 역사문화거리는 다른 보통의 개방된 도로와 달리 남녀노소 모두가 전통적 분위기 속에서 공유 공간과 문화적 의의를 찾고 자유롭고 평등한 분위기 속에서 일상 속 고민과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 이에 따라 역사문화거리 공공시설물 디자인의 중요성이 점점 더 대두되고 있으며 이는 곧 사회생활에 새로운 활력을 보충하고 가로환경 개선 및 도시이미지 구축에 이바지하는 길이 될 것이다.

71) (加拿大)雅各布斯著, 金衡山译, 美国大城市的消亡与生长, 译林出版社, 2006, p.26.

72) 张海林, 董雅. 城市空间元素公共环境设施设计. 中国建筑工业出版社, 2007, p.5.

제3장

한중 역사문화거리의 공공시설물 디자인 사례조사

3.1 서울 인사동 역사문화거리

3.2 경주 황남동 역사문화거리

3.3 전주 한옥마을 역사문화거리

3.4 베이징 대책란 역사문화거리

3.5 시안 연호 역사문화거리

3.6 항저우 청하방 역사문화거리

3.7 조사 대상 소결

제3장 한중 역사문화거리의 공공시설물 디자인

3.1 서울 인사동 역사문화거리

3.1.1 개요

인사동 역사문화거리(약칭 ‘인사동거리’)는 서울시 도심 내 위치하고 조선시대부터 도시의 중심지 역할을 하며 오늘날까지도 역사문화거리로 내려져 오고 있다. 인사동 일대는 동쪽의 삼일로, 서쪽의 우정국로, 북쪽의 율곡로, 남쪽의 종로와 맞붙어 있어 사방이 4개의 길로 둘러싸인 직사각형 모양을 하고 있으며 인사동거리는 안국동에서 인사동 교차로를 지나 종로2가 탑골공원까지 이르는 중심가이며 그 주변으로 수십 개의 골목길이 있다.

조선시대 시기 인사동은 한양(현재 서울)의 중요한 행정 및 상업지였으며 일제강점기 때에는 점차 서화, 도자기 등 골동품 판매를 위주로 하는 상업지구가 되었다. 이후 2000년대에 이르러 대대적인 개조 사업으로 일부 전통 한옥 건축물을 철거하면서 주민들의 강한 항의가 있었고, 2020년 한국 서울시 도시계획국이 인사동 ‘문화지구’ 관련 관리계획안 제정 및 발표되면서 인사동 지구 내 역사문화건축, 상점 등에 대한 통합 관리가 시작되었다. 해당 관리계획안은 인사동 지구의 공공 이미지를 제고하고 관련 디자인을 전체적 개선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현재 인사동은 도자기 공예품점, 찻집, 서점, 맛집 등 상점이 준비하는 한국의 대표적인 역사문화거리로 자리 잡았다. 인사동 거리는 전체적으로 예스러운 분위기의 골동품 가게와 현대적 스타일의 카페, 찻집 등이 공존하며 거리에 활력이 넘친다. 한국 전통문화 활동이 활발히 열리고 독특한 특색을 지닌 상점들로 인사동은 한국에서 가장 특색 있는 거리라고 할 수 있으며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이 가장 즐겨 찾는 대표적인 관광명소다.

인사동은 인사동 네거리를 중심으로 북인사동과 남인사동으로 나뉘는데, 북인사동은 전통적 아름다움이 느껴지는 물길과 돌로 만든 벤치로 작은 공원처럼 꾸민 반면, 남인사동은 북인사동에 비해 현대적 느낌이 강한 야외공연장을 조성하였다. 이와 동시에, 거리 바닥에 검은색 점토벽돌을 깔고 수경시설, 인사동 상징물, 8개의 열주나무기둥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전통문화 공간의 이미지를 표현하였다.⁷³⁾

73) 김진선. 인사동 전통문화거리의 관광안내도 디자인 연구. 2006.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p.26.

인사동 역사문화거리는 한국의 전통건축문화와 현대예술이 결합된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곳이다. 인사동 중심가의 건축물의 구조는 목조, 철근콘크리트조, 연와조 등이 있으며 층수는 대부분 3층 이상이며 공공시설물의 디자인은 볼라드 역할을 겸비한 돌로 만든 벤치, 배너걸이 조형물, 안내사인 등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모두 인사동의 전통미를 잘 표현하고 있다.

관련 정책 연구 중 「디자인서울 공공시설물 가이드라인」(2008)은 공공시설 개선을 위한 10가지 준칙을 제시하였다.⁷⁴⁾

1. 장식적 요소를 최소화하고 기능을 우선시하여 디자인한다.
2. 크기와 형태를 최적화하고, 연계 가능한 시설물 들을 통합한다.
3. 시각적, 심리적 개방감을 확보하도록 디자인하여 도시 경관의 연속성을 높인다.
4. 시설물의 도로 점유 면적을 최소화하여 보행 공간을 확대한다.
5. 무계획적인 색채 사용을 지양하고, 재료 자체의 색을 활용한다.
6. 친환경성과 내구성을 고려한 재료 사용으로 지속 가능한 디자인을 실현한다.
7. 누구나 안심하고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성과 인체공학을 고려하여 디자인한다.
8. 교통약자를 배려한 디자인으로 다양한 이용자의 편의성을 제고한다.
9. 단순성과 결합성을 바탕으로 표준화된 공공시설물 디자인을 우선 적용한다.
10. 시설물이 수직·수평을 유지하고 마감 부위를 깔끔하고 치밀하게 설치한다.

「서울상징색 적용 가이드라인」(2009) 내용에 따르면, 공공시설물 디자인 시 무채색 또는 중성색계열의 색상 사용이 권장되며 유채색의 사용은 강조 포인트가 될 수 있다. 금지된 또는 안전 시설물에 사용하는 색상은 전면 또는 부분적으로 상징색을 사용할 수 있다. 관광안내소, 조형물 등 상징성이 강한 요소는 전부 또는 일부에 상징색을 사용하되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고려해야 한다. 이 외에도, 해당 가이드라인은 색채 사용에 대한 기본적인 방침을 제시하고 있다.⁷⁵⁾

1. 서울상징색의 경우 주거지 주변에 사용은 지양하며 업무지에 사용 시 부분적으로 사용하고, 상업지와 특성가로외의 경우 가이드라인에 따라 다양한 사용이 가능하다.
2. 유채색계열의 서울색 사용 시 포인트로 느껴지게 사용하도록 유도한다.
3. 응급 및 위험시설(물)에 상징색을 전면 사용할 수 있으나 중성색(뉴트럴 컬러)계열 또는 무채색의 자극적이지 않고 은은하게 보여질 수 있는 색의 사용을 권장한다.

74) 서울시 총괄본부, 디자인 서울 공공시설물 가이드라인, 2008, p.152.

75) 서울시 총괄본부, 서울상징색 적용 가이드라인, 2009, p.72.

4. 서울을 상징하거나 기념비적 성격이 강한 요소와 계획적인 색채시스템에 의한 활용 시 전면 또는 부분적으로 상징색 적용이 가능하다.
5. 동일조화, 유사조화 등 배색조화를 고려하고 참고배색의 사용을 권장한다.
6. 특화된 공간 또는 이벤트 사업에 상징색 적용 시 자유로운 색채활용이 가능하니 서울디자인위원회 심의(자문)를 거쳐야 한다.



[표3-1] 인사동 역사문화거리 현황

위치		서울시 인사동	
위치 지도		이미지	

출처: 구글 지도(재정리), <https://www.google.com/maps>



3.1.2 공공시설물디자인 사례

[표3-2] 정보시설물



	<p>관광안내소 A</p> <p>북인사동 관광안내소는 벽돌을 사용하여 만들었으며 현대식 조형과 무채색 계열을 채택하여 재료 본연의 색상을 구현하였다.</p>
	<p>관광안내소 B</p> <p>남인사동 관광안내소는 주로 스테인리스와 유리 재질을 사용하였는데, 유리를 통해 시각적으로 경관이 더 넓어 보이는 개방감을 부여했다. 또한, 관광안내소 창구 위 쪽에는 훈민정음의 내용이 담긴 한지를 붙여 전통적인 요소를 구현하고 있다.</p>

(계속)



[표3-2] (계속)

	<p style="text-align: center;">안내사인 A</p> <p>안내사인은 주로 방향 안내 기능을 지니고 있으며 편의, 안전 질서, 효율을 높여 사람들이 해당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읽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특히 은행노란색과 갈색을 사용하여 가독성을 높임으로써 읽기에 편하도록 디자인하였다.</p>
	<p style="text-align: center;">안내사인 B</p> <p>안내사인은 주로 채도가 낮은 색상을 사용하되 채도가 높은 색상으로 포인트를 줌으로써 식별성과 가독성을 높였으며 재료는 친환경적인 목재를 사용하였다.</p>

[표3-3] 위생시설물


	<p style="text-align: center;">화장실</p> <p>화장실은 단독으로 지하에 설치되어 있으며 지상에는 입구만 설치되어 있다. 입구 조형은 투명한 재료를 사용하고 철계를 사용하여 다른 건물이나 시설물과 구별되기 때문에 쉽게 찾을 수 있었다. 화장실 표시는 입구 양쪽에 비석과 사인물로 표시해 두었다.</p>
	<p style="text-align: center;">휴지통</p> <p>휴지통은 각각 두 가지 서로 다른 쓰레기를 버릴 수 있도록 하여 분리수거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휴지통의 색은 저명도색을 사용하여 주변 자연환경과 어울리도록 하였다. 간단한 박스 모양으로 하여 역사문화 특징이 나타나지는 않지만 쓰레기를 버리는 곳이 깔끔해 보이도록 하였다.</p>

[표3-4] 휴게시설물




	<p style="text-align: center;">벤치A</p> <p>벤치는 주요 도로 양측에 설치되어 있으며 사람들이 휴식을 취하기에 편리하다. 주로 석재를 사용하였으며 형태가 간결하고 관리가 용이하다. 그림 속 벤치는 나무와 풀을 보호하는 울타리 역할도 하는 등 여러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벤치B</p> <p>직사각형 모양에 석재를 사용하였으며 일부 의자 위에는 인사동의 유래 등을 문자로 새겨 넣었다. 단, 각이 진 모서리는 안전상 위험할 수 있다.</p>

(계속)



[표3-4] (계속)

	<p style="text-align: center;">파고라</p> <p>파고라는 휴게지역에 설치되어 있고, 주로 전통양식을 띠고 있다. 친환경적인 목재를 사용하였으며 지역적 특색이 뚜렷하고 주위환경과도 잘 어울린다. 파고라는 이 용자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비를 피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기도 한다.</p>
---	---



[표3-5] 보행시설물

	<p style="text-align: center;">펜스</p> <p>펜스는 형태가 간결하고 명도와 순도가 낮은 색채를 사용하여 시각적 자극이 덜하다. 기능적 측면에 있어서는 차도와 보행로를 분리시켜 사고를 예방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볼라드</p> <p>볼라드는 마모와 부식에 내구성이 강한 석재를 사용하였으며 보행자를 위한 안전구역 확보하는 역할을 한다. 볼라드는 비록 높이는 낮으나 차량과 보행자의 안전을 모두 보호하는 기능을 하며 특히 보행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차량의 출입 및 통행을 막는 시설이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정류장</p> <p>버스정류장의 조형은 간결하고 불필요한 장식이 없으며 기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였다. 주로 강재와 유리를 사용하였으며 시각적으로 개방감을 준다.</p>

[표3-6] 관리시설물

	<p style="text-align: center;">맨홀뚜껑A</p> <p>도안이 없는 맨홀뚜껑이다. 종류에 관계없이 두 가지 모두 기능적으로 안전과 사용 수요를 충족하고 있으며 맨홀뚜껑은 한번 설치되면 수십 년 이상 유지되는 시설로 일상생활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시설물 중 하나이다.</p>
	<p style="text-align: center;">맨홀뚜껑B</p> <p>전통문양이나 도안이 있는 맨홀뚜껑이다. 기능성과 지속가능성을 갖추고 있다.</p>

[표3-7] 조명시설물

	<p style="text-align: center;">가로등A</p> <p>가로등은 지역적 특색을 지니고 있으며 색채에 통일감이 있다. 가로등은 나무 재질을 사용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가로등B</p> <p>금속 재질과 중성색을 사용하여 시각적 자극 없이 편안하다.</p>

위로부터 알 수 있듯이, 인사동 역사문화거리의 벤치와 불라드는 재료 측면에서 석재를 사용하고 있으며 색채 측면에서 보면 안내사인, 파고라, 맨홀 간 조화를 이루고 있다. 한편, 관광안내소는 통일되고 조화로운 형태와 색채를 사용하였다.

3.2 경주 황남동 역사문화거리

3.2.1 개요

황남동 역사문화거리(일명 ‘황리단길’)는 한국 경주시에 위치해있다. 경주는 유명한 역사 문화도시로 신라시대부터 지금까지 천년의 유구한 역사를 지니고 있으며 왕릉, 석탑, 불상, 절 등 역사유적이 비교적 완전한 상태로 유지되고 있다. 경주 황남동 역사문화거리는 이러한 경주의 대표적인 관광명소로, 주로 황리단길과 그 주변 일대를 일컫는다. 황남동 역사문화거리가 있는 황남동 일대는 역사문화유적지가 많이 남아 있는 경주시 동부에 위치한다. 경주시 황남동 내삼사거리부터 첨성대에 이르는 길과 대릉원, 첨성대 주변지역은 모두 경주시 도심에 속하며 현대적 생활과 문화가 공존하는 경주의 대표적인 지역이다. 따라서, 황남동 역사문화거리는 사람들이 신라시대 천년 고도의 역사를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중요한 역사문화지역이다. 황남동 역사문화거리의 상권은 주로 식당, 카페, 디저트 가게, 서점, 한옥 체험 등 다양한 상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문화유산 보존 및 공공시설물 설치를 위해 경주시는 크게 4차례의 유지 및 관리작업을 실시하였다. 1962년 「문화재보호법」과 「도시계획법」이 발표됨에 따라 일부 문화유산에 대한 유지 및 보수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이후 경주시 유적지 관리는 단순한 복원 또는 보존 차원이 아닌 여행 및 관광 측면을 고려한 종합적인 개념으로 발전하였으며 1977년에는 역사유적에 대한 전반적인 보수와 관리를 통해 기초 공공시설을 개선하였다. 이후 2002년에는 토지 매입, 건축물 철거 등을 통해 역사문화유산을 보존함과 동시에 보다 광역적이고 복합적인 역사문화도시를 조성하기 시작했다. 2006년부터는 새로운 사업 계획을 제정하여 신라왕궁 복원, 기초인프라시설 개선 등을 실시하였으며 황남동 역사문화거리 조성에 있어 정보시설물, 휴게시설물, 보행시설물 등 공공시설물 개선을 추진하였다. 관련 정책 연구 중 「경주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및 표준디자인」(2021)에서 제시한 경주시의 색채체계는 총 2가지로, 경주상징색과 경주 어울림색으로 구분하여 사용한다. 상징8색은 금관 금색, 화랑 적색, 삼국 흑색, 첨성 자색, 서라벌 황색, 동해 청색, 불국 홍색, 남산 녹색이며 어울림색은 경주상징색과 함께 도시환경에 적용할 일정한 색상으로 명도 채도군을 선정하여 주조색, 보조색으로 사용한다. 또한, 해당 가이드라인은 공공시설물의 7대 원칙도 제시하고 있다.⁷⁶⁾

1. 주변 환경과 조화로운 디자인. 경주의 특성에 맞추어 지역별로 주변 환경과 조화로운 시설물 수립.
2. 유지관리와 마감이 좋은 디자인. 시설물과 지면의 연결 부분을 깔끔히 처리하여 심미성 극대화.
3. 시설물 간의 유기적인 연계와 일관성 있는 디자인. 같은 공간 내에 시설물의 형태와 색채 계획을 통합하여 정체성이 형성된 일관된 시설물 지향.
4. 모두에게 장애 없는 유니버설 디자인. 시설물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에게 장애가 없도록 안전성과 편의성을 고려한 시설물 디자인.
5. 시각적 개방감과 보행자 장애요소의 최소화. 보행에 방해되는 과도한 규모 및 배치를 지양하여 보행자 장애요소의 최소화
6. 기능성의 통합으로 비우는 디자인. 폭이 일정치 않은 현황을 고려하여 시설물의 통합으로 공간활용이 용이하도록 수립
7. 재활용 가능한 친환경 소재 사용. 자연 소재를 그대로 사용하거나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여 자연과 조화되는 디자인 권장.

76) 경주시, 경주시 공공디자인가이드라인 및 표준디자인, 2021, p.189.

이 외에도, 공공시설물의 재료 측면에서 천연 및 친환경 재료의 사용과 시각적 공해를 방지하기 위해 저명도, 저채도 색채의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사용 재료 자체의 색상 사용 권장하고 페인트 도장을 지양하되, 페인트 도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소한으로 사용한다. 그중, 관광안내소는 지역의 특징과 경관 등을 살린 디자인을 사용하되 과도한 장식이나 색채 사용은 피한다. 공공화장실은 친환경 재료를 사용하고 주위 환경과 서로 조화를 이루는 색상과 석재, 점토, 목재 등 재료 고유의 이미지를 살려서 사용한다. 맨홀뚜껑 위에는 지역의 자원 및 이야기 줄거리를 서로 결합한 특색 있는 형태와 일관성 있는 디자인을 사용하여 통일성을 유지할 수 있다.



[표3-8] 황남동 역사문화거리 현황

위치	경주시 황남동	
위치 지도		
	이미지	

출처: 구글 지도(재정리)


3.2.2 공공시설물디자인 사례

[표3-9] 정보시설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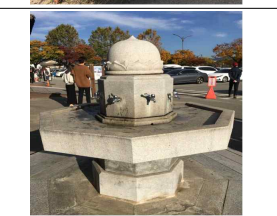
	<p>관광안내소</p> <p>황남동 역사문화거리의 관광안내소로 전통건축 양식을 띠고 있으며 지역성을 잘 드러나 있다. 관광안내소는 관광객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을 한다.</p>
	<p>안내사인 A</p> <p>황남동 역사문화거리의 안내사인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 외에도 전체적인 디자인에 있어 형태, 색상, 재질의 통일성을 고려하였으며 불필요한 부분을 생략하고 거리의 특징을 최대한 살려 거리 환경에 부합하면서도 미관을 살렸다.</p>

(계속)



[표3-9] (계속)

	<p style="text-align: center;">안내사인 B</p> <p>안내사인은 금속 재질을 사용하였으며 직사각형 조형이다. 보행자의 동선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길가에 설치되었다.</p>
---	---

[표3-10] 위생시설물


	<p style="text-align: center;">화장실</p> <p>화장실은 전통건축 양식을 띠고 있지만, 양식과 색채 간 통일성이 없다. 그러나 위치상으로는 곳곳에 골고루 설치되어 있어 사람들이 언제 어디서든 쉽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생 상태가 깨끗하고 각기 다른 집단의 사용 수요를 고려하였다.</p>
	<p style="text-align: center;">휴지통</p> <p>휴지통은 조형이 간결하고 통행을 방해하지 않은 선에서 쓰레기를 모으고 관리하기 편하도록 디자인되었다. 휴지통은 보통 야외에 설치되어 있으며 가장 많이 사용되는 시설물 중 하나로, 안전과 청결을 유지해야 하며 주위환경과의 조화도 잘 고려해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음수대</p> <p>음수대는 석재를 사용하여 내구성을 높였으며 조형이 아름답고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기에 적합한 디자인을 지니고 있다. 또한, 사람들이 접근하기 쉬우면서도 배수시설을 배치하기에 적합한 곳에 설치되어 있다.</p>

[표3-11] 휴게시설물

	<p style="text-align: center;">벤치A</p> <p>벤치는 조형이 지역 특색의 형태이며 목재를 사용하여 친환경성이 뛰어나다. 휴게 구역과 보행로 주변 곳곳에 설치되어 거리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충분한 휴식공간을 제공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벤치B</p> <p>동그란 형태로 가운데의 나무를 보호하는 일종의 펜스 역할을 하며 나무 재질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주위환경과 잘 어울린다.</p>

(계속)



[표3-11] (계속)

	<p style="text-align: center;">파고라</p> <p>파고라는 휴게구역에 설치되어 있으며 사람들에게 휴식과 교류의 장을 제공한다. 전체적인 환경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p>
---	--



[표3-12] 보행시설물

	<p style="text-align: center;">펜스A</p> <p>펜스는 금색에 무채색을 조합하여 주위의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였으며 도안에 지역성의 특징을 반영하였다.</p>
	<p style="text-align: center;">펜스B</p> <p>펜스는 초록색으로 주변의 자연환경과 잘 어울리며 보행자에게 시각적으로 쾌적한 느낌을 주고, 안전성과 기능성이 강조되어 가로경관 및 환경의 통합성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준다.</p>
	<p style="text-align: center;">볼라드A</p> <p>볼라드는 주로 친환경적인 목재를 사용하였으며 색채상으로는 채도가 낮은 색상에 경고 기능을 위하여 채도가 높은 색상으로 포인트를 줌으로써 보호 및 경고의 기능을 구현하였다.</p>
	<p style="text-align: center;">볼라드B</p> <p>볼라드는 주로 보행로와 차도를 분리하는 기능을 하며 교통안전과 보행자의 안전을 효과적으로 보호한다. 특히 석재를 사용하여 구조적 안정감과 시각적 편안함으 최대화하였으며 채도가 낮은 색상을 사용하여 시각적으로도 안정감을 구현하였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정류장</p> <p>버스정류장은 조형상 전체적인 구조가 안전하고 지역성을 구현하고 있다. 버스정류장은 사람들이 버스를 기다리고 휴식을 취하는 공간으로, 사람들이 안전하게 외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측면을 두루 고려하여 디자인해야 한다.</p>

[표3-13] 관리시설물

	<p style="text-align: center;">맨홀뚜껑A</p>
	<p>맨홀뚜껑은 안전을 보호하는 기능을 하며 장기간 사용되는 공공시설물이기 때문에 그 기능과 위치에 따라 형태가 다르며 디자인의 조화성을 잘 고려해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맨홀뚜껑B</p>
	<p>조형이 간결하고 사용기능을 충족하고 있지만, 통합성이 부족하고 지면의 색상과 잘 어울리지 않는 단점이 있다.</p>

[표3-14] 조명시설물

	<p style="text-align: center;">가로등A</p>
	<p>가로등은 낮에도 가로환경을 미화하는 기능을 하며 특색 있는 가로등 디자인은 가로환경의 전체적인 이미지를 향상하는 데 도움을 준다.</p>
	<p style="text-align: center;">가로등B</p>
	<p>삼국 흑색을 사용하였으며 명도가 낮은 색을 매치하여 포인트를 주었다. 전체적으로 통합성과 조화성, 통일성이 뛰어나다.</p>

위로부터 알 수 있듯이, 황남동 역사문화거리의 관광안내소, 화장실, 버스정류장은 전통 건축 양식을 채택하여 지역의 특징을 잘 살렸으며 벤치는 주로 나무 재질을 사용하여 재료의 친환경성을 구현하였다. 그러나 휴지통은 디자인이 다소 조악해 보이고 조형과 색채가 그다지 적절하지 못했다.

3.3 전주 한옥마을 역사문화거리

3.3.1 개요

전주 한옥마을은 한국에서 유일하게 완전한 상태로 보존된 한옥촌으로, 약 800개의 한옥집으로 이루어져 있다. 한옥촌의 정확한 유래에 관한 정확한 역사 기록은 없지만, 한옥촌 내 전통교육기관인 향교가 1603년에 지금의 위치로 옮겨졌다는 기록을 토대로 하면 한옥촌이 형성 및 존재했던 시기를 대략적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전주 한옥마을 역사문화거리는 전주시 완산구 교동, 풍남동 일대에 위치해 있으며 일반적으로 전주 부성(府城) 동문과 남문 밖의 지역, 전주천 북쪽의 마을을 가리킨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전주의 주요 간선도로인 팔달로의 동쪽, 기린대로의 서쪽, 동문이 있는 동문거리의 남쪽, 전주천의 북쪽에 위치한 구역이다. 이곳은 조선시대 때부터 근현대에 이르기까지 곳곳에 역사적 정취가 묻어 있는 도심부 한옥마을이자 실제로 주민들이 살고 있는 주거지역이기도 하다. 한옥마을은 전통예술과 생활문화가 현대도시에 공존하고 있는 가장 큰 규모의 한옥마을로, 그 가치가 매우 높으며 매년 500만 명이 넘는 국내외 관광객이 찾는 전주의 가장 대표적인 관광명소다.⁷⁷⁾

전주 한옥마을 역사문화거리는 주로 문화 전시, 체험, 지역 명물 맛집 등 다양한 문화 콘텐츠가 있으며 한국의 전통 한옥마을의 가장 대표적인 예이자 유일하게 전통 건축물의 형태와 구조, 골목길 등이 모두 매우 양호한 상태로 보존되어 있는 곳이기도 하다. 2000년 전주시 완산구 교동은 풍남동 3가 일대의 전통문화지구를 ‘지역단위계획구’로 지정하고 「전통문화지구·지역단위계획」을 제정하였으며 이후 한옥마을의 보존, 정비 사업 추진 현황을 고려하여 2006년 「전통문화지구·지역단위계획보안」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해당 보고서는 보행로 개선 사업을 강조하였으며 중심가(태조로, 은행로), 테마관광로, 민속길, 흙담길 등 도로의 너비, 건축물 및 부속 건축물 등의 정비 방향을 제시하고, 공공시설물 보완, 휴게지역 및 주차장 확충, 전통공예품 전시관 등 설립 등 추진 사업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정비사업 추진으로 전주 한옥마을 역사문화거리는 한옥생활체험관, 전통주박물관, 공예전시관, 공예공방촌, 최명희문학관, 관광안내소, 주차장 등 시설이 설립되었다.

관련 정책 연구 중 「전주시 도시디자인 가이드라인」(2009)을 보면, 공공건축물은

77) 이병천, 채병선, 최상철. 전주한옥마을. 대원사, 2013, pp.17-24.

전주의 도시 정체성을 기초로 창의적으로 디자인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과도한 상징적 표현을 자제하고 가로등, 맨홀뚜껑, 소화전, 휴지통 등 공공시설물에 불필요한 장식은 최소화하며 시민의 안전과 주위 환경과의 조화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전주시 공공시설물 간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추구하고 통일된 디자인을 구현하되, 각기 다른 지역의 특징 및 정체성에 맞게 디자인해야 한다.

「전주시 도시디자인 기본계획」(2016)에 따르면, 공공시설물의 디자인은 기능과 편의성을 추구하고 주위 환경과 어울리지 않는 장식은 최대한 줄여야 한다. 시설 간 통합과 연결을 추구하고 효율과 기능을 고려하고 각 지역 및 지역의 통합성을 강화해야 한다.


[표3-15] 전주 한옥마을 역사문화거리 현황

위치		전주시 풍남동	
위치 지도		이미지	

출처: 구글 지도(재정리), <https://image.baidu.com>



3.3.2 공공시설물디자인 사례

[표3-16] 정보시설물




관광안내소	
	관광안내소는 거리 입구에 위치해 있어 접근성이 좋고 방문이 편리하여 관광객에게 안내 및 각종 정보를 제공하기에 수월하다. 또한, 전통건축 양식을 띠고 있으며 전체적인 가로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

(계속)


[표3-16] (계속)

	<p style="text-align: center;">안내사인 A</p> <p>안내사인은 안내지도, 역사문화거리의 기본정보 소개 등 기능을 함으로써 사람들이 거리에 대한 정보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안내사인은 색채와 재질에 있어 비교적 통일성이 있으며 전체적으로 조형이 간결하고 구조가 안정적이다. 또한, 불필요한 장식 없이 미관상으로도 훌륭하다.</p>
	<p style="text-align: center;">안내사인 B</p> <p>안내사인은 전통한옥 조형 요소를 사용하여 디자인하였으며 재료는 목재를 사용하여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시각적 공해를 방지하였다.</p>

[표3-17] 위생시설물




	<p style="text-align: center;">화장실</p> <p>화장실은 전통한옥 양식을 테마로 하고 있으며 사람들이 찾기 쉬운 곳에 위치하여 보행자의 기본적인 수요를 충분히 만족시키고 있다. 외관과 주위환경이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있어 역사문화거리의 전체적인 환경과 미관과 잘 어울린다.</p>
	<p style="text-align: center;">휴지통</p> <p>휴지통은 외관 조형에 나무 재질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친환경적이지만 기능성과 관리의 용이성이 다소 떨어져 보인다. 또한, 전체적으로 지저분해 보이며 이용자에게 불쾌감을 유발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음수대</p> <p>음수대는 사람들이 물을 마시기 편하게 디자인되어 있으며 사람들이 모이는 공공장소에 설치되어 있다. 디자인이 심플하고 미관이 뛰어나며 석재가 주로 사용되어 튼튼하고 안정된 구조를 지니고 있다.</p>

[표3-18] 휴게시설물




	<p style="text-align: center;">벤치A</p> <p>벤치는 적절한 위치에 충분히 놓여 있으며 주로 친환경적인 석재를 사용하여 이용자의 선호도가 높다. 또한, 다양한 조형 형식을 토해 각기 다른 집단의 사용 수요를 충족시키고 있다.</p>
---	--

(계속)

[표3-18] (계속)



	<p style="text-align: center;">벤치B</p> <p>내구성이 좋은 석재를 사용하였으며 색채는 중성색 계열이다. 단, 각이 진 모서리가 안전상 매우 위험해 보인다.</p>
	<p style="text-align: center;">파고라A</p> <p>파고라는 거리의 중심지역에 설치되어 있으며 전통적인 목조 양식을 띠고 있다. 사람들이 휴식과 놀이를 즐기거나 다른 사람을 기다리는 장소이기 때문에 사용에 있어 편안함이 매우 중요하며 디자인에 쾌적성과 접근 용이성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파고라B</p> <p>파고라는 거리의 주요 골목 입구에 설치되어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양식의 통합성과 가로환경과의 조화성이 뛰어나다.</p>

[표3-19] 보행시설물



	<p style="text-align: center;">펜스A</p> <p>펜스는 보행로와 자전거 도로를 분리하고 보행자가 다치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을 한다. 두 가지 펜스는 유사한 색채를 사용하고 있으며 조형 측면을 봤을 때 펜스는 기하학적 도형의 디자인에 뒷면의 벽과 통일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 특징이다.</p>
	<p style="text-align: center;">펜스B</p> <p>펜스는 원기둥 모양이 디자인에 줄을 매치한 독특한 디자인을 사용하고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볼라드A</p> <p>구(球)형에 석재를 사용하여 안전성을 확보하였으며 관리가 용이하다.</p>

(계속)



[표3-19] (계속)

	<p style="text-align: center;">블라드B</p> <p>블라드는 석재를 사용하였으며 지면의 재질과 색채가 조화를 이루고 기능성과 안전성을 지니고 있다. 블라드는 지역적 특색이 돋보이며 벤치의 기능도 수행하고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정류장</p> <p>정류장은 조형상 미관이 뛰어나고 기능도 잘 갖추어져 있어 사람들이 버스를 기다리거나 휴식을 취하는 공간으로 적합하고 버스 이용을 편리하게 한다. 정류장은 역사문화거리 환경의 중요한 부분으로서 사람들이 거리에 대한 이미지를 결정하는 장소이기도 하다.</p>

[표3-20] 관리시설물

	<p style="text-align: center;">맨홀뚜껑A</p> <p>맨홀뚜껑은 사각형과 원형으로 모두 안전 보호 기능을 지니고 있다. 맨홀뚜껑은 지면에 설치된 시설물로,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과정에서 자주 사용하게 되며 지역적 특색을 지닌 맨홀뚜껑 디자인은 거리의 전체적인 이미지를 높여주는 역할을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맨홀뚜껑B</p> <p>원형으로 안전성이 뛰어나고 사용과 관리가 용이하다.</p>

[표3-21] 조명시설물

	<p style="text-align: center;">가로등A</p> <p>가로등은 전체적인 양식과 색채가 통일되어 있으며 조형상 차이가 있지만, 모두 심미성을 갖추고 있고 거리에 조명을 제공하여 사람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가로등B</p> <p>현대식 조형으로 불필요한 장식을 줄이고 기능을 우선시하였으며 중성색 바탕색에 유채색으로 포인트를 주었다. 조화성과 통일성이 뛰어나다.</p>

위의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전주 한옥마을 역사문화거리는 파고라와 화장실이 비교적 충분히 설치되어 있으며 모두 전통건축 양식을 띠고 있어 통일성을 지닌다. 벤치와 블라드는 석재를 사용하였으며 각기 형태는 다르지만 모두 좋은 내구성을 지니고 있다. 이와는 달리, 휴지통 관리 및 사용 상태는 기타 시설물에 비해 낡고 미관이 좋지 않았다.

3.4 베이징 대책란 역사문화거리

3.4.1 개요

대책란(大柵欄, 파스란) 역사문화거리는 중국 베이징에 전문(前門) 밖에 위치해 있으며 오늘날에도 여전히 베이징에서 가장 변화한 상업거리 중 한 곳이다. 대책란 역사문화거리는 베이징의 중심부에 위치하여 베이징 남부 중심축을 중요한 구성부분이 된다. 동쪽으로는, 전문대가(前門大街)와 동성구(東城區) 전문가도(前門街道), 남쪽으로는 주시구대가(珠市口西大街)와 천교가도(天橋街道), 서쪽으로는 남신화가(南新華街)와 춘수가도(椿樹街道), 북쪽으로는 전문시대가(前門西大街)와 서장안가가도(西長安街街道)와 맞닿아 있다. 관찰구역은 동서로 1.2km, 남북으로는 최대 1.3km 거리로, 총 면적은 1.3km²이다. 대책란은 원나라 때 생겨나 명나라 때 그 틀을 갖추게 되었으며 청나라 때 번성하여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1900년 의화단이 거리 전체에 불을 질러 소실되었으나, 4차례 복원 사업이 진행되었다. 1960년대 대책란 첫 정비사업 때 베이징 내 최초 아스팔트 도로가 이곳에 지어졌으며 1980년대 베이징 쉐먼구(宣武區) 정부가 출범하면서 대책란 상업거리에 대한 전체적인 개조 사업이 추진되고 대규모 자금이 투입되면서 대책란 보행로는 대책란 고유의 전통적상업특색을 최대한 살려 복원되었으며 역사 속 본래의 모습을 그대로 보존 및 유지하게 되었다. 1990년대 말, 대책란 거리는 ‘베이징 최고의 보행로’로 선정되기 위하여 3차 노면 및 환경 정비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토해 대책란의 가로 환경은 크게 개선되었다. 이후 2007년 대책란은 4차 정비 사업을 거쳐 거리 내 건축물을 문화재 복원, 보존 및 수리, 경관 미화, 개조 및 정비 4개 유형으로 나누어 보수 및 정비하였으며 이때 복원된 건축물을 구체적으로 보면, 문화재 복원 4곳[선성후(宣誠厚), 서부상(瑞蚨祥) 등], 보존 및 수리 12곳[구불리(狗不理), 서부상홍기(瑞蚨祥鴻記), 광덕루극원(廣德樓戲院), 보영재(步瀛齋), 장일원(張一元) 찻집, 동인당(同仁堂) 약방 등], 경관 미화 18곳[베이징 대책란 공예미술품

점, 상하이 장소천(張小泉) 가위전문점 등], 개조 및 정비 9곳[대책란일백(大柵欄一百), 수도사진안경전문점 등]으로, 중화민국 초기 대책란 거리의 모습을 복원하여 각종 상점이 즐비한 상업거리를 조성하였다.

현재 대책란 역사문화거리 내에는 11개 업종의 36개 상점이 있으며 평균 방문객은 15~16만 명으로 공휴일에는 2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곳을 찾는다. 수백 년 역사를 지닌 오래된 상업거리인 대책란 역사문화거리에는 중국 국내외 유명한 노자호(老字號, 중국 정부 인증 전통기업) 상점들도 여러 곳 포함되어 있으며 전통약방인 동인당(同仁堂), 비단을 파는 서부상(瑞蚨祥), 모자 가게인 마취원(馬聚源), 형끓신을 파는 내연승(內聯升), 장일원(張一元) 찻집, 장아찌 전문점인 육필거(六必居)가 있다. 이 외에도 일품재(一品齋), 보영재(步瀛齋), 취순화(聚順和), 장승괴(長乘魁) 등 노자호 가게들이 있다. 또한, 앞서 소개한 상점들 외에도 대책란은 옛 베이징의 오락문화 중심지로, 역사적으로 유명한 대희루(大戲樓) 5곳[경락원(慶樂園), 삼경원(三慶園), 광덕루(廣德樓), 광화원(廣和園), 동락원(同樂園)]이 있으며 베이징 최초의 영화관인 대관루(大觀樓) 역시 이곳 대책란 역사문화거리에 있다.

대책란 역사문화거리는 양측 건축물은 모두 통일된 양식과 색조를 지니고 있는데, 예스럽고 전통적이며 대책란 고유의 전통상업거리 특색을 최대한 살렸다. 빨간색 창문에 예전 베이징식 진회색 기와를 사용하고 있으며 들쭉날쭉하면서도 질서정연하고 중국의 전통건축 양식을 잘 드러내고 있다. 신축 건물은 일괄적으로 주홍색 창문 간판과 청기와, 진회색 기와, 하얀색 선으로 벽을 장식하여 전통미를 살렸으며 사용된 간판 역시 같은 규격을 따르고 있다. 대책란 역사문화거리는 사람들이 운집하는 보행로로서 거리 안으로는 자동차, 오토바이, 자동차의 진입이 모두 금지되며 입구에 볼라드를 설치하여 거리 안 보행자의 안전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있다.

관련 정책 연구 중 「베이징 역사문화거리 경관 보호 및 재생 디자인 가이드라인」(2019)에 따르면, 거리의 전체적인 색채는 청회색 위주로 하되 금색, 적색, 녹색 등 색채로 포인트를 줄 수 있으며 이는 베이징시의 옛 시가지 지역 특유의 양식이자 기본 색이다. 해당 가이드라인에서는 역사문화거리 내 현대식 시설물의 설치를 장려하되 디자인 방안에 있어서는 전통 경관을 유지하고 가로환경의 공간적 특징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그중 거리나 골목 내 설치된 가로등의 기둥과 등은 통일된 디자인을 사용하고 그 양식, 색채, 재료 등 역시 거리의 전통적인 경관과 조화를 이루고 전체적인 양식이 간결하고 소박해야 한다.

「베이징시 도시 가로공공시설물 설치 및 관리 규범」(2016)에서도 시설물과 역사

문화 경관 간 조화를 언급하였으며 디자인에 있어 동일한 지역, 도로의 동일한 유형의 시설물은 양식, 재료, 색채가 서로 통일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시설물은 거리 내 이용자들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고 식별하기 쉽게 디자인해야 하며 시설물의 재료는 견고하고 내구성이 강하며 친환경적이고 부식이 잘 되지 않아 유지 및 보수에 용이해야 한다.

[표3-22] 대책란 역사문화거리 현황



위치	베이징시(北京市)시청구(西城区)	
위치 지도		
		이미지

출처: 귀화원(規劃院) 지도(재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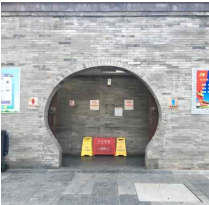

역사문화거리 내 표지판, 안내사인 등 표지체계는 통일되고 규범적이어야 하며 알아보기 쉬운 위치에 설치되어야 한다. 또한, 거리 내 전통 경관과 주민들의 생활과 교통, 소방 및 안전거리 확보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되며 각종 역사문화유산을 훼손해서도 안 된다. 거리 내 벤치는 실제 수요에 근거하여 적절한 위치에 설치되어야 하며 거리 내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 소방 및 안전거리 확보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어서도 안 된다. 그중 벤치의 높이, 펜스의 양식, 색상, 재료 등은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거리 내 맨홀뚜껑 양식이 간결하고 튀지 않아야 하며 특히 중심 구역의 맨홀뚜껑은 현지 역사문화 자원과 결합한 디테일한 디자인을 시도해 볼 수 있다.

3.4.2 공공시설물디자인 사례


[표3-23] 정보시설물

	<p style="text-align: center;">관광안내소</p> <p>관광안내소는 전통건축 양식을 띠고 있으며 지역적 특색이 뚜렷하다. 이곳의 관광 안내소는 주로 정보 안내, 잡지 및 안내물 열람, 분실물 신고, 구급약 제공 등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접근성이 가장 뛰어난 곳에 설치되어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안내사인</p> <p>안내사인은 도로 명칭과 방향을 나타내고 있으며 다소 오래되고 낡아 보인다. 안내 사인의 글자는 빨간색을 사용하여 사람들이 해당 정보를 쉽고 빠르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능과 목적을 달성함과 동시에 미관을 높였다.</p>

[표3-24] 위생시설물


	<p style="text-align: center;">화장실</p> <p>화장실은 입구의 조형이 간결하고 불필요한 장식이 없으며 사람들이 쉽게 발견하고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설치되어 있다. 화장실은 거리 환경에서 빠질 수 없는 필수 요소로, 외관과 주위환경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휴지통</p> <p>휴지통은 모두 비교적 오래된 시설에 속하며 쓰레기 수거 시 앞쪽의 문을 열어야만 내부 용기를 꺼낼 수 있기 때문에 기능적으로 소화기의 기능도 겸비하였지만, 관리가 불편하다는 문제가 있다. 이 외에 외관 조형이 나무결 모양을 하고 있어 오염 제거 및 청소가 매우 불편하기 때문에 디자인을 최대한 간결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p>

[표3-25] 휴게시설물




	<p style="text-align: center;">벤치A</p> <p>벤치는 주로 나무와 금속 재질을 사용하였으며 조형이 간결하고 색채 사용이 조화로우며 모던한 느낌을 준다.</p>
---	---

(계속)


[표3-25] (계속)

	<p style="text-align: center;">벤치B</p> <p>벤치는 양식에 통일성이 없고 전체적인 환경과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각기 사용기간이 달라 훼손 상태가 제각각이다.</p>
---	--


[표3-26] 보행시설물

	<p style="text-align: center;">펜스</p> <p>펜스는 사고를 예방하고 차도와 보행로를 분리하는 기능을 하며 보행자의 동선 범위를 제한한다. 색채상으로는 시각적 연속성을 지니고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볼라드</p> <p>볼라드는 석재를 사용하여 각종 차량의 출입을 제한함으로써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였다. 그러나 미관상 부족함이 있고 청결을 유지하고 관리하기에 어려워 보인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정류장</p> <p>버스정류장은 사람들의 외출과 이동에 편의를 제공하며 스테인리스 재질로 제작되어 청소 및 관리가 용이하다. 그러나 의자가 설치되지 않아 이용자의 사용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한다.</p>

[표3-27] 관리시설물

	<p style="text-align: center;">맨홀뚜껑</p> <p>맨홀뚜껑은 원형 조형으로, 재료와 구조가 안전하고 유지 및 관리가 용이하다. 대책란 거리의 맨홀뚜껑은 보행로 환경 간 조화를 고려하지 못한다.</p>
---	---

[표3-28] 조명시설물

	<p style="text-align: center;">가로등</p> <p>가로등은 조형상 미관이다. 그러나 색채는 전반적으로 조화를 이루고 있다. 사용 기간이 오래되면서 파손 및 훼손 흔적이 있어 유지 및 관리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다.</p>
---	---

위로부터 알 수 있듯이, 대책란 역사문화거리의 휴지통는 시설이 낙후되었으며 조형과 색채가 적절하지 못한다. 안내사인 역시 기타 시설물에 미치지 못하여 색채와 양식이 단조로워 사람들의 주의를 끌지 못한다.

3.5 시안 연호 역사문화거리

3.5.1 개요

연호(蓮湖) 역사문화거리는 중국 시안(西安)에 위치해 있으며 이곳은 당나라 때 장안성(長安城) 황궁의 일부로 당나라 말부터 지금까지 줄곧 큰 변화가였다. 이곳은 시안시 2차 도시계획에서 확정된 명(明)·청(淸) 시기 역사 경관 테마의 역사문화거리다. 연호 역사문화 거리는 동쪽의 북대가(北大街)와 신청구(新城區)의 서일로(西一路), 남쪽으로는 함광문(含光門)과 베이린구(碑林區) 장가촌(張家村) 거리, 서쪽으로는 서문(西門)과 환성서로(環城西路) 거리, 북쪽으로는 서오대(西五臺)와 청년로(青年路) 거리와 맞닿아 있다. 핵심구역은 홍부가(紅埠街) 거리 남쪽, 서화문대가(西華門大街) 거리 북쪽, 대학습항(大學習巷) 골목 동쪽, 북대가(北大街) 거리 서쪽에 해당하는 구역으로 명·청 시기 건축 양식과 골동품, 회교도(무슬림) 맛집이 주를 이루는 상업거리이자 보행로다. 연호 역사문화거리는 당나라 때 시작되어 당나라 당시 황궁지역 내 속하는 곳이었으며 구체적으로는 주거지역이었다. 중화민국 시기 이곳은 시안시의 정치적 중심지였으며 오랫동안 정부 소재지였다.

연호 역사문화거리는 지금까지 총 4차례의 보수 작업을 거쳤는데, 1991년 연호 역사문화거리와 명·청 시기 사합원 건축을 보존 및 보수하면서 우수한 옛 정원 건축을 복원하였다. 1995년에는 연호 역사문화거리의 중요 건축물인 종루(鍾樓)을 보수하고

종루광장을 확충하였다. 2001년 가로환경 및 기초인프라 시설 확충 사업의 일환으로 연호 역사문화거리에 휴식, 쇼핑, 관광, 식당, 엔터테인먼트를 하나로 합친 ‘당나라 옛 거리’를 조성하였다. 이후 2009년 또 한차례의 전반적인 보수와 관리를 통해 거리 양단에 녹지광장을 만들고 거리 내 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연호 역사문화거리의 사회적 및 환경적 효용을 높였다. 오늘날, 연호 역사문화거리는 명·청 시기 건축 양식을 위주로, 종고루(鐘鼓樓), 고가대원(高家大院), 안가택원(安家宅院), 무슬림 사원 등 종교 건축과 주거 건축이 주를 이루며 적지 않은 명·청 시기 건축물들이 보호 대상으로 지정되어 있다.

이 외에도, 연호 역사문화거리 양측에서는 지역적 특색이 뚜렷한 노점상, 음식점, 각종 상점이 들어서 있으며 현재는 주로 상업구역과 주거구역으로 이루어져 있어 거리 내 주민들의 다양한 공공생활이 가능하고 기초인프라시설이 완비되어 있는 특화된 역사문화거리로 자리 잡았다.

관련 정책 연구 중 「시안시 가로 디자인 통칙」(2018)에서는 역사문화거리의 전체적인 경관에 시안의 역사문화 특징을 반영해야 한다는 요건을 제시하였다. 역사문화거리의 테마를 명확히 하고 거리 자체에 내포된 문화적 가치와 의미를 부각시켜야 한다. 디자인을 할 때에는 각 거리의 구체적인 요건을 고려하여 역사적 자원과 역사문화를 활용하여 각 거리 경관의 특색을 살리고 거리 소재지 또는 거리 자체의 문화적 의미와 가치를 잘 드러내야 한다.

[표3-29] 연호 역사문화거리 현황

위치	시안시(西安市) 련후구(蓮湖区)	
위치 지도		<p data-bbox="758 1335 822 1363">이미지</p>




출처: 구이화원(規劃雲) 지도(재정리)

역사문화거리의 공공시설물은 지역문화 특색 기호를 중점적으로 발굴하고, 지역의 전통 문화 기호를 거리의 펜스, 가로등, 버스정류장, 벤치, 휴지통 등 가로시설물에 반영하여 각


기 다른 경관의 특징을 구현해야 한다. 벤치는 목재, 석재, 콘트리트, 세라믹, 금속 등 다양한 재료를 사용할 수 있으며 촉감과 질감이 좋은 목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내구성이 좋은 것으로 선택해야 한다. 고정식 공공화장실의 외관은 실제 장소의 위치 및 상황을 고려하여 주변 환경의 건축 양식과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디자인하고, 시설물의 색채는 도시의 주색을 위주로 주위 환경의 색상 계열과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3.5.2 공공시설물디자인 사례

[표3-30] 정보시설물


	<p style="text-align: center;">관광안내소 A</p> <p>관광안내소로, 사람들에게 관광 정보를 제공하는 기본적인 기능을 수행한다. 특히 관광안내소는 ‘?’ 자를 눈에 잘 띄도록 노란색과 하얀색을 사용하여 표시함으로써 높은 식별력을 지니고 있다. 전체적인 양식은 전통건축 조형을 따르고 있으며 주변 환경과 조화와 통일을 이룬다.</p>
	<p style="text-align: center;">안내사인 A</p> <p>안내사인은 거리의 각 입구에 설치되어 있으며 방향을 유도하는 기능을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안내사인 B</p> <p>안내사인은 거리에 대한 기본정보뿐만 아니라 거리 내 지도 및 명소를 소개하고 있다. 한편, 안내사인의 종류가 다양각색인만큼 양식에 있어 통일성이 떨어진다.</p>

[표3-31] 위생시설물



	<p style="text-align: center;">화장실</p> <p>화장실은 공공휴게구역의 독립적으로 설치된 화장실이다. 색채가 전체적인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전통건축 양식을 띠고 있다.</p>
---	---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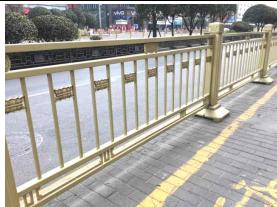


[표3-31] (계속)

	<p style="text-align: center;">휴지통</p> <p>휴지통은 안정적 구조를 지니고 있으며 휴지통과 그 케이스가 일체형이다. 용기를 회전시키면 휴지통 안의 쓰레기를 쉽게 수거할 수 있어 관리와 사용이 편리하다. 그러나 휴지통의 외관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용자가 휴지통에 쓰레기를 버리거나 환경미화원이 쓰레기를 수거하는 과정의 효율성을 더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p>
---	---

[표3-32] 휴게시설물


	<p style="text-align: center;">벤치A</p> <p>벤치는 목재와 석재를 함께 사용하였으며 지역적 특색이 뚜렷하다. 벤치는 사람이 사용하지 않을 때는 하나의 조형물로 감상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벤치B</p> <p>벤치는 본래의 용도 외에도 나무를 보호하는 울타리 역할을 한다.</p>

[표3-33] 보행시설물



	<p style="text-align: center;">펜스</p> <p>펜스는 차도와 보행로를 분리하고 사고를 예방하는 기능을 하며 색채가 전반적으로 통일성을 지니고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볼라드A</p> <p>원형 디자인에 석재를 사용하여 안전성과 기능성이 모두 뛰어나다.</p>
	<p style="text-align: center;">볼라드B</p> <p>볼라드는 석재를 사용하였으며 차량 및 각종 이동수단의 출입을 효과적으로 제한함으로써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조형상으로도 지역적 요소를 융합하여 여행 체험을 높였다.</p>

(계속)


[표3-33] (계속)

	<p style="text-align: center;">정류장</p> <p>버스정류장은 사람들의 이동에 편의를 제공하는 기능을 하지만, 디자인 측면에서 봤을 때 형태가 단조롭고 평범하다. 따라서, 보다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여 새로이 조성된 역사문화거리의 환경과 도시 질서에 어울리지 않는 부분을 최대한 줄이고 이용자에게 유용한 공간으로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p>
---	--

[표3-34] 관리시설물

	<p style="text-align: center;">맨홀뚜껑A</p> <p>노면과 색채가 통일되고 사용상 안전성과 편의성을 갖추고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맨홀뚜껑B</p> <p>맨홀뚜껑은 안전보호 기능 외에 심미성을 높이고 있다. 맨홀뚜껑은 디자인의 조화성과 유지 및 관리의 용이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p>

[표3-35] 조명시설물

	<p style="text-align: center;">가로등A</p> <p>가로등은 검은색과 노란색을 주로 사용하였으며 빨간색 초롱 조형물을 매치하여 거리 환경 및 분위기와 조화를 이루고 있다. 가로등의 주기능은 조명한다. 특색 있고 미관이 뛰어난 가로등 디자인은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존재이기도 하다.</p>
---	---

위 내용으로부터 알 수 있듯이, 관광안내소의 형태와 색상은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지역문화와도 잘 맞는다. 정보 안내사인 역시 지역의 문화적 특징을 잘 나타내고 있지만, 두 가지 계열의 색 조합이 다소 지저분해 보인다는 단점이 있다. 벤치 디자인은 목재와 석재를 함께 사용하였으며 조형상으로도 지역적 특징이 매우 뚜렷하다. 이 외에도, 일부 벤치는 나무나 풀을 보호하는 덮개 역할도 한다.

3.6 항저우 청하방 역사문화거리

3.6.1 개요

청하방(淸河坊)은 예부터 항저우(杭州)의 변화가였으며 행정구역상으로는 항저우 상청구(上城區)와 라오청구(老城區)에 속하고 오산(吳山) 산자락 아래 서호(西湖) 근방에 위치해 있다. 핵심구역은 동쪽으로는 중하로(中河路) 거리, 서쪽으로는 화광로(華光路), 남쪽으로는 오산(吳山)과 고루(鼓樓), 북쪽으로는 고은가(高銀街) 거리, 고은항(高銀巷) 골목과 맞닿아 있으며 동쪽으로 원보가(元寶街)와 이어지고 북쪽으로 사당항(祠堂巷) 골목과 연결된다. 청하방은 풍부한 역사문화유산과 문화적 가치를 보유하고 있다. 하방가(河坊街, 청하방 옛 거리)는 신궁교(新宮橋)의 동쪽으로 남송 시대의 송(宋) 고종(高宗) 거처했던 덕수궁(德壽宮) 유적지다. 남송 때 청하군왕에 보해진 장준(張俊)의 집은 당시 황궁으로 이르는 길의 ‘태평항(太平巷)’이라 불렸으며, 이 때문에 이 일대를 ‘청하방(淸河坊)’이라 명명하였다. 남송 시기 청하방은 상점이 즐비하고 술집과 찻집이 늘어선 변화한 거리였으며 항성(杭城)의 정치, 문화, 상업의 중심지였다. 이후 원(元)·명(明)·청(淸), 중화민국 시기를 거쳐 지금의 신중국 건국 초기까지 청하방 일대는 항저우의 대표적인 변화가이자 상업지구로 자리 잡고 있다.

청하방은 총 3차례의 보수 사업이 진행되었는데, 1993년 청하방의 도로를 넓히고 오래된 나무와 건축물을 철거 및 이전하는 사업이 시행되었으나 역사문화 건축물을 보존 및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결국엔 중단되었다. 2000년 항저우시 상청구 정부는 청하방의 역사적 건축을 보호하고 새로운 경관을 개발 및 조성하기 위하여 ‘옛것을 원래 모습으로’라는 원칙에 입각하여 예전의 모습과 거리의 전체적인 배치를 그대로 보존하였다. 또한, 보존 구역 내 기존의 노자호 상점 외에도 임대, 공동 운영 등 형식을 통해 골동품, 서화, 관광기념품, 공예품, 항저우 특산물 등 청하방 역사문화거리 분위기에 어울리는 각종 상점을 유지하여 ‘역사문화거리-상업-관광-지역경제발전’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였다. 이후 2002년 청하방 역사문화거리는 개조 및 보존 사업을 본격적으로 실시한 지 일 년 반만에 ‘청하방 역사문화거리’를 정식으로 선보였으며 중심부의 보행로는 명·청 시대 항저우 시정(市井)의 모습을 그대로 축소해 놓았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청하방 거리의 양측은 명·청 시기 양식의 건축물들이 들어서 있으며 중간에는 왕성

기(王星记), 장소천(张小泉), 만룡불퇴잔(万隆火腿栈), 호경여당(胡庆余堂), 방회춘당(方回春堂), 엽종덕당(叶种德堂), 보화당(保和堂), 장원관(状元馆), 왕윤흥(王润兴), 의원금점(义源金店), 경양관(景阳观), 양탕반점(羊汤饭店) 등 100년 이상 오래된 가게들이 들어서 있다. 현재 청하방 상업거리 내에는 관상, 체험, 놀이 등 각종 시설들이 집합해 있으며 그중에는 항저우 지역 맛집, 전통조각, 수공예품 등 외에도 관복박물관, 도자기박물관 등을 통해 전통문화를 전시하고 있다.

관련 정책 연구 중 「항저우 역사문화거리 및 역사건축 보호 조례」(2012)에서는 역사문화거리 핵심 보호 범위 내 건설 활동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인프라시설 및 공공서비스시설 외에 신축 및 확충 건설을 금지하고 역사문화거리 보호 계획에 부합하는 높이, 부피, 색채 등을 사용하여 역사문화거리 경관과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함으로써 역사문화 환경 및 경관의 특징을 유지하고 핵심 보호 구역 내 건축 안전을 해쳐서는 안 된다.

「항저우시 공공서비스시설 표준 및 계획 가이드라인」(2014)에서는 주민들의 물질적·정신적·문화적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도시공공서비스시설의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배치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특히, 관광지역은 독립식 공공화장실이나 대형 공공건축물과 결합된 부대시설 공공화장실을 설치해야 한다.




[표3-36] 청하방 역사문화거리 현황

위치	항저우시(杭州市) 상청구(上城区)	
위치 지도		
		이미지



출처: 구이화원(規劃雲) 지도(재정리)

3.6.2 공공시설물디자인 사례




[표3-37] 정보시설물

	<p style="text-align: center;">관광안내소</p> <p>관광안내소는 거리 내 건축과 잘 융합되어 있으며 색채상으로도 통일감을 준다. 관광안내소는 사람들에게 각종 편의와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용률이 매우 높은 시설물 중 하나로, 주로 거리 내 주요 입구처에 설치되며 관광안내소가 주는 거리의 전반적인 이미지는 사람들의 여행 체험에 영향을 미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안내사인 A</p> <p>안내사인은 통합성이 있으며 지역의 특색을 잘 드러내고 있다. 안내사인은 사람들이 빠르고 효율적으로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기 도와주고 거의 지역적 특색을 느낄 수 있도록 해준다. 특히 색채는 안내사인의 식별력을 높이는 중요한 수단이며 눈에 잘 띄는 색을 사용하여 안내사인의 기능과 효과를 강화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안내사인 B</p> <p>안내사인은 거리 중간에 위치해 있으며 방향 안내의 기능이 명확하다. 단, 보행자의 보행 공간을 차지한다는 단점이 있다.</p>




[표3-38] 위생시설물

	<p style="text-align: center;">화장실</p> <p>화장실은 명도와 순도가 낮은 색채를 사용하여 주위환경과의 조화를 이루고 ‘무장애 통로’를 설치하여 특정 이용자 집단을 배려하였다. 화장실은 깨끗하고 청결한 화장실은 사람들의 가장 기본적인 수요이며 접근 용이성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휴지통</p> <p>휴지통에 전통 조형물, 특색 있다. 또한, 쓰레기 분류 라벨이 있어 사용 및 관리가 편리하지만, 재료의 사용에 있어서 내열성과 내구성을 개선한 디자인이 필요해 보인다.</p>



[표3-39] 휴게시설물

	<p style="text-align: center;">벤치A</p> <p>벤치는 석재와 목재를 사용하였으며 모두 친환경적이고 보는 이에게 친근한 느낌을 준다. 벤치는 화분대와 결합되어 실용성을 한층 더 높임으로써 인기를 얻고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벤치B</p> <p>시멘트와 목재를 함께 사용하였으며 그중 목재 부분은 재료 본연의 색을 나타내고 시멘트 부분은 명도가 낮은 색상을 사용하여 페인트를 칠했다.</p>
	<p style="text-align: center;">파고라</p> <p>파고라는 중국 전통양식을 띠고 있으며 주위의 전체적인 환경과도 잘 어울린다. 설치된 수량도 충분하여 사람들에게 넉넉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사람들의 정보 교류와 정서적 소통을 돕는다.</p>


[표3-40] 보행시설물

	<p style="text-align: center;">펜스</p> <p>펜스는 차도와 보행로를 분리하고 사고를 예방하는 기능을 하며 간결한 선과 낮은 채도의 색채를 사용하여 시각적으로 일관된 느낌을 준다.</p>
	<p style="text-align: center;">볼라드</p> <p>볼라드는 석차량 및 각종 이동수단의 출입을 효과적으로 제한함으로써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있으며 다른 지역의 볼라드와는 다른 형태에 지역의 특색을 살린 장식을 추가한 디자인이 인상적이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정류장</p> <p>버스정류장은 조형이 심플하면서도 특색이 있다. 버스정류장은 사람들의 외출과 이동에 필요한 중요한 시설물로, 디자인에 있어 사용의 편의성과 관리의 용이성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p>


[표3-41] 관리시설물

	<p style="text-align: center;">맨홀뚜껑A</p> <p>맨홀뚜껑은 석재를 사용하였으며 지역의 특징이 표현되어 있다. 맨홀뚜껑은 보행로 환경과 서로 부합해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맨홀뚜껑B</p> <p>안전 기준에 부합하는 디자인으로 기능성과 안전성을 모두 확보하였다.</p>

[표3-42] 판매시설물

	<p style="text-align: center;">매점</p> <p>매점은 형식과 양식이 통일되어 있고 지역적 특색도 잘 드러나 있으며 색채가 주위 환경과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루고 있다.</p>
---	--

[표3-43] 조명시설물

	<p style="text-align: center;">가로등A</p> <p>가로등은 조형과 거리 환경이 통일과 조화를 이루며 보는 이에게 시각적으로 좋은 이미지를 준다.</p>
---	--

위의 내용으로부터 알 수 있듯이, 청하방 역사문화거리의 안내사인과 매점은 색채와 조형에 있어 모두 시각적으로 통일성을 지니고 있어 보는 이에게 강한 인상을 준다. 벤치와 불라드는 친환경 재료인 목재를 사용하였으며 휴지통은 디자인의 차별화를 시도하여 조명 시설과 조화를 이루고 실용성을 높였으며 동시에 기타 시설물과의 조화로우도 고려하였다.

3.7 조사 대상 소결

도시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공공디자인은 그 중요성이 나날이 커지고 있으며 역사문화거리의 공공시설물 디자인은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를 조성하고 문화적 가치를 창조하는 만큼 이용자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고 역사문화거리 환경에 부합해야 한다.

앞에서 살펴본 6개의 역사문화거리에 대한 사례 조사를 통해, 정보시설물의 디자인 중 관광안내소와 안내사인은 형태와 색상에 있어 조화를 이루고 지역문화와도 부합하는 반면, 공중전화부스와 우체통은 공공시설물은 상대적으로 간과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위생시설물 디자인에서는, 화장실은 전통건축 양식을 채택하여 디자인하였으며 전체적으로 이용자가 만족할 수 있도록 디자인되었다. 휴지통 디자인에 있어서, 경주 황남동 역사문화거리의 휴지통 디자인의 경우 시각적으로 다소 조악해 보인다는 문제가 있었으며 조형과 색채가 모두 적절하지 못했다. 한편, 휴게시설물과 보행시설물 디자인은 주로 석재와 목재 등 친환경적 재료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6개 역사문화거리의 관리시설물의 조형은 전체적으로 통일되었으며 매점시설물 중 청하방 역사문화거리의 매점은 주변환경과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루었다. 조명시설물은 조형이 다양했으며 재질 역시 거리마다 각기 달랐다.

디자인 가이드라인 관련 연구로부터 알 수 있듯이, 정부에서 통일적으로 배치한 시설물은 표준화된 디자인을 사용하고 있으며 시설물 디자인의 통합성이 뛰어나다. 재료 사용과 무채색과 유채색의 조합 등 측면에서 모두 주위 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이외에도 차별화된 디자인을 사용하여 각기 다른 역사문화거리 정체성에 맞는 공공시설물을 설치하였다. 일부 관련 연구에서도 이러한 점을 향후 디자인 개선 및 발전 방향으로 언급하였다.

앞서 실시한 한국과 중국의 역사문화거리 공공시설물 디자인 사례 조사를 토대로 도출한 결과는 [표3-44]와 같다. 공공시설물의 소분류는 국가별 차이와 현장조사 현황을 고려하여 비교분석을 하기 위해 전체 사례 중 중복된 항목으로 제한하였다. 빈도수가 6회 이상인 항목을 본 연구 설문조사 평가를 위한 최종 항목으로 선정하였으며 구체적으로는 정보시설물(관광안내소, 안내사인), 위생시설물(화장실, 휴지통), 휴게시설물(벤치), 보행 시설물(펜스, 볼라드, 정류장), 관리시설물(맨홀), 조명시설물(가로등)으로 확정하였다.

[표3-44] 조사 항목 분석

대분류	소분류	A	B	C	D	E	F	빈도수
정보 시설물	관광안내소	●	●	●	●	●	●	6
	안내사인	●	●	●	●	●	●	6
	공중전화부스	●	●	●	●	○	●	5
	우체통	●	●	○	●	●	○	4
위생 시설물	화장실	●	●	●	●	●	●	6
	휴지통	●	●	●	●	●	●	6
	음수대	○	●	●	○	○	○	2
휴게 시설물	벤치	●	●	●	●	●	●	6
	파고라	●	●	●	○	○	●	4
보행 시설물	펜스	●	●	●	●	●	●	6
	블라드	●	●	●	●	●	●	6
	정류장	●	●	●	●	●	●	6
	자전거보관대	○	●	●	●	●	●	5
관리 시설물	맨홀	●	●	●	●	●	●	6
	소화전	○	○	●	●	●	●	4
판매 시설물	자동판매기	○	●	●	●	●	●	5
	매점	○	○	○	○	○	●	1
조명 시설물	가로등	●	●	●	●	●	●	6

A.서울 인사동 역사문화거리, B.경주 황남동 역사문화거리, C.전주 한옥마을 역사문화거리, D.베이징 대책란 역사문화거리, E.시안 연호 역사문화거리, F.항저우 청하방 역사문화거리

제4장

공공시설물 디자인의 이용 후 만족도 분석

4.1 평가 개요

4.2 표본의 선정 및 특성

4.3 역사문화거리의 공공시설물 디자인 만족도 분석

4.4 소결

제4장 공공시설물 디자인의 이용 후 만족도 분석

4.1 평가 개요

4.1.1 분석 개요

만족도 평가는 시대와 사회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발전하며 연구 주제에 따라 만족도 평가의 목적이 각각 다를 수 있다. 본 연구의 만족도 평가는 앞으로 조성될 역사문화거리 공공시설물 디자인 계획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며 향후 역사문화거리 공공시설물 디자인의 계획 및 조성, 평가를 위한 참고가 될 수 있다.

역사문화거리 공공시설물 디자인은 공공디자인의 중요한 부분으로서, 역사문화거리의 공공시설물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 변화와 의식 제고에 따라 역사문화거리 공공시설물 디자인에 이용자의 수요를 반영하는 것은 필수가 되었다. 그러나, 공공시설물 디자인의 계획 단계 또는 시설물의 실제 이용 단계에서 만족도 평가를 종종 간과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만족도 평가를 역사문화거리 공공시설물 디자인 평가 도구로 채택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만족도 평가를 사전준비, 실시 및 분석, 결론 및 피드백 3개의 단계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사전준비 단계에서는 예비조사, 문헌고찰, 평가항목 설정, 평가요소 추출을 실시한다. 실시 및 분석 단계에서는 표본 설정, 자료 수집 및 분석을 진행하고, 결론 단계에서는 분석 결과를 비교하고 전체적인 만족도 분석과 각 요소에 대한 만족도 분석을 실시한다.

[표4-1] 공공시설물디자인 평가요소 및 세부내용

평가요소	세부내용
안전성	구조 또는 재료의 안전성, 위험 및 사고 발생 예방
기능성	불필요한 장식보다 기능을 강조, 사용 및 관리의 편리성
경제성	문화경제성 형성
통합성	역사문화거리의 디자인 통일성
조화성	형태와 색상이 주위환경과 조화
지속가능성	재료의 내구성과 친환경성

공공시설물디자인 평가요소는 제2장에서 실시한 역사문화거리 공공시설물 디자인 구성

특성에 관한 연구 분석 중, 빈도수가 비교적 낮은 항목을 제외하고 빈도수가 높은 항목을 선별하여 안전성, 기능성, 정체성, 통합성, 조화성, 지속가능성 6개 항목을 평가요소로 선정하였으며 세부내용은 [표4-1]과 같다.

제3장에서 서울 인사동 역사문화거리, 경주 황남동 역사문화거리, 전주 한옥마을 역사문화거리, 베이징 대책란 역사문화거리, 시안 연호 역사문화거리, 항저우 청하방 역사문화거리를 조사 대상으로 하고, 한국과 중국의 역사문화거리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공공시설물을 범위로 설정하여 사례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과 중국의 역사문화거리 공공시설물 디자인을 대상으로 이용 후 만족도 분석을 실시했으며 구체적인 범위는 정보시설물, 위생시설물, 휴게시설물, 보행시설물, 관리시설물, 조명시설물로 총 6개의 대분류 유형과 관광안내소, 안내사인, 화장실, 휴지통, 벤치, 펜스, 블라드, 정류장, 맨홀뚜껑, 가로등 총 10개의 소분류로 나누어 분석을 진행했다.

4.1.2 자료의 분석 방법

1) 분석 방법

선행연구를 토대로 한국과 중국의 역사문화거리의 공공시설물 디자인 현황을 조사하고 공공시설물 디자인 특성 요소를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한·중 양국의 공공시설물 디자인 현황 및 장단점을 파악하였다. 이용 후 만족도 평가는 주로 정보시설물, 위생시설물, 휴게시설물, 보행시설물, 관리시설물, 조명시설물 각 측면에 대한 만족도와 공공시설물 디자인의 효용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연구함으로써 향후 디자인 방향 수립을 위한 일정 참고와 기초자료를 제공한다.

역사문화거리 공공시설물 디자인에 대한 이용 후 만족도 평가는 이용자의 거리 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을 토대로 하였으며 설문조사를 통해 공공시설물 디자인 요소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설문지 각 문항의 평가 등급에 상응하는 점수를 부여하여 통계 처리의 용이성을 높였다.

설문조사를 통해 확보한 데이터를 통계분석하여 평균값을 계산한 후, 리커트 5점 척도를 기준을 토대로 조사 응답자의 해당 문제에 대한 평가의 차이와 태도를 측정함으로써 공공시설물 디자인에 대한 전반적이고 객관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한국과 중국의 역사문화거리 공공시설물 디자인에 대한 인식을 파악한다. 정보시설물은 관광안내소, 안내사인, 위생시설물은 화장실, 휴지통, 휴게시설물은 벤치, 보행시설물은 펜스, 블라드, 정류장, 관리시설물

은 맨홀뚜껑, 조명시설물은 가로등을 대상으로 안전성, 기능성, 경제성, 통합성, 조화성, 지속가능성의 각도에서 한국인과 중국인의 각 공공시설물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았다.

SPSS 26.0을 사용하여 한국과 중국의 역사문화거리 공공시설물 디자인에 대한 만족도를 비교분석하였으며 자료 분석은 전체적으로 T검정을 통해 한국과 중국의 차이를 나타내었다. 구체적인 결과는 리커트 5점 척도를 활용하여 1점 '매우 불만족'에서 5점 '매우 만족'까지 설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먼저 부정적인 평가를 낮은 점수로, 긍정적인 평가일수록 높은 점수로 전환한 후, 역사문화거리 공공시설물에 대한 평가값을 만족도값으로 변환한다. 생성된 데이터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Cronbach's α 값을 계산한다. 해당 데이터를 정리하여 통계분석을 실시하고 표본의 특성과 역사문화거리 공공시설물 디자인에 대한 일반적인 현황을 파악한다. 한국과 중국의 역사문화거리 공공시설물에 대한 평가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2) 신뢰도 분석

조사 목적에 근거하여 디자인 조사 설문지를 측정 도구로 채택하였다. 설문지의 질은 조사 결과의 진실성, 적용성 등을 결정하며 설문지의 높은 신뢰성과 유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설문조사의 조사 결과에 대한 신뢰도 및 타당도 분석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SPSS 26.0으로 설문조사의 신뢰도를 분석하였다. Cronbach's α 신뢰도 계수는 현재 가자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신뢰도 계수로, 이 값이 클수록 측정의 신뢰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학자 DeVellis(1991)에 의하면, 0.60~0.65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음) ; 0.65~0.70 (인정 가능한 최소 수준) ; 0.70~0.80 (나쁘지 않음) ; 0.80~0.90 (좋음) ; 0.90이상 (매우 좋음) 으로 등급을 나눌 수 있다.

[표4-2] 신뢰도 검증

	항목수	Cronbach's Alpha계수	표준화 Cronbach's Alpha 값
안전성	10	0.897	0.898
기능성	10	0.881	0.882
경제성	10	0.873	0.877
통합성	10	0.886	0.888
조화성	10	0.906	0.908
지속가능성	10	0.918	0.921

신뢰도 검사 결과는 [표4-2]와 같으며, Cronbach's α 값은 0.918, 표준화 Cronbach's α 계수는 0.921으로 각 측면의 신뢰도 결과 모두 0.8보다 크다. 이는 본 설문조사의 설문지가 높은 내적 일관성을 지니고 있으며 분석 가능성을 뜻한다. 따라서, 본 설문조사는 설정된 평가 항목을 이용하여 한국과 중국의 역사문화거리 공공시설물 디자인에 대한 만족도 분석을 실시한다.

4.2 표본의 선정 및 특성

4.2.1 표본의 선정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한국과 중국의 역사문화거리 공공시설물 디자인에 대한 대중의 반응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전문가와 일반 사용자를 두 집단을 조사 대상으로 설정하여 실증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를 위한 실증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 2021년 3월 15일부터 2021년 4월 24일까지 1개월에 걸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 대상자에게 설문조사 표지의 용어 안내와 설명을 숙지하게 한 후, 설문지 문항에 대한 응답을 수집 및 확인하였다.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한 데이터는 SPSS 26.0 프로그램을 통해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기술통계분석, 분산분석, T검정 방법을 사용하여 한국과 중국 대중의 역사문화거리 공공시설물 디자인에 대한 반응을 파악하였다.

4.2.2 표본의 특성

본 연구를 위한 실증자료를 얻기 위해 실시한 설문조사를 통해 총 266부의 설문지를 회수하였으며 데이터 선별 및 처리 후 총 249부(93.91%)의 유효 표본을 확보하였다. 유효 표본은 한국 123부, 중국 126부의 비율로 구성되어 있다. 본 설문조사 한국과 중국의 응답자수가 거의 1:1에 가까운 비율을 보였으며 성별로는 남성 121명, 여성 128명으로 성별의 비율 역시 비교적 균등하였다. 연령은 20대와 30대가 80%의 비율로 대다수를 차지하였으며 응답자 중 전문가의 비율은 약 30%(75명)이었다. 전문가의 전문분야는 디자인 56%, 공공시설물 21.33%, 도시계획 13.33% 순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응답자 중 일반사용자의 비율은 약 70%로, 그중 45.40%는 대학생, 대학원생이었으며 일반관광객의 비

율도 30% 이상을 차지했다. 응답자의 역사문화거리 방문횟수 측면을 보면, 70% 이상이 매월 1~4회 방문한다고 응답하였으며 매일 방문한다고 답한 응답자 비율은 7.23%로 나타났다. 상술한 기본정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본 설문조사의 표본은 합리적이고 본 논문 연구 분석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표4-3] 인구통계학적 특성

		N	%			N	%
성별	남성	121	48.59	국가	한국	123	49.40
	여성	128	51.41		중국	126	50.60
연령	20대	103	41.37	직업 분야	대학생, 대학원생	79	45.40
	30대	92	36.95		공무원	9	5.17
	40대	37	14.86		관광업	19	10.92
	50대	12	4.82		일반관광객	56	32.18
	60대 이상	5	2.01		기타	11	6.32
전문 분야	전문가	75	30.12	방문 횟수	월1회 미만	53	21.29
	일반 사용자	174	69.88		기타	11	6.32
전문직 분야	도시계획	10	13.33		월1회 미만	53	21.29
	건축 관련	7	9.33		월1~2회	88	35.34
	공공디자인	16	21.33		월3~4회	90	36.14
	디자인	42	56.00	거의 매일	18	7.23	

4.3 역사문화거리의 공공시설물 디자인 만족도 분석

본 장에서는 역사문화거리 공공시설물 디자인 특성 측면에서 대한 대중의 인식을 살펴보고 한국과 중국의 시민 간 인식 차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한국과 중국 시민의 공공시설물 디자인 특성 측면에서 대한 만족도 차이를 분석한다. 먼저 전체적인 만족도를 살펴본 다음, 한국과 중국의 각 역사문화거리 공공시설물 디자인 특성에 대한 만족도 결과를 알아본 후, 마지막으로 각 개별 요소에 대한 만족도를 고찰한다.

한국과 중국의 역사문화거리 공공시설물 디자인 만족도를 조사를 통해 공공시설물 만족도를 5점 척도 기준에 따라 도출한 결과는 [표4-4]과 같다.

[표4-4] 한국과 중국의 공공시설물 디자인 요소 만족도

국가 \ 요소	안전성	기능성	정체성	통합성	조화성	지속 가능성
한국	4.08	4.01	3.23	3.90	3.79	4.03
중국	3.91	3.86	2.67	3.25	2.88	3.20

한국과 중국 공공시설물 디자인의 6개 측면에서 봤을 때, 안전성 측면에서 한국의 만족도는 4.08점으로 중국의 3.91점보다 높으며 기능성 측면도 한국이 4.01점으로 중국 3.86점보다 높다. 정체성 측면에서는 한국이 3.23점으로 중국 2.67점보다 높고 통합성도 한국이 3.90점으로 중국 3.25점보다 높다. 조화성 측면에서는 한국의 만족도가 3.79점으로 중국 2.88보다 높으며 지속가능성은 한국의 만족도가 4.03점으로 중국 3.20점보다 높다.

한국과 중국에 공통적으로 설치된 공공시설물을 바탕으로 정보시설물, 위생시설물, 휴게시설물, 보행시설물, 관리시설물, 조명시설물로 나누어 공공시설물 디자인 요소를 다양한 측면에서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4.3.1 정보시설물

1) 관광안내소

(1) 안전성

[표4-5] 관광안내소-안전성 독립표본검정

구분	관광안내소-안전성			t (p)
	N	평균(M)	표준편차(SD)	
한국	123	4.26	1.130	.491 (.624)
중국	126	4.19	1.108	

*p<.05,**p<.01,***p<.001

먼저 Levene의 등 분산검정을 살펴보았다. 유의확률 P=.362로 등분산이 가정되었고 t-검정에서 유의확률(양쪽) 값이 .624이므로 유의수준은 p>.05보다 크기 때문에 집단 간 차이를 통계적으로 지지할 수 없다. [표4-5참조]. 결론적으로 관광안내소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중국(m=4.19)과 한국(m=4.26)이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기능성

[표4-6] 관광안내소-기능성 독립표본검정

구분	관광안내소-기능성			t (p)
	N	평균(M)	표준편차(SD)	
한국	123	4.22	1.364	.404 (.687)
중국	126	4.16	.983	

*p<.05,**p<.01,***p<.001

먼저 Levene의 등 분산검정을 살펴보았다. 유의확률 P=.002로 등분산이 가정되었고 t-검정에서 유의확률(양쪽) 값이 .687이므로 유의수준은 p>.05보다 크기 때문에 집단 간 차이를 통계적으로 지지할 수 없다. [표4-6참조]. 결론적으로 관광안내소의 기능성에 대해서는 중국(m=4.16)과 한국(m=4.22)이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정체성

[표4-7] 관광안내소-정체성 독립표본검정

구분	관광안내소-정체성			t (p)
	N	평균(M)	표준편차(SD)	
한국	123	3.67	1.550	4.044 (.000)
중국	126	3.01	1.000	

*p<.05,**p<.01,***p<.001

먼저 Levene의 등 분산검정을 살펴보았다. 유의확률 P=.000로 등분산이 가정되었고 t-검정에서 유의확률(양쪽) 값이 .000이므로 유의수준은 p<.001보다 작기 때문에 집단 간 차이를 통계적으로 지지할 수 있다. [표4-7참조]. 결론적으로 관광안내소의 정체성에 대해서는 한국(m=3.67)이 중국(m=3.01)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4) 통합성

[표4-8] 관광안내소-통합성 독립표본검정

구분	관광안내소-통합성			t (p)
	N	평균(M)	표준편차(SD)	
한국	123	4.18	1.242	9.063 (.000)
중국	126	2.84	1.084	

*p<.05,**p<.01,***p<.001

먼저 Levene의 등 분산검정을 살펴보았다. 유의확률 $P=.002$ 로 등분산이 가정되었고 t -검정에서 유의확률(양쪽) 값이 $.000$ 이므로 유의수준은 $p<.001$ 보다 작기 때문에 집단 간 차이를 통계적으로 지지할 수 있다.[표4-8참조]. 결론적으로 관광안내소의 통합성에 대해서는 한국($m=4.18$)이 중국($m=2.84$)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5) 조화성

[표4-9] 관광안내소-조화성 독립표본검정

구분	관광안내소-조화성			$t(p)$
	N	평균(M)	표준편차(SD)	
한국	123	3.55	1.319	3.566 (.000)
중국	126	3.03	.963	

* $p<.05$,** $p<.01$,*** $p<.001$

먼저 Levene의 등 분산검정을 살펴보았다. 유의확률 $P=.000$ 로 등분산이 가정되었고 t -검정에서 유의확률(양쪽) 값이 $.000$ 이므로 유의수준은 $p<.001$ 보다 작기 때문에 집단 간 차이를 통계적으로 지지할 수 있다. [표4-9참조]. 결론적으로 관광안내소의 조화성에 대해서는 한국($m=3.55$)이 중국($m=3.03$)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6) 지속가능성

[표4-10] 관광안내소-지속가능성 독립표본검정

구분	관광안내소-지속가능성			$t(p)$
	N	평균(M)	표준편차(SD)	
한국	123	3.95	1.165	5.662 (.000)
중국	126	3.17	1.018	

* $p<.05$,** $p<.01$,*** $p<.001$

먼저 Levene의 등 분산검정을 살펴보았다. 유의확률 $P=.438$ 로 등분산이 가정되었고 t -검정에서 유의확률(양쪽) 값이 $.000$ 이므로 유의수준은 $p<.001$ 보다 작기 때문에 집단 간 차이를 통계적으로 지지할 수 있다. [표4-10참조]. 결론적으로 관광안내소의 지속가능성에 대해서는 한국($m=3.95$)이 중국($m=3.17$)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표4-11] 관광안내소에 대한 만족도

국가 \ 요소	안전성	기능성	정체성	통합성	조화성	지속가능성	평균
한국	4.26	4.22	3.67	4.18	3.55	3.95	3.97
중국	4.19	4.16	3.01	2.84	3.03	3.17	3.40

한국과 중국의 관광안내소에 대한 만족도 조사결과는 [표4-11]과 같다. 한국의 경우 5점 만점에 안전성이 4.26점으로 1위, 기능성(4.22) 2위, 통합성(4.18) 3위, 지속가능성(3.95) 4위, 정체성(3.67) 5위, 조화성(3.55) 6위 순으로 나타났다. 안전성, 기능성, 통합성에 대한 만족도는 한국 평균(3.97) 이상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경우 5점 만점에 안전성이 4.19점으로 1위, 기능성(4.16) 2위, 지속가능성(3.17) 3위, 조화성(3.03) 4위, 정체성(3.01) 5위, 통합성(2.84) 6위 순으로 나타났다. 안전성, 기능성에 대한 만족도는 중국 평균(3.40) 이상으로 나타났다.

2) 안내사인

(1) 안전성

[표4-12] 안내사인-안전성 독립표본검정

구분	안내사인-안전성			t (p)
	N	평균(M)	표준편차(SD)	
한국	123	4.15	1.233	.668 (.505)
중국	126	4.04	1.286	

*p<.05,**p<.01,***p<.001

먼저 Levene의 등 분산검정을 살펴보았다. 유의확률 P=.443로 등분산이 가정되었고 t-검정에서 유의확률(양쪽) 값이 .505이므로 유의수준은 $p > .05$ 보다 크기 때문에 집단 간 차이를 통계적으로 지지할 수 없다. [표4-12참조]. 결론적으로 안내사인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중국(m=4.04)과 한국(m=4.15)이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기능성

[표4-13] 안내사인-기능성 독립표본검정

구분	안내사인-기능성			t (p)
	N	평균(M)	표준편차(SD)	
한국	123	3.85	1.265	.582 (.561)
중국	126	3.76	1.223	

*p<.05,**p<.01,***p<.001

먼저 Levene의 등 분산검정을 살펴보았다. 유의확률 P=.333로 등분산이 가정되었고 t-검정에서 유의확률(양쪽) 값이 .561이므로 유의수준은 p>.05보다 크기 때문에 집단 간 차이를 통계적으로 지지할 수 없다. [표4-13참조]. 결론적으로 안내사인의 기능성에 대해서는 중국(m=3.76)과 한국(m=3.85)이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정체성

[표4-14] 안내사인-정체성 독립표본검정

구분	안내사인-정체성			t (p)
	N	평균(M)	표준편차(SD)	
한국	123	3.67	1.310	9.400 (.000)
중국	126	2.25	1.050	

*p<.05,**p<.01,***p<.001

먼저 Levene의 등 분산검정을 살펴보았다. 유의확률 P=.000로 등분산이 가정되었고 t-검정에서 유의확률(양쪽) 값이 .000이므로 유의수준은 p<.001보다 작기 때문에 집단 간 차이를 통계적으로 지지할 수 있다. [표4-14참조]. 결론적으로 안내사인의 정체성에 대해서는 한국(m=3.67)이 중국(m=2.25)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4) 통합성

[표4-15] 안내사인-통합성 독립표본검정

구분	안내사인-통합성			t (p)
	N	평균(M)	표준편차(SD)	
한국	123	3.97	1.305	4.672 (.000)
중국	126	3.24	1.155	

*p<.05,**p<.01,***p<.001

먼저 Levene의 등 분산검정을 살펴보았다. 유의확률 $P=.122$ 로 등분산이 가정되었고 t -검정에서 유의확률(양쪽) 값이 $.000$ 이므로 유의수준은 $p<.001$ 보다 작기 때문에 집단 간 차이를 통계적으로 지지할 수 있다. [표4-15참조]. 결론적으로 안내사인의 통합성에 대해서는 한국($m=3.97$)이 중국($m=3.24$)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5) 조화성

[표4-16] 안내사인-조화성 독립표본검정

구분	안내사인-조화성			$t(p)$
	N	평균(M)	표준편차(SD)	
한국	123	4.16	1.263	9.492 (.000)
중국	126	2.72	1.129	

* $p<.05$,** $p<.01$,*** $p<.001$

먼저 Levene의 등 분산검정을 살펴보았다. 유의확률 $P=.044$ 로 등분산이 가정되었고 t -검정에서 유의확률(양쪽) 값이 $.000$ 이므로 유의수준은 $p<.001$ 보다 작기 때문에 집단 간 차이를 통계적으로 지지할 수 있다. [표4-16참조]. 결론적으로 안내사인의 조화성에 대해서는 한국($m=4.16$)이 중국($m=2.72$)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6) 지속가능성

[표4-17] 안내사인-지속가능성 독립표본검정

구분	안내사인-지속가능성			$t(p)$
	N	평균(M)	표준편차(SD)	
한국	123	4.29	1.107	7.638 (.000)
중국	126	3.15	1.246	

* $p<.05$,** $p<.01$,*** $p<.001$

먼저 Levene의 등 분산검정을 살펴보았다. 유의확률 $P=.652$ 로 등분산이 가정되었고 t -검정에서 유의확률(양쪽) 값이 $.000$ 이므로 유의수준은 $p<.001$ 보다 작기 때문에 집단 간 차이를 통계적으로 지지할 수 있다. [표4-17참조]. 결론적으로 안내사인의 지속가능성에 대해서는 한국($m=4.29$)이 중국($m=3.15$)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표4-18] 안내사인에 대한 만족도

국가 \ 요소	안전성	기능성	정체성	통합성	조화성	지속가능성	평균
한국	4.15	3.85	3.67	3.97	4.16	4.29	4.02
중국	4.04	3.76	2.25	3.24	2.72	3.15	3.19

한국과 중국의 안내사인에 대한 만족도 조사결과는 [표4-18]과 같다. 한국의 경우 5점 만점에 지속가능성이 4.29점으로 1위, 조화성(4.16) 2위, 안전성(4.15) 3위, 통합성(3.97) 4위, 기능성(3.85) 5위, 정체성(3.67) 6위 순으로 나타났다. 지속가능성, 조화성, 안전성에 대한 만족도는 한국 평균(4.02) 이상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경우 5점 만점에 안전성이 4.04점으로 1위, 기능성(3.76) 2위, 통합성(3.24) 3위, 지속가능성(3.15) 4위, 조화성(2.72) 5위, 정체성(2.25) 6위 순으로 나타났다. 안전성, 기능성, 통합성에 대한 만족도는 중국 평균(3.19) 이상으로 나타났다.

4.3.2 위생시설물

1) 화장실

(1) 안전성

[표4-19] 화장실-안전성 독립표본검정

구분	화장실-안전성			t (p)
	N	평균(M)	표준편차(SD)	
한국	123	4.21	1.140	.865 (.388)
중국	126	4.08	1.262	

*p<.05,**p<.01,***p<.001

먼저 Levene의 등 분산검정을 살펴보았다. 유의확률 P=.118로 등분산이 가정되었고 t-검정에서 유의확률(양쪽) 값이 .388이므로 유의수준은 p>.05보다 크기 때문에 집단 간 차이를 통계적으로 지지할 수 없다. [표4-19참조]. 결론적으로 화장실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중국(m=4.08)과 한국(m=4.21)이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기능성

[표4-20] 화장실-기능성 독립표본검정

구분	화장실-기능성			t (p)
	N	평균(M)	표준편차(SD)	
한국	123	4.05	1.279	.102 (.919)
중국	126	4.03	1.350	

*p<.05,**p<.01,***p<.001

먼저 Levene의 등 분산검정을 살펴보았다. 유의확률 P=.937로 등분산이 가정되었고 t-검정에서 유의확률(양쪽) 값이 .919이므로 유의수준은 p>.05보다 크기 때문에 집단 간 차이를 통계적으로 지지할 수 없다. [표4-20참조]. 따라서 엘터의 공평성에 대해서는 중국(m=4.03)과 한국(m=4.05)이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정체성

[표4-21] 화장실-정체성 독립표본검정

구분	화장실-정체성			t (p)
	N	평균(M)	표준편차(SD)	
한국	123	2.96	1.224	4.966 (.000)
중국	126	2.21	1.168	

*p<.05,**p<.01,***p<.001

먼저 Levene의 등 분산검정을 살펴보았다. 유의확률 P=.135로 등분산이 가정되었고 t-검정에서 유의확률(양쪽) 값이 .000이므로 유의수준은 p<.001보다 작기 때문에 집단 간 차이를 통계적으로 지지할 수 있다.[표4-21참조]. 결론적으로 화장실의 정체성에 대해서는 한국(m=2.96)이 중국(m=2.21)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4) 통합성

[표4-22] 화장실-통합성 독립표본검정

구분	화장실-통합성			t (p)
	N	평균(M)	표준편차(SD)	
한국	123	3.14	1.244	-4.473 (.000)
중국	126	3.88	1.372	

*p<.05,**p<.01,***p<.001

먼저 Levene의 등 분산검정을 살펴보았다. 유의확률 $P=.738$ 로 등분산이 가정되었고 t -검정에서 유의확률(양쪽) 값이 $.000$ 이므로 유의수준은 $p<.001$ 다 작기 때문에 집단 간 차이를 통계적으로 지지할 수 있다. [표4-22참조]. 결론적으로 화장실의 통합성에 대해서는 중국($m=3.88$)이 한국($m=3.14$)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5) 조화성

[표4-23] 화장실-조화성 독립표본검정

구분	화장실-조화성			$t(p)$
	N	평균(M)	표준편차(SD)	
한국	123	3.58	1.016	5.454 (.000)
중국	126	2.83	1.153	

* $p<.05$,** $p<.01$,*** $p<.001$

먼저 Levene의 등 분산검정을 살펴보았다. 유의확률 $P=.145$ 로 등분산이 가정되었고 t -검정에서 유의확률(양쪽) 값이 $.000$ 이므로 유의수준은 $p<.001$ 보다 작기 때문에 집단 간 차이를 통계적으로 지지할 수 있다. [표4-23참조]. 결론적으로 화장실의 조화성에 대해서는 한국($m=3.58$)이 중국($m=2.83$)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6) 지속가능성

[표4-24] 화장실-지속가능성 독립표본검정

구분	화장실-지속가능성			$t(p)$
	N	평균(M)	표준편차(SD)	
한국	123	3.91	1.355	4.124 (.000)
중국	126	3.24	1.216	

* $p<.05$,** $p<.01$,*** $p<.001$

먼저 Levene의 등 분산검정을 살펴보았다. 유의확률 $P=.371$ 로 등분산이 가정되었고 t -검정에서 유의확률(양쪽) 값이 $.000$ 이므로 유의수준은 $p<.001$ 보다 작기 때문에 집단 간 차이를 통계적으로 지지할 수 있다. [표4-24참조]. 결론적으로 화장실의 지속가능성에 대해서는 한국($m=3.91$)이 중국($m=3.24$)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표4-25] 화장실에 대한 만족도

국가 \ 요소	안전성	기능성	정체성	통합성	조화성	지속가능성	평균
한국	4.21	4.05	2.96	3.14	3.58	3.91	3.64
중국	4.08	4.03	2.21	3.88	2.83	3.24	3.38

한국과 중국의 화장실에 대한 만족도 조사결과는 [표4-25]과 같다. 한국의 경우 5점 만점에 안전성이 4.21점으로 1위, 기능성(4.05) 2위, 지속가능성(3.91) 3위, 조화성(3.58) 4위, 통합성(3.14) 5위, 정체성(2.96) 6위 순으로 나타났다. 안전성, 기능성, 지속가능성에 대한 만족도는 한국 평균(3.64) 이상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경우 5점 만점에 안전성이 4.08점으로 1위, 기능성(4.03) 2위, 통합성(3.88) 3위, 지속가능성(3.24) 4위, 조화성(2.83) 5위, 정체성(2.21) 6위 순으로 나타났다. 안전성, 기능성, 통합성에 대한 만족도는 중국 평균(3.38) 이상으로 나타났다.

2) 휴지통

(1) 안전성

[표4-26] 휴지통-안전성 독립표본검정

구분	휴지통-안전성			t (p)
	N	평균(M)	표준편차(SD)	
한국	123	3.73	1.306	.475 (.635)
중국	126	3.66	1.111	

*p<.05,**p<.01,***p<.001

먼저 Levene의 등 분산검정을 살펴보았다. 유의확률 P=.001로 등분산이 가정되었고 t-검정에서 유의확률(양쪽) 값이 .635이므로 유의수준은 p>.05보다 크기 때문에 집단 간 차이를 통계적으로 지지할 수 없다. [표4-26참조]. 결론적으로 휴지통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중국(m=3.66)과 한국(m=3.73)이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기능성

[표4-27] 휴지통-기능성 독립표본검정

구분	휴지통-기능성			t (p)
	N	평균(M)	표준편차(SD)	
한국	123	3.76	1.222	.470 (.639)
중국	126	3.69	1.255	

*p<.05,**p<.01,***p<.001

먼저 Levene의 등 분산검정을 살펴보았다. 유의확률 P=.390로 등분산이 가정되었고 t-검정에서 유의확률(양쪽) 값이 .639이므로 유의수준은 p>.05보다 크기 때문에 집단 간 차이를 통계적으로 지지할 수 없다. [표4-27참조]. 따라서 휴지통의 기능성에 대해서는 중국(m=3.69)과 한국(m=3.76)이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정체성

[표4-28] 휴지통-정체성 독립표본검정

구분	휴지통-정체성			t (p)
	N	평균(M)	표준편차(SD)	
한국	123	2.12	.806	-8.075 (.000)
중국	126	3.12	1.114	

*p<.05,**p<.01,***p<.001

먼저 Levene의 등 분산검정을 살펴보았다. 유의확률 P=.000로 등분산이 가정되었고 t-검정에서 유의확률(양쪽) 값이 .005이므로 유의수준은 p<.001보다 작기 때문에 집단 간 차이를 통계적으로 지지할 수 있다. [표4-28참조]. 결론적으로 휴지통의 정체성에 대해서는 중국(m=3.12)이 한국(m=2.12)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4) 통합성

[표4-29] 휴지통-통합성 독립표본검정

구분	휴지통-통합성			t (p)
	N	평균(M)	표준편차(SD)	
한국	123	3.85	1.337	4.648 (.000)
중국	126	3.07	1.291	

*p<.05,**p<.01,***p<.001

먼저 Levene의 등 분산검정을 살펴보았다. 유의확률 $P=.860$ 로 등분산이 가정되었고 t -검정에서 유의확률(양쪽) 값이 $.000$ 이므로 유의수준은 $p<.001$ 보다 작기 때문에 집단 간 차이를 통계적으로 지지할 수 있다. [표4-29참조]. 결론적으로 휴지통의 통합성에 대해서는 한국($m=3.85$)이 중국($m=3.07$)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5) 조화성

[표4-30] 휴지통-조화성 독립표본검정

구분	휴지통-조화성			$t(p)$
	N	평균(M)	표준편차(SD)	
한국	123	2.87	1.152	4.691 (.000)
중국	126	2.26	.878	

* $p<.05$,** $p<.01$,*** $p<.001$

먼저 Levene의 등 분산검정을 살펴보았다. 유의확률 $P=.000$ 로 등분산이 가정되었고 t -검정에서 유의확률(양쪽) 값이 $.000$ 이므로 유의수준은 $p<.001$ 보다 작기 때문에 집단 간 차이를 통계적으로 지지할 수 있다. [표4-30참조]. 결론적으로 휴지통의 조화성에 대해서는 한국($m=2.87$)이 중국($m=2.26$)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6) 지속가능성

[표4-31] 휴지통-지속가능성 독립표본검정

구분	휴지통-지속가능성			$t(p)$
	N	평균(M)	표준편차(SD)	
한국	123	3.75	1.245	5.697 (.000)
중국	126	2.98	.862	

* $p<.05$,** $p<.01$,*** $p<.001$

먼저 Levene의 등 분산검정을 살펴보았다. 유의확률 $P=.000$ 로 등분산이 가정되었고 t -검정에서 유의확률(양쪽) 값이 $.000$ 이므로 유의수준은 $p<.001$ 보다 작기 때문에 집단 간 차이를 통계적으로 지지할 수 있다. [표4-31참조]. 결론적으로 휴지통의 지속가능성에 대해서는 한국($m=3.75$)이 중국($m=2.98$)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표4-32] 휴지통에 대한 만족도

국가 \ 요소	안전성	기능성	정체성	통합성	조화성	지속가능성	평균
한국	3.73	3.76	2.12	3.85	2.87	3.75	3.35
중국	3.66	3.69	3.12	3.07	2.26	2.98	3.13

한국과 중국의 휴지통에 대한 만족도 조사결과는 [표4-32]과 같다. 한국의 경우 5점 만점에 통합성이 3.85점으로 1위, 기능성(3.76) 2위, 지속가능성(3.75) 3위, 안전성(3.73) 4위, 조화성(2.87) 5위, 정체성(2.12) 6위 순으로 나타났다. 통합성, 기능성, 지속가능성, 안전성에 대한 만족도는 한국 평균(3.35) 이상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경우 5점 만점에 기능성이 3.69점으로 1위, 안전성(3.66) 2위, 정체성(3.12) 3위, 통합성(3.07) 4위, 지속가능성(2.98) 5위, 조화성(2.26) 6위 순으로 나타났다. 안전성, 기능성에 대한 만족도는 중국 평균(3.13) 이상으로 나타났다.

4.3.3 휴게시설물

1) 벤치

(1) 안전성

[표4-33] 벤치-안전성 독립표본검정

구분	벤치-안전성			t (p)
	N	평균(M)	표준편차(SD)	
한국	123	4.31	1.195	5.236 (.000)
중국	126	3.45	1.378	

*p<.05,**p<.01,***p<.001

먼저 Levene의 등 분산검정을 살펴보았다. 유의확률 P=.000로 등분산이 가정되었고 t-검정에서 유의확률(양쪽) 값이 .000이므로 유의수준은 p<.001보다 작기 때문에 집단 간 차이를 통계적으로 지지할 수 있다. [표4-33참조]. 결론적으로 벤치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한국(m=4.31)이 중국(m=3.45)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2) 기능성

[표4-34] 벤치-기능성 독립표본검정

구분	벤치-기능성			t (p)
	N	평균(M)	표준편차(SD)	
한국	123	3.68	1.081	.847 (.398)
중국	126	3.56	1.142	

*p<.05,**p<.01,***p<.001

먼저 Levene의 등 분산검정을 살펴보았다. 유의확률 P=.674로 등분산이 가정되었고 t-검정에서 유의확률(양쪽) 값이 .398이므로 유의수준은 p>.05보다 크기 때문에 집단 간 차이를 통계적으로 지지할 수 없다. [표4-34참조]. 따라서 벤치의 기능성에 대해서는 중국(m=3.56)과 한국(m=3.68)이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정체성

[표4-35] 벤치-정체성 독립표본검정

구분	벤치-정체성			t (p)
	N	평균(M)	표준편차(SD)	
한국	123	3.87	1.336	3.096 (.002)
중국	126	3.34	1.357	

*p<.05,**p<.01,***p<.001

먼저 Levene의 등 분산검정을 살펴보았다. 유의확률 P=.239로 등분산이 가정되었고 t-검정에서 유의확률(양쪽) 값이 .002이므로 유의수준은 p<.05보다 작기 때문에 집단 간 차이를 통계적으로 지지할 수 있다. [표4-35참조]. 결론적으로 벤치의 정체성에 대해서는 한국(m=3.87)이 중국(m=3.34)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4) 통합성

[표4-36] 벤치-통합성 독립표본검정

구분	벤치-통합성			t (p)
	N	평균(M)	표준편차(SD)	
한국	123	4.11	1.200	9.823 (.000)
중국	126	2.82	.843	

*p<.05,**p<.01,***p<.001

먼저 Levene의 등 분산검정을 살펴보았다. 유의확률 $P=.000$ 로 등분산이 가정되었고 t -검정에서 유의확률(양쪽) 값이 $.000$ 이므로 유의수준은 $p<.001$ 보다 작기 때문에 집단 간 차이를 통계적으로 지지할 수 있다. [표4-36참조]. 결론적으로 벤치의 통합성에 대해서는 한국($m=4.11$)이 중국($m=2.82$)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5) 조화성

[표4-37] 벤치-조화성 독립표본검정

구분	벤치-조화성			$t(p)$
	N	평균(M)	표준편차(SD)	
한국	123	4.05	1.130	4.419 (.000)
중국	126	3.36	1.329	

* $p<.05$,** $p<.01$,*** $p<.001$

먼저 Levene의 등 분산검정을 살펴보았다. 유의확률 $P=.000$ 로 등분산이 가정되었고 t -검정에서 유의확률(양쪽) 값이 $.000$ 이므로 유의수준은 $p<.001$ 보다 작기 때문에 집단 간 차이를 통계적으로 지지할 수 있다. [표4-37참조]. 결론적으로 벤치의 조화성에 대해서는 한국($m=4.05$)이 중국($m=3.36$)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6) 지속가능성

[표4-38] 벤치-지속가능성 독립표본검정

구분	벤치-지속가능성			$t(p)$
	N	평균(M)	표준편차(SD)	
한국	123	4.21	1.189	6.646 (.000)
중국	126	3.29	1.003	

* $p<.05$,** $p<.01$,*** $p<.001$

먼저 Levene의 등 분산검정을 살펴보았다. 유의확률 $P=.069$ 로 등분산이 가정되었고 t -검정에서 유의확률(양쪽) 값이 $.000$ 이므로 유의수준은 $p<.001$ 보다 작기 때문에 집단 간 차이를 통계적으로 지지할 수 있다. [표4-38참조]. 결론적으로 벤치의 지속가능성에 대해서는 한국($m=4.21$)이 중국($m=3.29$)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표4-39] 벤치에 대한 만족도

국가 \ 요소	안전성	기능성	정체성	통합성	조화성	지속가능성	평균
한국	4.31	3.68	3.87	4.11	4.05	4.21	4.04
중국	3.45	3.56	3.34	2.82	3.36	3.29	3.30

한국과 중국의 벤치에 대한 만족도 조사결과는 [표4-39]과 같다. 한국의 경우 5점 만점에 안전성이 4.31점으로 1위, 지속가능성(4.21) 2위, 통합성(4.11) 3위, 조화성(4.05) 4위, 정체성(3.87) 5위, 기능성(3.68) 6위 순으로 나타났다. 안전성, 지속가능성, 통합성, 조화성에 대한 만족도는 한국 평균(4.04) 이상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경우 5점 만점에 기능성이 3.56점으로 1위, 안전성(3.45) 2위, 조화성(3.36) 3위, 정체성(3.34) 4위, 지속가능성(3.29) 5위, 통합성(2.82) 6위 순으로 나타났다. 기능성, 안전성, 조화성, 정체성에 대한 만족도는 중국 평균(3.30) 이상으로 나타났다.

4.3.4 보행시설물

1) 펜스

(1) 안전성

[표4-40] 펜스-안전성 독립표본검정

구분	펜스-안전성			t (p)
	N	평균(M)	표준편차(SD)	
한국	123	4.18	1.201	.483 (.630)
중국	126	4.11	1.006	

*p<.05,**p<.01,***p<.001

먼저 Levene의 등 분산검정을 살펴보았다. 유의확률 P=.003로 등분산이 가정되었고 t-검정에서 유의확률(양쪽) 값이 .630이므로 유의수준은 p>.05보다 크기 때문에 집단 간 차이를 통계적으로 지지할 수 없다. [표4-40참조]. 결론적으로 펜스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중국(m=4.11)과 한국(m=4.18)이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기능성

[표4-41] 펜스-기능성 독립표본검정

구분	펜스-기능성			t (p)
	N	평균(M)	표준편차(SD)	
한국	123	4.09	1.241	.612 (.541)
중국	126	3.99	1.268	

*p<.05,**p<.01,***p<.001

먼저 Levene의 등 분산검정을 살펴보았다. 유의확률 P=.261로 등분산이 가정되었고 t-검정에서 유의확률(양쪽) 값이 .541이므로 유의수준은 p>.05보다 크기 때문에 집단 간 차이를 통계적으로 지지할 수 없다. [표4-41참조]. 따라서 펜스의 기능성에 대해서는 중국(m=3.99)과 한국(m=4.09)이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정체성

[표4-42] 펜스-정체성 독립표본검정

구분	펜스-정체성			t (p)
	N	평균(M)	표준편차(SD)	
한국	123	2.56	1.242	-3.451 (.001)
중국	126	3.11	1.273	

*p<.05,**p<.01,***p<.001

먼저 Levene의 등 분산검정을 살펴보았다. 유의확률 P=.038로 등분산이 가정되었고 t-검정에서 유의확률(양쪽) 값이 .001이므로 유의수준은 p<.05보다 작기 때문에 집단 간 차이를 통계적으로 지지할 수 있다. [표4-42참조]. 결론적으로 펜스의 정체성에 대해서는 중국(m=3.11)이 한국(m=2.56)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4) 통합성

[표4-43] 펜스-통합성 독립표본검정

구분	펜스-통합성			t (p)
	N	평균(M)	표준편차(SD)	
한국	123	4.09	1.293	7.102 (.000)
중국	126	2.91	1.321	

*p<.05,**p<.01,***p<.001

먼저 Levene의 등 분산검정을 살펴보았다. 유의확률 $P=.298$ 로 등분산이 가정되었고 t -검정에서 유의확률(양쪽) 값이 $.000$ 이므로 유의수준은 $p<.001$ 보다 작기 때문에 집단 간 차이를 통계적으로 지지할 수 있다.[표4-43참조]. 결론적으로 펜스의 통합성에 대해서는 한국($m=4.09$)이 중국($m=2.91$)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5) 조화성

[표4-44] 펜스-조화성 독립표본검정

구분	펜스-조화성			$t(p)$
	N	평균(M)	표준편차(SD)	
한국	123	3.91	1.228	7.600 (.000)
중국	126	2.77	1.140	

* $p<.05$,** $p<.01$,*** $p<.001$

먼저 Levene의 등 분산검정을 살펴보았다. 유의확률 $P=.758$ 로 등분산이 가정되었고 t -검정에서 유의확률(양쪽) 값이 $.000$ 이므로 유의수준은 $p<.001$ 보다 작기 때문에 집단 간 차이를 통계적으로 지지할 수 있다. [표4-44참조]. 결론적으로 펜스의 조화성에 대해서는 한국($m=3.91$)이 중국($m=2.77$)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6) 지속가능성

[표4-45] 펜스-지속가능성 독립표본검정

구분	펜스-지속가능성			$t(p)$
	N	평균(M)	표준편차(SD)	
한국	123	3.95	1.220	5.359 (.000)
중국	126	3.13	1.207	

* $p<.05$,** $p<.01$,*** $p<.001$

먼저 Levene의 등 분산검정을 살펴보았다. 유의확률 $P=.125$ 로 등분산이 가정되었고 t -검정에서 유의확률(양쪽) 값이 $.000$ 이므로 유의수준은 $p<.001$ 보다 작기 때문에 집단 간 차이를 통계적으로 지지할 수 있다. [표4-45참조]. 결론적으로 펜스의 지속가능성에 대해서는 한국($m=3.95$)이 중국($m=3.13$)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표4-46] 펜스에 대한 만족도

국가 \ 요소	안전성	기능성	정체성	통합성	조화성	지속가능성	평균
한국	4.18	4.09	2.56	4.09	3.91	3.95	3.80
중국	4.11	3.99	3.11	2.91	2.77	3.13	3.34

한국과 중국의 펜스에 대한 만족도 조사결과는 [표4-46]과 같다. 한국의 경우 5점 만점에 안전성이 4.18점으로 1위, 기능성과통합성(4.09) 2위, 지속가능성(3.95) 3위, 조화성(3.91) 4위, 정체성(2.56) 5위 순으로 나타났다. 안전성, 기능성, 통합성, 지속가능성, 조화성에 대한 만족도는 한국 평균(3.80) 이상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경우 5점 만점에 안전성이 4.11점으로 1위, 기능성(3.99) 2위, 지속가능성(3.13) 3위, 정체성(3.11) 4위, 통합성(2.91) 5위, 조화성(2.77) 6위 순으로 나타났다. 안전성, 기능성에 대한 만족도는 중국 평균(3.34) 이상으로 나타났다.

2) 블라드

(1) 안전성

[표4-47] 블라드-안전성 독립표본검정

구분	블라드-안전성			t (p)
	N	평균(M)	표준편차(SD)	
한국	123	3.63	1.288	.791 (.430)
중국	126	3.52	1.064	

*p<.05,**p<.01,***p<.001

먼저 Levene의 등 분산검정을 살펴보았다. 유의확률 P=.000로 등분산이 가정되었고 t-검정에서 유의확률(양쪽) 값이 .430이므로 유의수준은 p>.05보다 크기 때문에 집단 간 차이를 통계적으로 지지할 수 없다. [표4-47참조]. 결론적으로 블라드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중국(m=3.52)과 한국(m=3.63)이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기능성

[표4-48] 블라드-기능성 독립표본검정

구분	블라드-기능성			t (p)
	N	평균(M)	표준편차(SD)	
한국	123	4.16	1.204	.531 (.596)
중국	126	4.08	1.269	

*p<.05,**p<.01,***p<.001

먼저 Levene의 등 분산검정을 살펴보았다. 유의확률 P=.278로 등분산이 가정되었고 t-검정에서 유의확률(양쪽) 값이 .596이므로 유의수준은 p>.05보다 크기 때문에 집단 간 차이를 통계적으로 지지할 수 없다. [표4-48참조]. 결론적으로 블라드의 기능성에 대해서는 중국(m=4.08)과 한국(m=4.16)이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정체성

[표4-49] 블라드-정체성 독립표본검정

구분	블라드-정체성			t (p)
	N	평균(M)	표준편차(SD)	
한국	123	2.75	1.005	5.941 (.000)
중국	126	2.15	.507	

*p<.05,**p<.01,***p<.001

먼저 Levene의 등 분산검정을 살펴보았다. 유의확률 P=.000로 등분산이 가정되었고 t-검정에서 유의확률(양쪽) 값이 .000이므로 유의수준은 p<.001보다 작기 때문에 집단 간 차이를 통계적으로 지지할 수 있다. [표4-49참조]. 결론적으로 블라드의 정체성에 대해서는 한국(m=2.75)이 중국(m=2.15)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4) 통합성

[표4-50] 블라드-통합성 독립표본검정

구분	블라드-통합성			t (p)
	N	평균(M)	표준편차(SD)	
한국	123	3.95	1.311	4.184 (.000)
중국	126	3.21	1.462	

*p<.05,**p<.01,***p<.001

먼저 Levene의 등 분산검정을 살펴보았다. 유의확률 $P=.002$ 로 등분산이 가정되었고 t -검정에서 유의확률(양쪽) 값이 $.000$ 이므로 유의수준은 $p<.001$ 보다 작기 때문에 집단 간 차이를 통계적으로 지지할 수 있다. [표4-50참조]. 결론적으로 블라드의 통합성에 대해서는 한국($m=3.95$)이 중국($m=3.21$)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5) 조화성

[표4-51] 블라드-조화성 독립표본검정

구분	블라드-조화성			$t(p)$
	N	평균(M)	표준편차(SD)	
한국	123	4.23	1.115	7.101 (.000)
중국	126	3.11	1.352	

* $p<.05$,** $p<.01$,*** $p<.001$

먼저 Levene의 등 분산검정을 살펴보았다. 유의확률 $P=.000$ 로 등분산이 가정되었고 t -검정에서 유의확률(양쪽) 값이 $.000$ 이므로 유의수준은 $p<.001$ 보다 작기 때문에 집단 간 차이를 통계적으로 지지할 수 있다. [표4-51참조]. 결론적으로 블라드의 조화성에 대해서는 한국($m=4.23$)이 중국($m=3.11$)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6) 지속가능성

[표4-52] 블라드-지속가능성 독립표본검정

구분	블라드-지속가능성			$t(p)$
	N	평균(M)	표준편차(SD)	
한국	123	4.17	1.233	3.295 (.001)
중국	126	3.61	1.437	

* $p<.05$,** $p<.01$,*** $p<.001$

먼저 Levene의 등 분산검정을 살펴보았다. 유의확률 $P=.000$ 로 등분산이 가정되었고 t -검정에서 유의확률(양쪽) 값이 $.001$ 이므로 유의수준은 $p<.05$ 보다 작기 때문에 집단 간 차이를 통계적으로 지지할 수 있다. [표4-52참조]. 결론적으로 블라드의 지속가능성에 대해서는 한국($m=4.17$)이 중국($m=3.61$)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표4-53] 블라드에 대한 만족도

국가 \ 요소	안전성	기능성	정체성	통합성	조화성	지속가능성	평균
한국	3.63	4.16	2.75	3.95	4.23	4.17	3.81
중국	3.52	4.08	2.15	3.21	3.11	3.61	3.28

한국과 중국의 블라드에 대한 만족도 조사결과는 [표4-53]과 같다. 한국의 경우 5점 만점에 조화성이 4.23점으로 1위, 지속가능성(4.17) 2위, 기능성(4.16) 3위, 통합성(3.95) 4위, 안전성(3.63) 5위, 정체성(2.75) 6위 순으로 나타났다. 조화성, 지속가능성, 기능성, 통합성에 대한 만족도는 한국 평균(3.81) 이상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경우 5점 만점에 기능성이 4.08점으로 1위, 지속가능성(3.61) 2위, 안전성(3.52) 3위, 통합성(3.21) 4위, 조화성(3.11) 5위, 정체성(2.15) 6위 순으로 나타났다. 기능성, 지속가능성, 안전성에 대한 만족도는 중국 평균(3.28) 이상으로 나타났다.

3) 정류장

(1) 안전성

[표4-54] 정류장-안전성 독립표본검정

구분	정류장-안전성			t (p)
	N	평균(M)	표준편차(SD)	
한국	123	4.25	1.316	.595 (.552)
중국	126	4.16	1.155	

*p<.05,**p<.01,***p<.001

먼저 Levene의 등 분산검정을 살펴보았다. 유의확률 P=.611로 등분산이 가정되었고 t-검정에서 유의확률(양쪽) 값이 .552이므로 유의수준은 $p > .05$ 보다 크기 때문에 집단 간 차이를 통계적으로 지지할 수 없다. [표4-54참조]. 결론적으로 정류장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중국(m=4.16)과 한국(m=4.25)이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기능성

[표4-55] 정류장-기능성 독립표본검정

구분	정류장-기능성			t (p)
	N	평균(M)	표준편차(SD)	
한국	123	4.27	1.131	5.660 (.000)
중국	126	3.34	1.432	

*p<.05,**p<.01,***p<.001

먼저 Levene의 등 분산검정을 살펴보았다. 유의확률 P=.000로 등분산이 가정되었고 t-검정에서 유의확률(양쪽) 값이 .000이므로 유의수준은 p<.001보다 작기 때문에 집단 간 차이를 통계적으로 지지할 수 있다. [표4-55참조]. 결론적으로 정류장의 기능성에 대해서는 한국(m=4.27)이 중국(m=3.34)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3) 정체성

[표4-56] 정류장-정체성 독립표본검정

구분	정류장-정체성			t (p)
	N	평균(M)	표준편차(SD)	
한국	123	3.03	1.280	6.949 (.000)
중국	126	2.11	.751	

*p<.05,**p<.01,***p<.001

먼저 Levene의 등 분산검정을 살펴보았다. 유의확률 P=.000로 등분산이 가정되었고 t-검정에서 유의확률(양쪽) 값이 .000이므로 유의수준은 p<.001보다 작기 때문에 집단 간 차이를 통계적으로 지지할 수 있다. [표4-56참조]. 결론적으로 정류장의 정체성에 대해서는 한국(m=3.03)이 중국(m=2.11)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4) 통합성

[표4-57] 정류장-통합성 독립표본검정

구분	정류장-통합성			t (p)
	N	평균(M)	표준편차(SD)	
한국	123	3.65	1.123	4.615 (.000)
중국	126	2.97	1.206	

*p<.05,**p<.01,***p<.001

먼저 Levene의 등 분산검정을 살펴보았다. 유의확률 $P=.343$ 로 등분산이 가정되었고 t -검정에서 유의확률(양쪽) 값이 $.000$ 이므로 유의수준은 $p<.001$ 보다 작기 때문에 집단 간 차이를 통계적으로 지지할 수 있다. [표4-57참조]. 결론적으로 정류장의 통합성에 대해서는 한국($m=3.65$)이 중국($m=2.97$)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5) 조화성

[표4-58] 정류장-조화성 독립표본검정

구분	정류장-조화성			$t(p)$
	N	평균(M)	표준편차(SD)	
한국	123	3.83	1.092	10.244 (.000)
중국	126	2.31	1.242	

* $p<.05$,** $p<.01$,*** $p<.001$

먼저 Levene의 등 분산검정을 살펴보았다. 유의확률 $P=.419$ 로 등분산이 가정되었고 t -검정에서 유의확률(양쪽) 값이 $.000$ 이므로 유의수준은 $p<.001$ 보다 작기 때문에 집단 간 차이를 통계적으로 지지할 수 있다. [표4-58참조]. 결론적으로 정류장의 조화성에 대해서는 한국($m=3.83$)이 중국($m=2.31$)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6) 지속가능성

[표4-59] 정류장-지속가능성 독립표본검정

구분	정류장-지속가능성			$t(p)$
	N	평균(M)	표준편차(SD)	
한국	123	3.99	1.334	6.895 (.000)
중국	126	2.86	1.263	

* $p<.05$,** $p<.01$,*** $p<.001$

먼저 Levene의 등 분산검정을 살펴보았다. 유의확률 $P=.436$ 로 등분산이 가정되었고 t -검정에서 유의확률(양쪽) 값이 $.000$ 이므로 유의수준은 $p<.001$ 보다 작기 때문에 집단 간 차이를 통계적으로 지지할 수 있다. [표4-59참조]. 결론적으로 정류장의 지속가능성에 대해서는 한국($m=3.99$)이 중국($m=2.86$)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표4-60] 정류장에 대한 만족도

국가 \ 요소	안전성	기능성	정체성	통합성	조화성	지속가능성	평균
한국	4.25	4.27	3.03	3.65	3.83	3.99	3.84
중국	4.16	3.34	2.11	2.97	2.31	2.86	2.96

한국과 중국의 정류장에 대한 만족도 조사결과는 [표4-60]과 같다. 한국의 경우 5점 만점에 기능성이 4.27점으로 1위, 안전성(4.25) 2위, 지속가능성(3.99) 3위, 조화성(3.83) 4위, 통합성(3.65) 5위, 정체성(3.03) 6위 순으로 나타났다. 기능성, 안전성, 지속가능성에 대한 만족도는 한국 평균(3.84) 이상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경우 5점 만점에 안전성이 4.16점으로 1위, 기능성(3.34) 2위, 통합성(2.97) 3위, 지속가능성(2.86) 4위, 조화성(2.31) 5위, 정체성(2.11) 6위 순으로 나타났다. 안전성, 기능성, 통합성에 대한 만족도는 중국 평균(2.96) 이상으로 나타났다.

4.3.5 관리시설물

1) 맨홀뚜껑

(1) 안전성

[표4-61] 맨홀뚜껑-안전성 독립표본검정

구분	맨홀뚜껑-안전성			t (p)
	N	평균(M)	표준편차(SD)	
한국	123	4.16	1.333	.597 (.551)
중국	126	4.07	1.067	

*p<.05,**p<.01,***p<.001

먼저 Levene의 등 분산검정을 살펴보았다. 유의확률 P=.000로 등분산이 가정되었고 t-검정에서 유의확률(양쪽) 값이 .551이므로 유의수준은 $p > .05$ 보다 크기 때문에 집단 간 차이를 통계적으로 지지할 수 없다. [표4-61참조]. 결론적으로 맨홀뚜껑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중국(m=4.07)과 한국(m=4.16)이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기능성

[표4-62] 맨홀뚜껑-기능성 독립표본검정

구분	맨홀뚜껑-기능성			t (p)
	N	평균(M)	표준편차(SD)	
한국	123	4.07	1.285	.238 (.812)
중국	126	4.02	1.445	

*p<.05,**p<.01,***p<.001

먼저 Levene의 등 분산검정을 살펴보았다. 유의확률 P=.197로 등분산이 가정되었고 t-검정에서 유의확률(양쪽) 값이 .812이므로 유의수준은 $p>.05$ 보다 크기 때문에 집단 간 차이를 통계적으로 지지할 수 없다. [표4-62참조]. 결론적으로 맨홀뚜껑의 기능성에 대해서는 중국(m=4.02)과 한국(m=4.07)이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정체성

[표4-63] 맨홀뚜껑-정체성 독립표본검정

구분	맨홀뚜껑-정체성			t (p)
	N	평균(M)	표준편차(SD)	
한국	123	4.19	1.250	6.765 (.000)
중국	126	3.02	1.470	

*p<.05,**p<.01,***p<.001

먼저 Levene의 등 분산검정을 살펴보았다. 유의확률 P=.010로 등분산이 가정되었고 t-검정에서 유의확률(양쪽) 값이 .000이므로 유의수준은 $p<.001$ 보다 작기 때문에 집단 간 차이를 통계적으로 지지할 수 있다. [표4-63참조]. 결론적으로 맨홀뚜껑의 정체성에 대해서는 한국(m=4.19)이 중국(m=3.02)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4) 통합성

[표4-64] 맨홀뚜껑-통합성 독립표본검정

구분	맨홀뚜껑-통합성			t (p)
	N	평균(M)	표준편차(SD)	
한국	123	4.17	1.272	.808 (.420)
중국	126	4.03	1.436	

*p<.05,**p<.01,***p<.001

먼저 Levene의 등 분산검정을 살펴보았다. 유의확률 $P=.122$ 로 등분산이 가정되었고 t -검정에서 유의확률(양쪽) 값이 $.420$ 이므로 유의수준은 $p>.05$ 보다 크기 때문에 집단 간 차이를 통계적으로 지지할 수 없다. [표4-64참조]. 결론적으로 맨홀뚜껑의 통합성에 대해서는 중국($m=4.03$)과 한국($m=4.17$)이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조화성

[표4-65] 맨홀뚜껑-조화성 독립표본검정

구분	맨홀뚜껑-조화성			$t(p)$
	N	평균(M)	표준편차(SD)	
한국	123	3.89	1.288	2.981 (.003)
중국	126	3.31	1.727	

* $p<.05$,** $p<.01$,*** $p<.001$

먼저 Levene의 등 분산검정을 살펴보았다. 유의확률 $P=.000$ 로 등분산이 가정되었고 t -검정에서 유의확률(양쪽) 값이 $.003$ 이므로 유의수준은 $p<.05$ 보다 작기 때문에 집단 간 차이를 통계적으로 지지할 수 있다. [표4-65참조]. 결론적으로 맨홀뚜껑의 조화성에 대해서는 한국($m=3.89$)이 중국($m=3.31$)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6) 지속가능성

[표4-66] 맨홀뚜껑-지속가능성 독립표본검정

구분	맨홀뚜껑-지속가능성			$t(p)$
	N	평균(M)	표준편차(SD)	
한국	123	4.06	1.250	3.185 (.002)
중국	126	3.45	1.705	

* $p<.05$,** $p<.01$,*** $p<.001$

먼저 Levene의 등 분산검정을 살펴보았다. 유의확률 $P=.000$ 로 등분산이 가정되었고 t -검정에서 유의확률(양쪽) 값이 $.002$ 이므로 유의수준은 $p<.05$ 보다 작기 때문에 집단 간 차이를 통계적으로 지지할 수 있다. [표4-66참조]. 따라서 맨홀뚜껑의 지속가능성에 대해서는 한국($m=4.06$)이 중국($m=3.45$)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표4-67] 맨홀뚜껑에 대한 만족도

국가 \ 요소	안전성	기능성	정체성	통합성	조화성	지속가능성	평균
한국	4.16	4.07	4.19	4.17	3.89	4.06	4.09
중국	4.07	4.02	3.02	4.03	3.31	3.45	3.65

한국과 중국의 맨홀뚜껑에 대한 만족도 조사결과는 [표4-67]과 같다. 한국의 경우 5점 만점에 정체성이 4.19점으로 1위, 통합성(4.17) 2위, 안전성(4.16) 3위, 기능성(4.07) 4위, 지속가능성(4.06) 5위, 조화성(3.89) 6위 순으로 나타났다. 정체성, 통합성, 안전성에 대한 만족도는 한국 평균(4.09) 이상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경우 5점 만점에 안전성이 4.07점으로 1위, 통합성(4.03) 2위, 기능성(4.02) 3위, 지속가능성(3.45) 4위, 조화성(3.31) 5위, 정체성(3.02) 6위 순으로 나타났다. 안전성, 통합성, 기능성에 대한 만족도는 중국 평균(3.65) 이상으로 나타났다.

4.3.6 조명시설물

1) 가로등

(1) 안전성

[표4-68] 가로등-안전성 독립표본검정

구분	가로등-안전성			t (p)
	N	평균(M)	표준편차(SD)	
한국	123	3.96	1.197	.832 (.406)
중국	126	3.83	1.192	

*p<.05,**p<.01,***p<.001

먼저 Levene의 등 분산검정을 살펴보았다. 유의확률 P=.805로 등분산이 가정되었고 t-검정에서 유의확률(양쪽) 값이 .406이므로 유의수준은 $p > .05$ 보다 크기 때문에 집단 간 차이를 통계적으로 지지할 수 없다. [표4-68참조]. 결론적으로 가로등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중국(m=3.83)과 한국(m=3.96)이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기능성

[표4-69] 가로등-기능성 독립표본검정

구분	가로등-기능성			t (p)
	N	평균(M)	표준편차(SD)	
한국	123	3.95	1.267	.233 (.816)
중국	126	3.91	1.339	

*p<.05,**p<.01,***p<.001

먼저 Levene의 등 분산검정을 살펴보았다. 유의확률 P=.295로 등분산이 가정되었고 t-검정에서 유의확률(양쪽) 값이 .816이므로 유의수준은 p>.05보다 크기 때문에 집단 간 차이를 통계적으로 지지할 수 없다. [표4-69참조]. 결론적으로 가로등의 기능성에 대해서는 중국(m=3.91)과 한국(m=3.95)이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정체성

[표4-70] 가로등-정체성 독립표본검정

구분	가로등-정체성			t (p)
	N	평균(M)	표준편차(SD)	
한국	123	3.49	1.375	6.026 (.000)
중국	126	2.41	1.438	

*p<.05,**p<.01,***p<.001

먼저 Levene의 등 분산검정을 살펴보았다. 유의확률 P=.168로 등분산이 가정되었고 t-검정에서 유의확률(양쪽) 값이 .000이므로 유의수준은 p<.001보다 작기 때문에 집단 간 차이를 통계적으로 지지할 수 있다. [표4-70참조]. 결론적으로 가로등의 정체성에 대해서는 한국(m=3.49)이 중국(m=2.41)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4) 통합성

[표4-71] 가로등-통합성 독립표본검정

구분	가로등-통합성			t (p)
	N	평균(M)	표준편차(SD)	
한국	123	3.93	1.332	2.043 (.042)
중국	126	3.57	1.411	

*p<.05,**p<.01,***p<.001

먼저 Levene의 등 분산검정을 살펴보았다. 유의확률 $P=.035$ 로 등분산이 가정되었고 t -검정에서 유의확률(양쪽) 값이 $.042$ 이므로 유의수준은 $p<.05$ 보다 작기 때문에 집단 간 차이를 통계적으로 지지할 수 있다. [표4-71참조]. 결론적으로 가로등의 통합성에 대해서는 한국($m=3.93$)이 중국($m=3.57$)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5) 조화성

[표4-72] 가로등-조화성 독립표본검정

구분	가로등-조화성			$t(p)$
	N	평균(M)	표준편차(SD)	
한국	123	3.84	1.345	4.285 (.000)
중국	126	3.12	1.300	

* $p<.05$,** $p<.01$,*** $p<.001$

먼저 Levene의 등 분산검정을 살펴보았다. 유의확률 $P=.596$ 로 등분산이 가정되었고 t -검정에서 유의확률(양쪽) 값이 $.000$ 이므로 유의수준은 $p<.001$ 보다 작기 때문에 집단 간 차이를 통계적으로 지지할 수 있다. [표4-72참조]. 결론적으로 가로등의 조화성에 대해서는 한국($m=3.84$)이 중국($m=3.12$)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6) 지속가능성

[표4-73] 가로등-지속가능성 독립표본검정

구분	가로등-지속가능성			$t(p)$
	N	평균(M)	표준편차(SD)	
한국	123	4.03	1.254	5.709 (.000)
중국	126	3.14	1.205	

* $p<.05$,** $p<.01$,*** $p<.001$

먼저 Levene의 등 분산검정을 살펴보았다. 유의확률 $P=.102$ 로 등분산이 가정되었고 t -검정에서 유의확률(양쪽) 값이 $.000$ 이므로 유의수준은 $p<.001$ 보다 작기 때문에 집단 간 차이를 통계적으로 지지할 수 있다. [표4-73참조]. 결론적으로 가로등의 지속가능성에 대해서는 한국($m=4.03$)이 중국($m=3.14$)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표4-74] 가로등에 대한 만족도

국가 \ 요소	안전성	기능성	정체성	통합성	조화성	지속가능성	평균
한국	3.96	3.95	3.49	3.93	3.84	4.03	3.87
중국	3.83	3.91	2.41	3.57	3.12	3.14	3.33

한국과 중국의 가로등에 대한 만족도 조사결과는 [표4-74]과 같다. 한국의 경우 5점 만점에 지속가능성이 4.03점으로 1위, 안전성(3.96) 2위, 기능성(3.95) 3위, 통합성(3.93) 4위, 조화성(3.84) 5위, 정체성(3.49) 6위 순으로 나타났다. 지속가능성, 안전성, 기능성, 통합성에 대한 만족도는 한국 평균(3.87) 이상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경우 5점 만점에 기능성이 3.91점으로 1위, 안전성(3.83) 2위, 통합성(3.57) 3위, 지속가능성(3.14) 4위, 조화성(3.12) 5위, 정체성(2.41) 6위 순으로 나타났다. 기능성, 안전성, 통합성에 대한 만족도는 중국 평균(3.33) 이상으로 나타났다.

4.4 소결

공공시설물 디자인을 분석하고 정보시설물, 위생시설물, 휴게시설물, 보행시설물, 관리시설물, 조명시설물을 분석한 결과는 [표4-75]와 같다. 한국의 경우 안전성 측면에서는 벤치에 대한 만족도가 비교적 높았으며 기능성에 있어서는 정류장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정체성 측면에서는 맨홀뚜껑 만족도가 높았으며 통합성에서는 관광안내소, 조화성에서는 볼라드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지속가능성 측면에서는 안내 사인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중국의 경우 안전성 측면에서는 관광안내소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기능성에 있어서는 관광안내소에 대한 만족도가 비교적 높았으며 정체성 측면에서는 벤치의 만족도가 높았다. 통합성 측면에서는 맨홀뚜껑 만족도가 높았으며 조화성 측면에서는 벤치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지속가능성 측면에서는 볼라드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는 한국과 중국 공공시설물 디자인의 특성 차이를 분석하였으며 선행연구를 통해 공공시설물 디자인 측면에서의 측정 문제를 검증하였다. 기존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로, 본 연구 또한 한국과 중국의 역사문화거리 공공시설물 디자인 측면의 각 요소 및 이용 후 만족도를 평가하였다.

한국과 중국의 6개 평가요소를 분석한 결과, 만족도 평가는 전체적으로 선행연구와 유사한 패턴을 보였다. 전체적으로 한국인이 중국인에 비해 높은 수치, 즉 더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그러나 경제 발전과 도시화에 따라 선진국인 한국이든 개발도상국인 중국이든 모두 도시 공공디자인 및 시민들의 삶에 질에 대한 요구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으며 구체적인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안전성은 6개 평가요소 중 만족도가 가장 높았다. 이는 한국과 중국의 공공시설물 디자인이 모두 안전성을 잘 구현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이와는 달리, 정체성에 대한 만족도는 6개 평가요소 중 가장 낮은 수치로, 응답자의 정체성에 대한 만족도는 가장 낮았으며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한국과 중국 모두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구체적인 데이터 분석 결과로부터 알 수 있듯이, 6개 평가요소 중 정체성 측면은 향후 정책 실시 및 공공시설물 개선에 있어 보완해야 할 문제다.

한국과 중국의 10개 공공시설물 평가를 토대로 알 수 있듯이, 한국은 안전성, 기능성, 정체성, 통합성, 조화성,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중국보다 만족도가 높았다. 그러나 휴지통과 펜스의 정체성에 대한 만족도는 중국이 한국보다 높았으며 화장실의 통합성 측면에 대한 만족도도 중국이 한국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역사문화거리 내 휴지통 디자인에 있어 한국이 지역문화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사람들이 휴지통의 디자인이 거리의 이미지에 그다지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펜스의 정체성 측면에 있어 한국의 경우 어느 정도 정체성을 구현하고 있지만, 이용자에게 만족감을 주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화장실의 통합성 측면을 봤을 때, 중국의 경우 화장실 디자인의 형태와 색채가 거리의 전체적인 공간 환경과 통일감을 형성하고 있어 이용자의 만족도가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안전성, 기능성 측면에서 봤을 때, 한국의 공공시설물 정체성에 대한 만족도 평균값은 중국보다 높았지만, 차이는 그다지 크지 않았다. 정체성 측면에서 중국과 한국의 만족도 점수는 각각 3.23점과 2.67점으로, 모두 6개 평가요소 중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그 구체적인 원인을 살펴보면, 한국은 휴지통에 대한 만족도가 2.12점으로 가장 낮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는 한국의 역사문화거리의 휴지통 디자인은 개선이 시급하며 시민들의 휴지통 디자인 정체성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중국은 버스정류장 디자인에 대한 만족도가 2.11점으로 가장 낮았으며 점수를 만족한 결과, 정류장 디자인의 정체성 만족도 점수는 ‘불만족’에 가까웠다. 이는 역사문화거리의 정

류장 디자인이 개성이 없고 해당 장소의 특성을 식별할 수 없어 정류장의 정체성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하기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과 중국 양국 시민들의 역사문화거리 공공시설물 디자인에 대한 관심은 단순한 물리적 측면을 넘어 지역문화가 지닌 이미지와 조형적 의미 전달을 통해 이상적인 역사문화거리 환경을 조성한다. 역사문화거리 공공시설물의 정체성과 통합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시설물의 물리적 특성과 도시의 특성화된 이미지를 통해 역사문화거리 환경의 시각적 및 문화적 경쟁력을 제고 할 수 있다.

[표4-75] 공공 시설물에 대한 만족도

구분	정보 시설물		위생 시설물		휴게 시설물	보행 시설물			관리 시설물	조명 시설물	
	관광 안내소	안내 사인	화장실	휴지통	벤치	펜스	블라드	정류장	맨홀 뚜껑	가로등	
안전성	한국	4.26	4.15	4.21	3.73	4.31	4.18	3.63	4.25	4.16	3.95
	중국	4.19	4.04	4.08	3.66	3.45	4.11	3.52	4.16	4.07	3.86
기능성	한국	4.22	3.85	4.05	3.76	3.68	4.09	4.16	4.27	4.07	3.98
	중국	4.16	3.76	4.03	3.69	3.56	3.99	4.08	3.34	4.02	3.91
정체성	한국	3.67	3.67	2.96	2.12	3.87	2.56	2.75	3.03	4.19	3.49
	중국	3.01	2.25	2.21	3.12	3.34	3.11	2.15	2.11	3.02	2.41
통합성	한국	4.18	3.97	3.14	3.85	4.11	4.09	3.95	3.65	4.17	3.93
	중국	2.84	3.24	3.88	3.07	2.82	2.91	3.21	2.97	4.03	3.57
조화성	한국	3.55	4.16	3.58	2.87	4.05	3.91	4.23	3.83	3.89	3.84
	중국	3.03	2.72	2.83	2.26	3.36	2.77	3.11	2.31	3.31	3.12
지속 가능성	한국	3.95	4.29	3.91	3.75	4.21	3.95	4.17	3.99	4.06	4.03
	중국	3.17	3.15	3.24	2.98	3.29	3.13	3.61	2.86	3.45	3.14

이 외에도, 통계학적 분석을 실시한 결과, 안전성 측면에서 있어 관광안내소, 안내사인, 화장실, 휴지통, 펜스, 블라드, 정류장, 맨홀뚜껑, 가로등에 대한 조사 대상자의 만족도 점수는 유의한 차이가 없다. 기능성 측면에서도 관광안내소, 안내사인, 화장실, 휴지통, 벤치, 펜스, 블라드, 맨홀뚜껑, 가로등에 대한 만족도 점수 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는 사람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면서 납부한 세금이 공공분야에서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보이며 중국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의 공공시설물에 대한 사용빈도가 점

점 더 높아지면서 공공시설물의 안전성과 기능성 충족이 가장 우선시되고 있으며 이는 개인의 안전과 이익과 관련된 문제이기도 하다. 따라서, 상기 공공시설물의 안전성과 기능성에 대하여 한국과 중국의 만족도 간 차이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고, 비록 벤치의 안전성, 정류장의 기능성은 통계적으로 $p < .05$ 수준에서 유의미하지는 않지만, 전반적으로 한국이 중국보다 더 높게 나타났으며 중국 시민들의 경우 자극물에 의해 응답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실제 시설에 대한 인식 평가는 부족한 것으로 간주한다.

결과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국의 수치가 중국보다 다소 높았다. 다시 말해서, 역사문화거리 공공시설물에 대한 만족도는 한국인이 중국인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와도 일치하며 이는 아래 몇 가지 이유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첫째, 한국과 중국의 정책 차이이다. 아직 개발도상국인 중국에 비해 한국은 역사문화보호지역에 대한 정책 및 공공디자인 정책을 상대적으로 더 중시하고 있으며 관련 도시 계획 가이드라인 및 공공시설물 규정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다.

한국은 각 도시의 통합성의 바탕으로 하여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였으며 공공디자인 심사 및 운영에 있어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유지 및 관리 기능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 체계화를 실현하였다. 단, 통일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가이드라인은 각 도시만의 지역문화 정체성을 반영하는 데 단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공공디자인에 관련된 가이드라인은 제정 및 보완 중에 있다. 또한, 지역 간 경제발전 수준의 차이가 비교적 크기 때문에 각 도시의 공공시설물 활용 및 설치 역시 큰 차이가 있고, 공공시설물의 정체성 표현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

둘째, 관광개발 관련 의식이다. 한국은 역사문화거리를 하나의 관광상품으로 보고 전체적인 이미지 구축에 대한 투자 비중이 높으며 공공시설물의 설치에 있어 다양한 집단의 일상 여가활동, 여행 등을 위해 투자를 늘림으로써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관광수입을 늘리고 있다. 이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의 복지 및 공공시설물에 대한 투자를 이용자가 실제로 느낄 수 있도록 실행으로 옮기는 것이며 특히 향후 발전 지속가능성에 대한 추구라고 볼 수 있다.

제5장

결론

제5장 결론

현대에 이르러 역사문화거리 조성은 단순히 물질적인 측면에서의 개선이 아닌 역사문화 거리의 이미지 구축 및 제고를 추구하고 있다. 공공시설물 디자인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점점 높아짐에 따라 공공시설물 디자인에 있어 사람-문화-환경 간에 상호 영향과 작용 과정은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도시문화 환경을 기반으로 한 공공 시설물 디자인은 역사문화 거리의 이미지 구축에 결정적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역사문화거리의 공공시설물 디자인의 가로환경과의 조화, 나아가 주위 환경 전체와의 융합은 '사람-공공시설-환경'의 통합이라는 가장 바람직한 목표를 실현하고 도시의 소프트 파워를 강화하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

도시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각국 시민들의 디자인 분야에 대한 관심 역시 높아지고 있다. 특히, 공공디자인의 중요성이 점점 대두되고 있으며 이러한 배경하에 역사문화거리의 공공시설물 디자인은 시민의 건강과 행복 등 사회적 가치와 문화적 가치를 창조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정부 역시 공공시설 조성에 대한 정책 및 법규를 적극적으로 제정 및 추진하고 공공시설물에 대한 관리 체계를 개선함으로써 이용자 중심, 사람 중심의 방식을 통해 공공시설물의 지속적이고 효과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방향을 강구하고 있다. 본 연구를 토대로 알 수 있듯이 한국의 공공디자인 관련 법률 및 준칙은 비교적 체계적으로 갖추어져 있으며 공공시설물의 디자인, 배치, 관리, 운영 관련 디자인 준칙이 제정되어 있다.

중국의 공공디자인 관련 법률 및 준칙은 주로 도시계획 및 도시 전체 디자인 측면에서 중점으로 하되 세부적인 지역은 해당 지역의 실제 상황에 맞는 관련 도시디자인 준칙을 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중국의 각 지역의 발전 상황과 지역의 세분화는 제정 및 완성해 나가는 과정에 있다. 이러한 한국과 중국 정부의 정책 가이드라인에 대한 차이로 인해 한국과 중국의 만족도 조사 및 결과는 다르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지방자치 단체나 공공기관의 디자인 정책은 지역문화를 토대로 수립되어야 하며 정책 단계에서 실제 디자인 적용 단계까지 공공디자인 정책을 도시 건설 및 국가 발전을 위한 하나의 중심 축으로 삼을 필요성을 도출할 수 있었다.

역사문화거리 공공시설물 디자인은 역사문화거리의 독특한 브랜드 가치를 창조하고 이용자의 접근성 제고, 공공시설물에 대한 인식 및 정체성을 통해 가로환경을 더 쾌적하게 만드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공공시설물 디자인은 일부 특정 계층만을 위한 디자인이 아닌 모두가 이용하고 누릴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주변 경관과의 조화가 매우 중요하다.

공공시설물 디자인은 대중을 위한 것이고, 공공성이 그 본질인 만큼 모든 계층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 모든 이의 수요를 만족시키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최대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추구해야 한다. 수요에 대한 평가는 최종적으로 평가자에 의해 이루어지며 이는 평가자 개인의 성향이나 경험, 능력 또는 소질 등에 따라 평가 결과가 다를 수 있다. 예산, 시간 등 객관적 여건의 제약으로 인해 본 논문은 표본조사를 선택하여 연구를 실시하였으며 일정 수 이상의 응답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응답자의 설문지 작성 내용을 연구 데이터의 기초로 삼았다. 이를 통해 데이터를 표준화하고 정량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현지 조사 및 관찰을 통해 기록과 사진 자료를 수집 및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이용 후 만족도 평가를 토대로 사람들의 수요와 공공시설물의 첫 번째 요건이 주위환경과의 조화임을 파악하였다. 또한, 단순히 공공시설물에 대한 평가만 하는 것이 아닌 공공시설물의 환경을 고려하여 해당 시설물이 본래의 기능을 잘 수행하고 있는지, 이용자의 수요를 충족시키는지, 이용 만족도가 높은지 등 기본적인 문제에 대한 논의를 실시하였다. 사전 연구조사를 통해 역사문화거리 공공시설물 디자인을 파악하고 평가 항목을 수립함으로써 한국과 중국의 공공시설물 디자인을 평가하였다.

한국과 중국의 역사문화거리 공공시설물에 대한 만족도 분석을 토대로 제시하고자 하는 공공시설물 디자인 개선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안전성과 기능성 중심에서 디자인 중심으로 확대. 일반적으로 공공시설물은 사람들의 사용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으로, 대부분 기본적인 기능성을 토대로 안전성을 중시하되 디자인성이 다소 부족한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디자인에 뚜렷한 특징이 없거나, 주변 환경에 어울리지 않거나, 지역의 전체적인 분위기와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등의 문제점이 존재한다. 따라서, 향후에는 디자인의 다양성, 문화성, 혁신성을 고려하고 공공시설물의 디자인과 도시재생의 융합을 통해 지역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디자인을 중심으로 한 공공시설물 디자인 발전을 위해서는 디자인 교육을 출발점으로 하여 공공디자인 관련 학과 증설, 공공디자인 전문인력 양성, 산학협력 등을 장려해야 한다. 이와 동시에 정부 또한 공공디자인 발전 방향 제시, 관련 디자인 준칙 및 관련 기준을 수립해야 한다. 이를 통해 문화적 공공성 및 심미성이 우수한 공공디자인을 선정·시상할 수 있는 제도를 개선 및 수립하여 공공시설물의 이용 만족도 향상을 위한 디자인적 방향에 대해 연구되어야 한다.

둘째, 개별적 디자인에서 전체적 통합적 디자인으로 강화되어야 한다. 공공디자인은 도시디자인의 중요한 구성부분으로, 도시 또는 지역 전체와 상호 조화를 이루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한 관련 정책 제정 및 연구를 통해 공공시설물 디자인을 위한 구체적인 디자인 계획 및 가이드라인을 제공해야 한다. 이와 동시에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 계획 및 각 문화지역 공공디자인 진흥 계획을 제정하고 전문가위원회 및 지역 추진협의체의 수립을 통해 의견을 반영하여 정기적인 조사 및 개정을 진행함으로써 공공디자인을 활성화해야 한다. 이 외에도 관련 조사 연구 성과를 공공지아니 관련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고 이를 공공디자인의 발전 트렌드를 파악하는 토대로 활용해야 한다.

셋째, 단기적 디자인에서 지속가능한 디자인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공공시설물 디자인은 중장기적인 측면의 사용성과 미래 지속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환경과 자원의 지속가능성을 생각하는 한편, 사회와 문화의 지속가능성 역시 고려하여 공공시설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공공시설물 디자인 계획의 심의 및 평가 체계를 수립하고 이용 후 평가 시스템을 강화함으로써 계획 추진 및 시설물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또한 공공디자인의 가치를 교육, 홍보 등의 분야로 확장하여 공공디자인사업을 위한 전담 부서나 전문 인력을 배치하거나 전문 수행기관을 육성 및 지정하여 재정적 지원책을 강구하는 등 꾸준한 공공디자인사업의 개발과 운영을 추진해야 한다.

본 연구는 한국과 중국의 공공시설물 디자인 특성에 관한 조사를 통해 공공시설물에 대한 사람들의 수요를 파악하였다. 연구 결과, 이용자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디자인 요소 간 상호작용을 고려해야 함을 알 수 있었으며 본 논문의 연구 결과가 향후 역사문화거리 공공시설물 디자인 평가 또는 발전 방향 제시, 후속연구를 위한 일정 참고가 되길 바란다.

모든 디자인이 그러하듯, 역사문화거리 공공시설물 디자인 역시 혁신이 필요하며 도심 속 역사문화거리 공공시설물의 혁신 방법 중 하나는 바로 사용기능이 더욱 편리하고 이용자의 정서적 수요에 더욱 부합하는 디자인의 공공시설물을 만드는 것이다. 향후에는 기존 디자인에 존재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 이용자의 실제 수요에 맞는 디자인을 설계해야 한다. 또한, 역사문화거리 공공시설물의 디자인은 도시의 개성을 반영하여 도시의 매력을 높일 수 있어야 한다. 역사와 문화라는 기초 위에 통합성을 더하고 친환경 및 재생 가능한 재료를 사용하여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디자인이야말로 이용자가 원하는 미래지향적인 공공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공공시설물 디자인에 있어 각기 다른 시설물 간 만족도 차이를 심층적으로 분석한 조사결과자료를 통하여 향후 연구 과제를 제시함과 더불어 한국과 중국 공공디자인의 구체적인 정책 및 공공시설물 디자인의 개선 방향과 향후 역사문화거리 재생 및 조성 시 공공시설물 디자인을 위한 기준을 제시하였다.

참고문헌

단행본

- 경주시 공공디자인가이드라인 및 표준디자인, 2021.
- 권영결 외. 공공디자인 행정론. 도서출판 날마다, 2011.
- 권영결. 권영결 교수의 공공디자인 산책. 가인, 2008.
- 김인서. 전개논문, 2018.
- 김효정. 문화도시 육성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2004.
- 디자인서울 총괄본부. 디자인 서울 공공시설물 가이드라인, 2008.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를 통한 지역재생 정책추진 방안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2012.
- 서울시 총괄본부. 디자인 서울 공공시설물 가이드라인, 2008.
- 서울시 총괄본부. 서울상징색 적용 가이드라인, 2009.
- 송진희. 문화도시경쟁력과 디자인. 한국과학기술도서상, 2007.
- 신흥경. Story of Design City. 광문각, 2008.
- 윤종영 외. 공공디자인 행정론. 삼성출판사, 2009.
- 윤종영, 안혜신. 공공디자인 행정론, 2009.
- 윤종용. 아름다운 도시환경을 위한 공공디자인 진흥방안연구. 문화체육관광부, 2005.
- 이병천, 채병선, 최상철. 전주한옥마을. 대원사, 2013.
- 이순자, 장은교. 지역거점 문화도시 조성사업 추진실태 및 향후 과제. 국토연구원, 2012.
- 이진만. 공공 환경디자인론, 1998.
- 한국문화정책개발원. 문화지구 조성모델 개발 및 정책방향에 관한 연구, 1999.
- 连玉明. 街道蓝皮书北京街道发展报告:大栅栏篇. 社会科学文献出版社, 2016.
- 张凌浩, 陈旻瑾. 环境中的设施设计. 中国建筑工业出版社, 2011.
- 中国法制出版社. 中华人民共和国文物保护法. 中国法制出版社, 2002.
- 中华人民共和国建设部. 历史文化名城保护规划规范. 中国建筑工业出版社, 2005.
- (加拿大)雅各布斯著, 金衡山译, 美国大城市的消亡与生长, 译林出版社, 2006.
- 张海林, 董雅. 城市空间元素公共环境设施设计. 中国建筑工业出版社, 2007.
- Barry Goodchild, Housing and urban environment: a guide to housing design. Renewal and urban planning, Black well Science Ltd, 1997.

- Campbell, A, Converse, P.E, & Rodgers, W.L, The Quality of American Life,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1976.

학위논문

박사학위

- 류림. 향만 친수공간의 공공시설물 디자인 지속가능방안 구축에 관한 연구. 2014. 부경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 박철희. 역사문화도시 이미지 형성모형과 적용방안에 관한 연구:백제의 수도 부여를 중심으로. 2011. 충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 배장은. 도시가로 재생을 위한 공공디자인 연구. 2014.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 성가희. 밈(Meme)적 공공공간의 디자인 평가 방법. 2021. 조선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 안인향. 서울시 역사적 도심부의 보전적 재생을 위한 연구. 2008.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 왕이팡. 중국 역사문화거리의 경관 특성에 관한 연구. 2020.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 윤갑근. 建築物 內・外部 Design要素의 認知特性에 관한 相關關係分析. 2007. 원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 이상락. 공공시설물 설계를 위한 지역정체성 인자에 관한 연구. 2010. 전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 이양병. 공공시설물디자인 평가 방법론에 관한 연구. 2011. 조선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 이양숙. 시민 참여 기반의 공공디자인 정책 평가체계 개발 연구:디자인 역량 측정을 중심으로. 2014.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 정봉금. 21세기 문화산업을 위한 공공디자인 정책 연구:국가 디자인 진흥전략과 지원 시스템에 관하여. 2006.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 정희정. 공공디자인의 평가척도어추출에 관한 연구. 2009. 조선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 조정형. 공공디자인의 효율적 적용을 위한 공공시설물 평가 TOOL 개발에 관한 연구. 2010.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 조철희. 傳統 木構造 建築物의 構造的 補強 特性에 관한 연구. 2009. 조선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 차동익. 공공디자인 행정개선(PDAI)모델 연구:공공디자인에 대한 의식분석을 중심으로. 2010. 동아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 최옥규. 리모델링 아파트 거주자 거주만족도에 관한 연구. 2013. 서울벤처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 최용부. 아파트 주거만족도의 구성요소와 관련요인 분석분석:가중치 부여방법을 이용한 진주시 사례를 중심으로. 2005.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 최정문. 경주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의 관광효과에 관한 동태적 연구:시스템 다이내믹스를 중심으로. 2016.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 한경원. 공공임대주택 입주민의 주거만족도 영향요인 연구. 2005.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 허진하. 이용자 만족도를 위한 공공영역의 디자인 평가 방법에 관한 연구. 2012.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 리리. 충칭 역사문화거리 활력 요소로서 공공디자인에 관한 연구. 2020. 군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석사학위

- 권수현. 공공디자인 표준 프로세스의 필요성에 관한 연구. 2012.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 김근아. 도시 환경의 퍼블릭 인터미시를 위한 공공시설물 연구:한강 여의도 시민공원을 중심으로. 2007.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 김명. 도시재생을 통한 가로계획 특성에 관한 연구:중국 역사문화거리 중심으로. 2021.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 김영남. 서울 근대 역사공간의 공공 디자인 연구. 2011. 국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 김용성. 고도 도시의 공공가로시설물 디자인 연구:고도 백제 수도 '부여'를 중심으로. 2014.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 김정규. 역사문화거리의 계획방법 및 조성방안에 관한 연구:扶餘郡 扶餘邑 구드래가로를 중심으로. 2001. 목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 김진선. 인사동 전통문화거리의 관광안내도 디자인 연구. 2006.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 김하나. 부산시 문화거리 조성을 위한디자인 전략 연구:피프(PIFF)거리를 중심으로. 2010.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 류종관. 공공디자인에 관한 연구:나주시를 중심으로. 2011. 동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 박수진. 대도시 중심의 공공시설물 CMF(Color,Material,Finishing)적용 경향에 관한 연구. 2011.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 박순옥. 공공디자인의 색채 활용에 관한 연구:서울시 편의시설물을 대상으로. 2010.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 박완수. 공공디자인 기능의 제도화 방안에 대한 연구:대전광역시 도시디자인 정책을 중심으로. 2013.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 박지현. 도심지 통합지구형 가로시설물 디자인 연구. 2008.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 송미나. 이용자 만족도 분석을 통한 지역문화시설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2006.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 신은진. 서울시 아파트단지의 주거환경 유형별 주거만족도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2012.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 유혜림. 지방도시 역사문화거리조성사업의 전국적 특성과 성공요인에 관한 연구. 2015.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 오상철. 지역 경관 특성을 반영한 공공디자인에 관한 연구:강원도 고성군을 사례로. 2013. 가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 윤서연. '서촌' 역사문화환경 보전 계획과정 연구. 2016.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 윤승로. 도시환경색채분석을 이용한 가로시설물 색채배색에 관한 연구:서울시 강남구를 중심으로. 2004.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 이나영. 도심지 가로환경시설물 디자인의 개선방향 연구:국내·외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2002.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 장갑록. 도시재생과 공공디자인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공공시설물 중심으로. 2015. 조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 정여란. 도시가로환경 조성을 위한 가로시설물 디자인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디자인서울거리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2008. 서울산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 정예빈. 대전시 가로시설물 이미지 특성분석에 관한 연구. 2020.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 조예선. 중국 역사문화거리재생을 위한 공간 스토리텔링 활용 방안 연구:첸먼파스란 거리를 중심으로. 2018.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 좌몽적. 역사문화거리 활성화를 위한 통합 디자인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연구. 2015.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 채다운. 전주 한옥마을 공공시설물 유형 디자인:전통적인 디자인 재해석을 중심으로. 2015. 원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 최지훈. 원도심 상권 활성화를 위한 공공디자인에 관한 연구:천안시 명동거리 일원을 중심으로. 2016.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 한무엘. 지역문화의 고유성 창출을 위한 가로경관에 관한 연구:서울 북촌 가회동을 중심으로. 2009.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 한은희. 국내 공공시설물 소재 및 색체에 관한 연구:국내 주요도시 편의시설물을 중심으로. 2015.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 좌몽적. 역사문화거리 활성화를 위한 통합 디자인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연구. 2015.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 陈彤. 扬州与奈良：中日历史文化名城保护比较研究. 2020. 河北大学研究生院, 硕士学位.
- 陈欣. 城市历史文化街区公共设施的设计研究. 2015. 华东理工大学研究生院, 硕士学位.
- 邓定. 论城市形象战略中的公共设施设计. 2007. 苏州大学研究生院, 硕士学位.
- 董菁. 基于地域文化认同上海历史文化街区的公共设施物设计研究. 2017. 东华大学研究生院, 硕士学位.
- 胡凯. 城市历史文化街区中的公共设施设计研究. 2009. 江南大学研究生院, 硕士学位.
- 黄晓春. 荆州历史文化名城的保护与旅游开发研究. 2019. 华中师范大学研究生院, 硕士学位.
- 林翔. 城市化进程中居住性历史文化街区保护与更新研究. 2003. 华侨大学研究生院, 硕士学位.
- 王黎明. 历史古镇公共设施设计研究. 2017. 华东理工大学研究生院, 硕士学位.
- 王丽. 济宁市竹竿巷历史文化街区保护与更新研究. 2019. 北京建筑大学研究生院, 硕士学位.
- 张银玲. 中国历史文化名城入境旅游发展现状研究:以15座历史文化名城为例. 2010. 新疆师范大学研究生院, 硕士学位.
- 朱文龙. 西安老城历史街区保护与更新研究. 2006. 西安建筑科技大学研究生院, 硕士学位.

보고서

- 中国国务院. 批转建设部,文化部. 关于请公布第二批国家历史文化名城名单报告的通知. 1986, 报告书号:104号.

학회논문

- 김명 외. “도시재생을 통한 역사 문화공간으로서의 가로계획 특성에 관한 연구: 중국 역사 문화거리 중심으로.” 한국문화공간건축학회, vol.-, no.73, 2021, pp.67-74.
- 김인선 외. “도시재생을 위한 컬러노믹스적 접근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vol.26, no.5, 2010, p.286.
- 김준형, 박경진. “도시 환경 시설물 디자인 만족도의 지속성을 위한 방안 연구”. 한국디자인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vol.-, no.-, 2007, pp.72-73.
- 김형석 외. “서울시 공공디자인 정책분석으로 본 공공디자인연구”. 디자인학 연구, vol.25, no.3, 2012, p.30.
- 박재호 외. “공공시설물 디자인 평가를 위한 기초항목 연구”. 한국디자인학회, vol.24, no.3, 2011, pp.351-360.
- 박철희, 이정수. “역사문화도시로서 부여의 도시이미지 형성방안 연구”. 한국도시설계학회. vol.11, no.2, 2010, pp95-108.
- 서주환, 이옥근. “역사문화미관지구 가로경관의 색채분석:수원 역사문화미관지구 행궁로를 중심으로”. 한국디자인지식학회, vol.26, no-, 2013, pp.103-112.
- 손진상. “역사문화도시의 조성에 관한 고찰: 안동시를 중심으로 하여”.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vol.18, no.3, 2011, pp.171-215.
- 윤종영, 안혜신. “도시디자인을 고려한 공공시설물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디자인문화학회, vol.22, no.1, 2016, pp.273-281.
- 이양병. “공공시설물 디자인의 거주후평가(POE)에 관한 연구:광양시 가로시설물 디자인을 중심으로”. 한국디자인트렌드학회, vol.29 no.-, 2010, pp.79-90.
- 이종수. “부산 골목문화자산 스토리텔링 마케팅”. 한국정책학회 학술회, vol.2011, no.-, 2011, pp.58-59.
- 최현정. “행정중심복합도시 공공디자인 설계요소 유형화 및 특성”. 한국도시설계학회, vol.2007, no.11, 2007, pp.355-364.
- 피아우제, 서주환. “N서울타워 주변의 공공시설에 대한 이용자 만족도 분석”. 한국디지털디자인협의회, vol.14, no.4, 2014, pp.915-922.
- 홍상희. “가로시설물에 대한 공공물로서의 개념 정립과 디자인 요소의 추출”. 한국디자인문화학회, vol.12, no.2, 2006, pp.35-45.

- 李騰騰. “中国城市公共空间的科学发展探讨”. 应用科技, vol.37, no.8, 2010, pp.65-67.
- 刘立钧, 汪延洲. “历史文化街区的分类研究”. 天津城建大学学报, vol.22, no.3, 2016, pp.163-169.
- 刘培培, 高德宏, 赵明哲. “例析历史建筑保护与再利用的真实性原则”. 建筑与文化, vol.2017, no.11, 2017, pp.69-70.
- 牛颂. “重视宗教建筑遗产在城市历史风貌中的价值”. 中国宗教, vol.2007, no.02, 2007, pp.66-67.
- 彭红, 刘志强. “探析标新立异产品设计的创意”. 包装工程, vol.33, no.8, 2012, pp.108-111.
- 王景慧. “历史文化名城的概念辨析”. 城市规划. vol.35, no.12, 2011, pp.9-12.
- 王梦瑶, 何韶颖, 汤众. “广州西关历史文化街区类型初探”. 2015年中国建筑史学会年会暨学术研讨会论文集(上), 2015, pp.160-165.
- 于红霞. “青岛历史文化街区价值评价与可持续发展对策研究”. 城市规划. vol.38, no.3, 2014, pp.65-69.
- 张大玉, 王苗. “重拾历史文化街区的价值:历史文化街区现状问题的思考”. 北京建筑工程学院学报. vol.29, no.2, 2013, pp.1-6.
- 郑艳, 岑沫石. “地域文化在地铁公共设施设计中的应用研究”. 西部皮革, vol.42, no.22, 2020, p.139.
- 诸海峰. “地域文化在城市公共环境设施设计中的应用:以桂林城市公共环境设施设计为例”. 艺术百家, vol.7, no.s1, 2010, pp.85-88.

웹사이트

- Beucker,N,Public Design-dieSprache des; ffentlichen Raunmes, IDE.www.uni-essen.de/ide.
- 国家历史文化名城. 2020.12. 百度百科: <http://baike.baidu.com/view/353383.html>

부록

1. 설문지
2. 국문초록

설문지

공공시설물디자인 이용 후 만족도 조사 -한·중 역사문화거리를 중심으로-

안녕하십니까? 조선대학교에서 박사논문을 진행하고 있는 강림영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소중한 시간을 내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설문은 “공공시설물디자인 이용 후 만족도 분석 -한·중 역사문화거리를 중심으로-”연구를 위해 준비되었습니다. 분석 대상을 선정하기 위한 데이터로서, 본 설문에 대한 응답은 무기명에 의해 통계처리 되므로 귀하의 개인적인 사항과 특성은 절대 노출되지 않으며 오로지 학문적인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설문지의 각 항목에 대해서 귀하가 느끼는 바를 성실하고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1년 3월

지도교수: 조선대학교 실내디자인학과 교수 윤 갑 근
 연구자: 조선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과 박사과정 강 림 영
 연락처: candy_188@naver.com

귀하에 대한 일반사항 질문입니다.

1. 귀하의 국적은 무엇입니까?
①한국 ②중국
2.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남자 ②여자
3. 귀하의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20대 ②30대 ③40대 ④50대 ⑤60대 이상
4. 귀하의 전문영역은 무엇입니까?
①전문가 ②일반 사용자
 ※ 4번 문항의 ①을 답한 전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4-1. 귀하의 전문직 분야는 어느 영역입니까?
 ①도시계획 ②건축 관련 ③공공디자인 ④디자인
 ※ 3번 문항의 ②를 답한 일반 사용자에게 대한 질문입니다.
 4-2. 귀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①대학생, 대학원생 ②공무원 ③관광업 ④일반관광객 ⑤기타_____
5. 역사문화거리의 방문횟수는 어느정도 되십니까?
①월 1회미만 ②월1~2회 ③월3~4회 ④거의 매일

1. 설문에서 사용되는 용어에 대한 설명입니다.
 - 안전성: 구조 또는 재료의 안전성, 위험 및 사고 발생 예방.
 - 기능성: 불필요한 장식보다 기능을 강조, 사용 및 관리의 편리성.
 - 정체성: 지역문화정체성 형성.
 - 통합성: 역사문화거리의 디자인 통일성.
 - 조화성: 형태와 색상이 주위환경과 조화.
 - 지속가능성: 재료의 내구성과 친환경성.

뒷장의 설문 응답을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다음은 역사문화거리의 공공시설물 디자인에 대한 만족도 조사입니다. 사진을 참고하시어 매우 만족에서 매우 불만족의 범위 내에서 √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2-1. 정보시설물에 대한 질문입니다.

2-1-1. 관광안내소

(1) 사진



(2) 만족도 평가

(1)의 사진을 참고하여 만족도를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안내소에 대한 평가	A				B				C				D				E				F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안전성																												
기능성																												
경제성																												
통합성																												
조화성																												
지속 가능성																												
만족도*																												

*전반적인 만족도를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뒷장에 이어집니다.

2-1-2. 안내사인

(1) 사진



(2) 만족도 평가

(1)의 사진을 참고하여 만족도를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사인에 대한 평가	A				B				C				D				E				F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안전성																												
기능성																												
정체성																												
통합성																												
조화성																												
지속 가능성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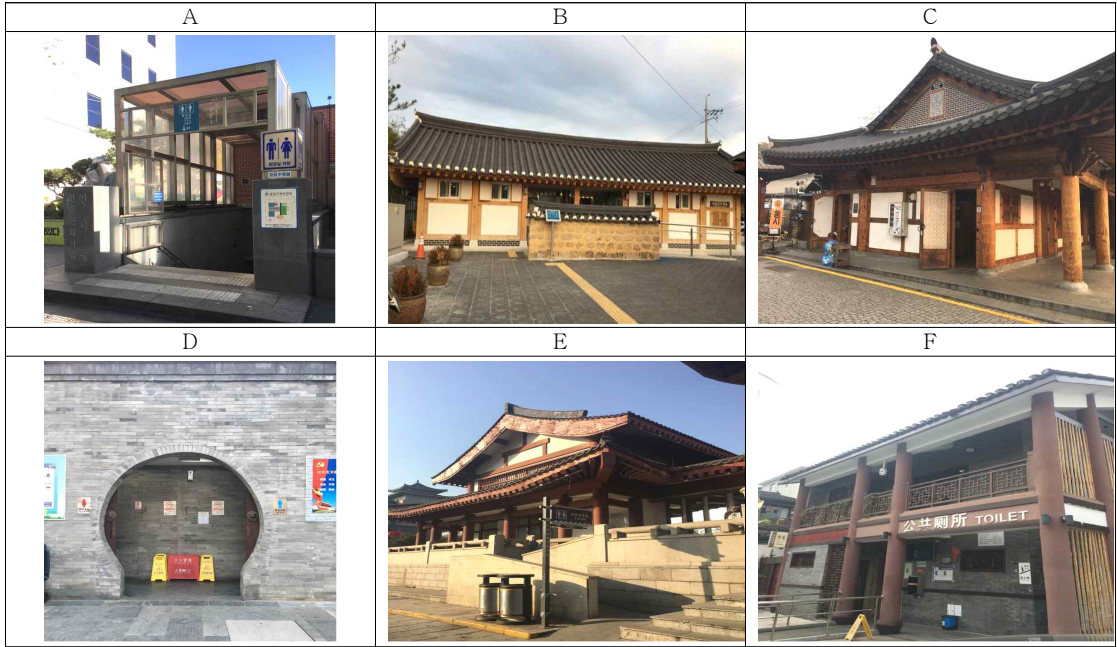
*전반적인 만족도를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뒷장에 이어집니다.

2-2. 위생시설물에 대한 질문입니다.

2-2-1. 화장실

(1) 사진



(2) 만족도 평가

(1)의 사진을 참고하여 만족도를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장실에 대한 평가	A				B				C				D				E				F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안전성																												
기능성																												
경제성																												
통합성																												
조화성																												
지속 가능성																												
만족도*																												

*전반적인 만족도를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뒷장에 이어집니다.

2-2-2. 휴지통

(1) 사진



(2) 만족도 평가

(1)의 사진을 참고하여 만족도를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지통에 대한 평가	A			B			C			D			E			F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안전성																				
기능성																				
정체성																				
통합성																				
조화성																				
지속 가능성																				
만족도*																				

*전반적인 만족도를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뒷장에 이어집니다.

2-3. 휴게시설물에 대한 질문입니다.

2-3-1. 벤치

(1) 사진



(2) 만족도 평가

(1)의 사진을 참고하여 만족도를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벤치에 대한 평가	A				B				C				D				E				F							
	매우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안전성																												
기능성																												
경제성																												
통합성																												
조화성																												
지속가능성																												
만족도*																												

*전반적인 만족도를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뒷장에 이어집니다.

2-4. 보행시설물에 대한 질문입니다.

2-4-1. 펜스

(1) 사진



(2) 만족도 평가

(1)의 사진을 참고하여 만족도를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펜스에 대한 평가	A			B			C			D			E			F		
	매우 불만족	불만족	만족	매우 불만족	불만족	만족	매우 불만족	불만족	만족	매우 불만족	불만족	만족	매우 불만족	불만족	만족	매우 불만족	불만족	만족
안전성																		
기능성																		
경제성																		
통합성																		
조화성																		
지속 가능성																		
만족도*																		

*전반적인 만족도를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뒷장에 이어집니다.

2-4-2. 블라드

(1) 사진



(2) 만족도 평가

(1)의 사진을 참고하여 만족도를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블라드에 대한 평가	A				B				C				D				E				F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안전성																												
기능성																												
경제성																												
통합성																												
조화성																												
지속 가능성																												
만족도*																												

*전반적인 만족도를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뒷장에 이어집니다.

2-4-3. 정류장

(1) 사진



(2) 만족도 평가

(1)의 사진을 참고하여 만족도를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류장에 대한 평가	A				B				C				D				E				F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안전성																												
기능성																												
경제성																												
통합성																												
조화성																												
지속 가능성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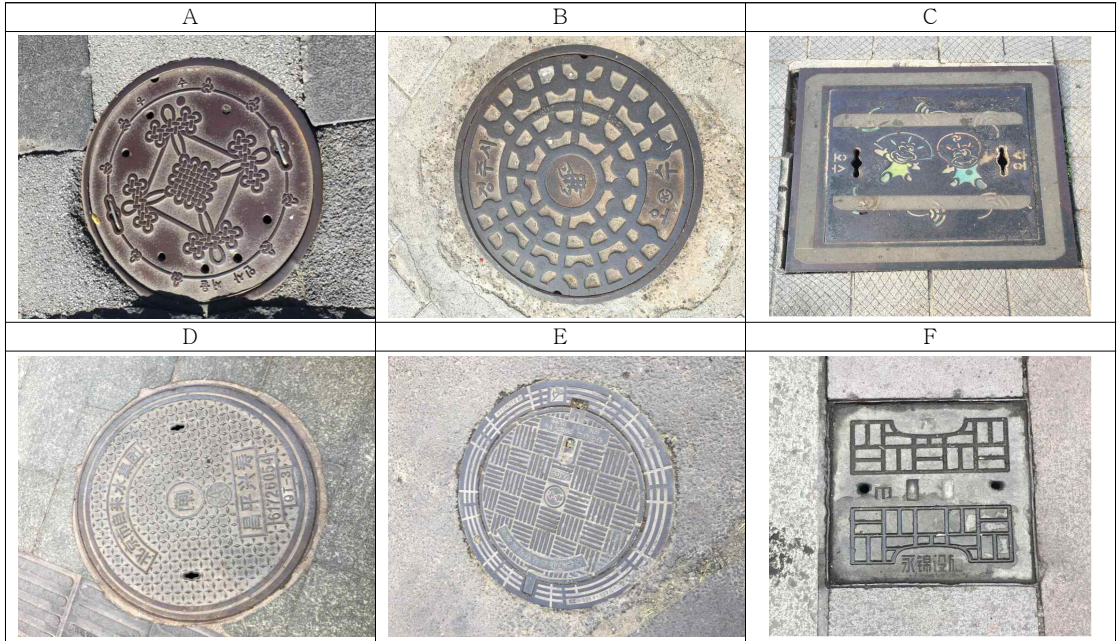
*전반적인 만족도를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뒷장에 이어집니다.

2-5. 관리시설물에 대한 질문입니다.

2-5-1. 맨홀뚜껑

(1) 사진



(2) 만족도 평가

(1)의 사진을 참고하여 만족도를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홀뚜껑에 대한 평가	A				B				C				D				E				F							
	매우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안전성																												
기능성																												
경제성																												
통합성																												
조화성																												
지속가능성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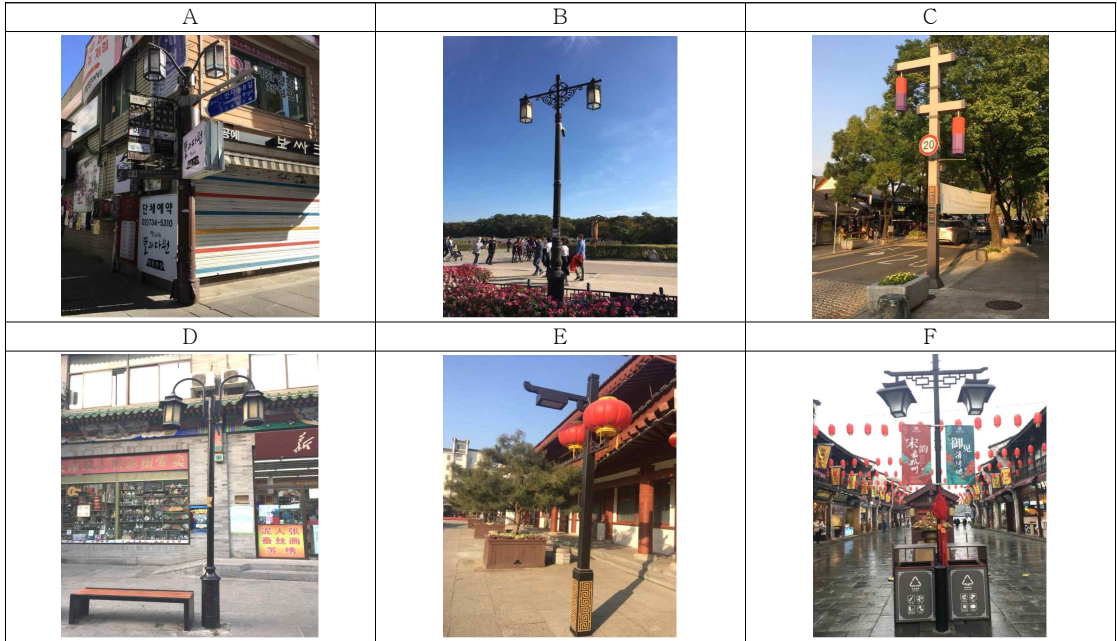
*전반적인 만족도를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뒷장에 이어집니다.

2-6. 조명시설물에 대한 질문입니다.

2-6-1. 가로등

(1) 사진



(2) 만족도 평가

(1)의 사진을 참고하여 만족도를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등에 대한 평가	A				B				C				D				E				F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안전성																												
기능성																												
경제성																												
통합성																												
조화성																												
지속 가능성																												
만족도*																												

*전반적인 만족도를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설문 항목이 끝났습니다.
소중한 의견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국문초록

공공시설물디자인 이용 후 만족도 분석

- 한·중 역사문화거리를 중심으로 -

강 립 영

지도교수 : 윤 갑 근

디자인학과,

조선대학교 대학원

최근 몇 년 간 한국과 중국의 도시재생 활동이 전국적으로 본격화되면서 도시 이미지는 크게 변화하고 있지만 사회경제 문화심미 도시관리 등 현재의 발전 속도에 맞지 않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역사문화거리의 특수한 가치에 대한 사람들의 보다 깊은 인식과 더불어 개성적인 도시와 도시의 문맥을 지속하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면서 도시 갱신 속 역사문화거리의 재생 문제는 점차 전세계인의 폭넓은 관심의 초점문제가 되고 있다.

공공시설물은 공공디자인의 중요한 부분으로 사람들이 역사문화거리를 인지하는 과정에서 물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접촉하는 사물로, 사람들이 도시에 대한 이미지를 형성하는 시작점 중 하나다. 따라서 공공시설물의 이미지는 역사문화거리의 이미지와 하나의 공동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공공시설물 발전 현황은 그다지 만족스러운 상황이 아니며 주로 다음 몇 가지 측면에서 문제점이 존재한다. 첫째, 사람들의 역사문화거리에 대한 보호 의식과 관심이 부족하여 일부 공공시설물이 낙후된 상태로 간과되고 있다. 둘째, 일부 역사문화거리는 보호 방식이 천편일률적이며 건축물 자체만 중시하고 시설물과 인문환경 간의 조화를 간과하고 있다. 특히, 역사문화환경 전체에 대한 보호 의식이 부족하여 공공시설물이 마땅히 지녀야 할 이미지와 매력을 갖추지 못하였다. 셋째, 이미 설치되어 있는 대부분의 공공시설물은 환경과의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조성 계획, 디자인, 유지보수에 있어 통일성이 없다.

따라서, 공공시설물 디자인 요소가 이용자의 이용 후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삶

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공공시설물에 대한 연구, 특히 역사문화거리와 공공시설물 간 상호관계에 관한 연구해 볼 필요가 있으며 이는 이용자의 만족도 측면을 연구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

본 연구는 공공시설물 디자인 특성을 토대로 한국과 중국 역사문화거리의 공공시설물 디자인에 대한 이용 후 만족도 평가 및 분석을 통해 한국과 중국의 공공시설물 디자인에 대한 만족도 평가 요소를 도출함으로써 공공시설물 디자인의 개선 방향과 향후 역사문화거리 재생 및 조성 시 공공시설물 디자인을 위한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 방법은 연구 목적에 맞게 이론 수립 단계, 평가 분석 단계, 평가 해석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연구 방법 중 공공시설물 디자인 관련 이론 내용은 문헌과 관련 자료를 수집·분류·정리하였으며 정리한 자료는 통계분석을 실시하여 표본의 특성과 역사문화거리 공공시설물 디자인의 기본 현황을 파악하였다.

한국과 중국의 역사문화거리 공공시설물에 대한 만족도 평가 차이를 연구하기 위하여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여 연구 사례로 선정한 한국과 중국의 6개 역사문화거리의 공공시설물 10개 항목에 대한 만족도 평가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총 5개 장(章)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장은 서론 부분으로, 연구의 배경과 목적, 연구의 범위와 방법을 서술한다.

2장은 이론적 고찰로, 문헌을 중심으로 공공시설물의 분류 및 특성을 파악하고 관련 학자 및 평가 기준을 토대로 역사문화거리 공공시설물 평가 요소를 도출한다.

3장은 공공시설물 디자인 사례 분석으로, 한국과 중국의 역사문화거리 디자인 사례를 조사 및 분석하고 설문조사의 구체적인 문항을 설정한다.

4장에서는 역사문화거리 공공시설물 디자인의 각 요소에 대한 이용자의 만족도를 조사하고, 이 만족도 조사를 토대로 한국과 중국의 역사문화거리 공공시설물의 평가 항목별 만족도를 분석한다.

5장에서는 연구결과를 요약하여 결론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역사문화거리의 발전 방향을 모색함으로써 사람들에게 보다 쾌적하고 만족스러운 가로공공시설물을 제공하고, 이용 후 만족도 평가의 관점에서 출발하여 실제 적용 가능한 디자인 방향을 제시한다. 이는 역사문화거리의 경쟁력을 높이고 역사문화거리와 시민 간의 조화 및 지역경제의 발전을 촉진한다. 본 논문의 연구 결과가 향후에 역사문화거리 공공시설물 디자인 평가 또는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한 하나의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